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BY

JEONG, YONG GWON

A DEMONSTRATION PROJECT

Submitted to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untington Station, New York

2012

This is certify that the
Demonstration Project entitled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presented by

Jeong, Yong Gwon

has been accepted towards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____
Academic Dean's Signature

____
Director for D. Min Program's Signature

____
May 2012

NYTS is an Affirmative Action/Equal Opportunity Institution

ABSTRACT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by

Jeong, Yong Gwon

This project is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Living in the 21st Century, many Christians face a big challenge that carries following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How to be heard are the Word of God as the Word of God in our time between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The second question is, "Who is Jesus Christ and what it means to people who are living in today?"

Contemporary culture and society is becoming a rapidly changing. Also, particularly the work of the church and even in preaching ministry is coming to a big challenge. According to many scholars, our time have as next to the tide of change in modern society. It is the post-modern society, diversification society, information society, entertainment and a sense of community.

This cultural and social phenomenon can cause many problems and cause disconnection of relationship between modern people and God. So it has many missions to required part to modern preachers. Specifically modern preacher should be become the interpreter for heard preaching. That should be interpreter for word, and an interpreter for the audience, cultural and social phenomena. In an era of change, today's preachers who are the interpreters will be standing in the middle.

The Preaching is the word of God expressed in human language. The God spoke in the past, speaking in the present, and will be speak in

the future. But today, God said the word and revelation toward this time but it has big problem about "How will a heard preaching can be done?" Also, today's preaching has to solve for indeed communication to modern audience.

At central part of these issues, the preacher stands in some problems. However, it has may be bigger the responsibility on the part of the audience. Because communication need to start in the coexistence of the sender and the receiver, and also can be done effectively in a collaborative effort since. If so, "how should we communicate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could solve?"

In that sense, understand and application about the preaching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a research dissertation will proceed as follows. The researcher first part of Chapter 1 will be Introduction to clinical testing in the church, Good Neighbor Community Church of New York regional, historical and contextual background was investigated.

In the Chapter 2, a theoretical study tried for preaching because it can distort the essence of preaching without establishing a proper about theological preaching. In the Chapter 3, it will be focu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preacher. In the Chapter 4, it will be try to understand about the audience. In the Chapter 5, it will be attempt about survey questions. Largely biblical, theological, psychological, cultural and social approaches were investigated, and eventually do not hear preaching, the audience does not change, solitary audience, interruption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must have caused the problem is the fact.

The researcher is proposed as next about the answer. In other words, it makes alternative try of biblical, evangelical preaching and

attempt by balanced preaching, theological reflection and attempt of healing preaching and attempts about the variety of communications environment (traditional, new preaching form).

I will attempt a total of four ways for include clinical testing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ontent. First, I wanted to get feedback about the Vision Festival and ING meetings of the word which was held at the Good Neighbor Community Church of New York. Second, it is feedback research about preaching of preached Rev. Kim, Ki Seok by site team through seven months. Third, I will suggest forms of various preaching written by myself. At the this part, I would like to listen to site team members evaluation. Fourth, I will try to preaching seminars during 12 weeks for preacher and audience. This seminar is for listen method of audience about preaching. They should be learns various theological understanding for preaching through this seminar. It' s trial for gap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Also, it will conduct to practice of preaching for understanding preacher's circumstance. Finally, I will try for the analysis and statistics through a survey of preaching the Good Neighbor Community Church's members have perception about preaching.

The Good Neighbor Community Church of New York is a church where I have been served as a pastor of the church in the past. A Topic about preaching can be subjects very careful and sensitive to preacher but I would like to appreciate to Rev. Kim, ki seok that Rev. Kim was willing to share for study.

Through this study the word of God rather than by the word of God heard and, communicating between the preacher and the audience a little bit if it helps to overcome in this dissertation, this study may be meaningful.

"And we also thank God continually because,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actu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is at work in you who believe."[1]

[1]NIV Version, *Korean-English Explanation Bible*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4), 330.

ACKNOWLEDGEMENTS

NYTS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유학의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은 박사과정 코스웍(Course Work) 과정을 마치고, 바로 귀국해야 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논문을 완성하지 못해서 마음이 조급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국에서 남은 논문 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공부하는 상황이 때가 있듯이, 큰 기회를 허락하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서, 선포자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 한 번 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본 프로젝트(Project)를 위해서 격려해주시며 이끌어주신 NYTS의 백창건 교수님과 Dr. Rusell 교수님, 영남신학대학교의 황금봉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사역의 현장을 기쁜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뉴욕좋은이웃교회의 김기석 담임목사님과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하며 함께 했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고백해 봅니다. 또한,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역사와 전통의 교회에서 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서울영등포교회 임정석 담임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함께 고생하며 때로는 눈물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나의 하나 뿐인 이브 사랑하는 아내 김희은 님과 바쁜 사역과 공부 때문에 좋은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지 못한 아빠를 그래도 믿고 의지해 준 사랑하는 딸 정다솜, 아들 정대한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기도와 물질로, 또한 여러 모습으로 섬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던 가족들과 목회 동역자들,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목회자, 설교자로써 시대와 역사의 한 모퉁이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다시금 고백해 봅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목회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부끄럼 없이, 겸손히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자 합니다.

2012년 5월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109년 역사와 전통의 교회

서울영등포교회에서

정용권

목　차(Table of Contents)

Ⅰ. 서론

1. 배경소개

1) 지역적 배경

(1) 뉴욕(New York)[2]

미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주도는 알버니(Albany)로 뉴욕시(New York City), 버팔로(Buffalo), 로체스터(Rochester), 양커스(Yonkers), 시라큐스(Syracuse)가 주내에서 가장 큰 5개 도시들이다.

다양하고 막대한 자원으로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라고도 불리워지는 뉴욕 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밀도가 높으며 그 면적이 약 13만 7304㎢로 대한민국의 남북을 합친 크기의 약 0.8배 정도 된다. 본래 인디언 소유였던 뉴욕은 1624년 네덜란드가 식민지화한 이후 1664년 영국이 점령하여 뉴욕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뉴욕시, 특히 맨하탄(Manhattan)의 고층건물들은 도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반면에 그 외 대부분의 뉴욕 주는 농장, 숲, 강, 산맥, 호수들이 대부분이다.

산지와 구릉이 많고 고산은 없는 지형으로 애팔래치아 산맥(Appalachian Mountains)과 애디론댁 산지(Adirondack Mountains)의 산악지형, 오대호 연안의 평지, 허드슨강(Hudson River)과 모호크(Mohawk) 강 연안의 협곡, 롱아일랜드 섬(Long Island) 등 크게 4지역으로 나뉘어진다.

---

[2]http://www.lifeinus.com/Travel/NY

뉴욕의 애디론댁 스테이트 파크(Adirondack State Park)는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국립공원 중 그 어느 것보다 크며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는 유명한 관광지이다. 대서양 해안에서 내륙의 오대호 연안까지 전개되기 때문에 기후가 다양한데 여름은 고온 다습하며 겨울은 상당히 춥고 산지에는 봄까지 눈이 쌓여 있다.

북동부의 대서양 해안은 여름에는 무덥고, 활엽낙엽수림과 혼합림이 많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하고 채소 재배 및 닭 · 오리 · 달걀의 생산량은 전국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낙농은 애팔래치아산맥에서 활발하여 생유를 주로 생산하고, 채소 및 닭 사육은 롱아일랜드가, 오대호 주변지대에서는 사과 · 포도 · 복숭아 등의 과수재배가 활발하다.

뉴욕 주의 교통은 주의 주요도시들이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고 철도망도 조밀하며 뉴욕시를 비롯하여 각지에 34개나 되는 비행장이 있어서 항공 교통도 발달해 있다.

뉴욕은 미국 이민의 관문으로 그 역사가 잘 알려져 있는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수백만의 이민자들이 뉴욕에 들어왔고, 20세기 초 맨하탄의 푸른 하늘을 장식하는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뉴욕시는 뉴욕 주의 경제를 대표하는 것은 물론 뱅킹, 금융 등의 세계 경제와 커뮤니케이션 및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빌딩들, 일류 박물관과 공연예술극단, 금융, 패션, 미술, 출판, 방송, 연극, 광고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뉴욕시는 뉴욕증권거래소(New York Stock Exchange: NYSE)가 위치한 월가(Wall Street)를 중심으로 재정, 금융, 상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 제일의 도시이며 기타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특별히 뉴욕시는 5개 위성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맨하탄(Manhattan), 브롱스(Bronx), 스테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브루클린(Brooklyn), 퀸즈(Queens)이다. 이 중 4개 도시 맨하탄, 스테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퀸즈가 허드슨강 입구의 3개의 섬(Manhattan Island, Staten Island, Long Island)에 위치한다.

2)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Suffolk County in Long Island)

서폭 카운티는 뉴욕주의 남동부 부분에, 롱아일랜드 동부 지역에 위치한 카운티이다. 2010년 인구조사 기준으로 인구는 1,493,350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은 초기 정착민이 와서 있는 영국의 서폭 카운티 이름을 따서 붙였다.[3] 카운티의 동쪽 끝은 북쪽 부분과 남쪽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뉴욕의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한 이곳은 아름답고 깨끗한 주거지역으로 아름다운 해변과 농장 그리고 관광명소로 유명한 곳이다. 뉴욕에서 두 번째로 큰 카운티로 미국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유명 인사들의 주택과 그들의 체취가 묻어있는 수많은 명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곳곳에 위치한 크고 작은 아름다운 해변들은 어느 계절이든 관계없이 각각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지역이든 15분 정도만 차를 몰면 바로 아름다운 해변에 다다를 수가 있고 동부 최고의 해변인 존스 비취(Johns Beach)가 있다.

또한 미국 내 10대 학군을 자랑하는 수준 높은 교육시설과 환경은 뉴욕의 교육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 한인 학부모들이 최고 학군의 명성을 따라 가장 많이 모여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4] 롱아일랜드 낫소, 서폭카운티는 학군과 주변 환경이 우수해 취학연령의 자녀를 둔 뉴욕 한인들이 거주 지역으로 가장 선호하는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5]

3) 헌팅턴 시티(Huntington Station in Suffolk County)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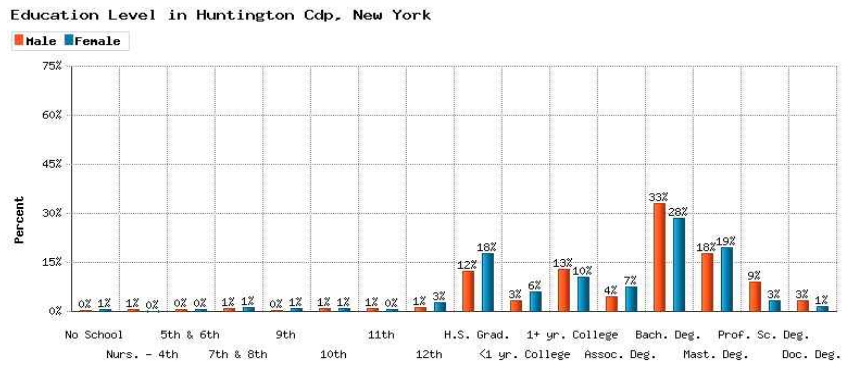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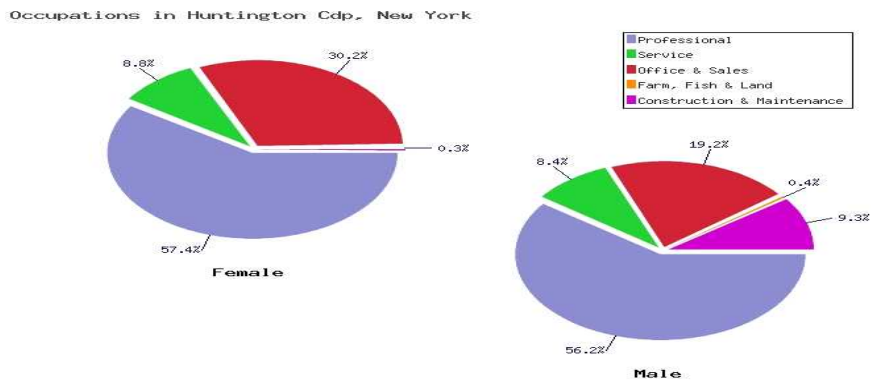
[3]http://en.wikipedia.org/wiki/Smithtown,_New_York#Geography

[4]한인들이 제법 많이 살고 있는 뉴욕시의 25학군, 26학군이 속해 있는 곳인데 뉴욕시에 속해 있는 학군들 중에서는 우수한 곳이다.

[5]http://blog.daum.net/changsunkim/3809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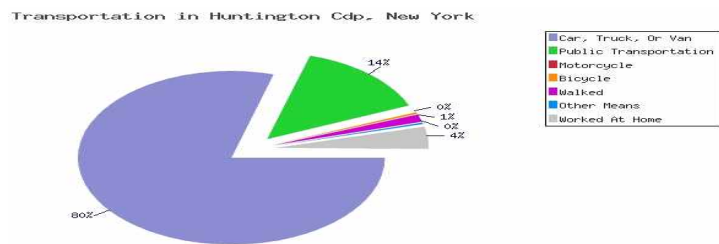
헌팅턴 시티는 서폭 카운티 안에 위치한 마을로 센서스 국에 의하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인구는 2010년 센서스 인구 조사에 의하면 18,406명이었다. 타운의 크기는 7. 5평방 마일(19.5 km²)이고, 인구밀도는 킬로미터당 924. 9명이 거주한다. 환경적 지리적으로는 매우 살기 좋은 동네이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명소들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 좋은 학군을 자랑하고 있다.

<그림 1> 헌팅턴 시티(Huntington Station in Suffolk County)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교육적인 부분과 직업적인 부분인데,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까지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의 분포도 보다도 훨씬 높았고, 전문적인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직업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 남자가 56.2%, 여자가 57.4%로 각각 전체 절반의 수치를 넘었다. 교통 이용은 자가 운전이 80%를 차지하고, 대중교통 이용은 14% 정도이다. 지리적 위치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도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인 환경과는 별도로 버스나 철도(LIRR)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6]

<표 1> 헌팅턴 시티 교육 레벨

<표 2> 헌팅턴 시티에 종사하는 직업

<표 3> 교통 이용

---

[6] http://www.citymelt.com/city/New-York/Huntington+Cdp-NY.html

2) 역사적 배경

(1) 좋은이웃교회의 역사와 사역

좋은이웃교회는 2005년 10월 2일 김철웅 장로 가정에서 10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그 후 2005년 12월 18일 지금의 헌팅톤(Huntington)에 위치한 St. Peter's Church로 옮겨와 그 해 12월 25일 창립예배를 드렸으며 2008년 3월 미국장로교(PCUSA)에 가입하였다. 헌팅톤에 위치한 St. Peter's Church는 예배 및 집회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역공간인 Good Neighbor Village (좋은이웃마을, 약칭 GNV, 주소: 785 Walt Whitman Rd. Melville, NY 11747)는 1부 예배 및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

주일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드리고 있다. 1부는 주일 9:00AM에 Rt. 110 선상에 위치한 Good Neighbor Village에서, 2부는 1:30PM에 헌팅톤에 위치한 좋은이웃교회 본당에서 드리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찬양예배를 8:15PM에 좋은이웃교회 본당에서 주로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순서로 드리고 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만나는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고,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 45분에 Good Shepherd Chapel에서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커피와 다과를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도 갖고 있다.

교육사역으로 Good Children(어린이 사역 공동체)과 Good Friends(청소년 사역 공동체)가 매주일 1:30PM에, 그리고 Good Disciples(젊은이사역공동체)가 매주일 3:30PM에 각 예배실에서 모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금요찬양예배와 같은 시간대에 Room 41에서 Good Children 어린이들이 AWANA 모임을 갖고 있다.

선교사역으로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김종성 선교사, 밀알장애인선교단, 그리고 도시사역을 담당하는 미국 다리놓는사람들(Bridge Builders)을 섬기고 있고, 특별히 선교 지원을 해오던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2008년부터 단기선교를 계획하고 다녀오고 있다.

좋은이웃교회의 양육프로그램으로는 먼저 4주 과정의 새가족 모임이 있다. 이는 교회에 등록한 교우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 4과정으로서 1과정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2과정은 교회와 신앙생활, 3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4과정은 좋은이웃교회 목회 방향의 순서로 진행된다. 특별히 마지막 4과정을 마친 후에는 김기석 담임목사 댁에서 Dinner를 나누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경의 숲과 나무보기 성경공부가 있다. 성경의 숲과 나무보기에서는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과 성경 각 권 주제를 잘 이해하여 말씀 생활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 과정이 있다. 일대일제자양육성경공부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고 적용하여 이를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목포로 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과정들을 마치면 제자훈련으로 들어간다. 1년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자훈련은 성경 요절말씀 외우기, 성경읽기, QT하기, 독서과제물 읽고 나누기, 설교말씀 기록하고 묵상하기, 생활 숙제 등 빠듯한 과제물로 정신없이 한 주일을 보내게 되지만 이 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고, 또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또한 제자훈련을 잘 마치고 나면 사역훈련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는 배우는 자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 직접 제자훈련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역으로서 많은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준비된 여러 과정에 각자에게 해당되는 과정을 잘 선택함으로 배움과 나눔, 깨달음과 성장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다.

다음은 좋은이웃교회 창립예배와 관련된 미주한인신문의 내용이다.[7]

좋은이웃들이 사는 이야기

지난 25일 성탄절에 좋은이웃교회(담임 김기석 목사)에서 창립예배를 드렸다. 이날 창립예배에서는 '좋은 이웃들이 사는 이야기' 란 제목으로 드려졌으며 사회에 김기석 목사, 트리오 알파의 플룻, 클라리넷,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독주에 조성아 자매, 설교에 오영관 목사(뉴욕한인연합교회), 독창에 최성숙 집사, 김철웅 장로의 좋은이웃교회 이야기, 축도에 김진호 목사(뉴저지 예수마을장로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영관 목사는 마태복음16:16~17절 본문으로 '교회란 무엇인가' 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좋은이웃교회 김기석 목사는 "좋은이웃교회는 크리스천 리더쉽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로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을 양육하는 일을 최우선하는 과제로 삼고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2006년부터 롱아일랜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Transfiguration이라는 앙상블 팀과 Music Series를 정기적으로 가질 예정이며 그 밖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특별예배와 다양한 집회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이웃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좋은이웃되기"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러한 캠페인이 뉴욕의 Korean-American을 뛰어넘어 다른 민족과 다른 지역에 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고 창립예배 소감을 밝혔다.

김기석 목사는 한국장로회신학대학 학부와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 신대원을 졸업하였다. 다음은 이날 예배에 소개된 좋은이웃교회 이야기이다.

---

[7] 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cg&id=19283

<그림 2> 좋은이웃교회 담임 김기석 목사

좋은이웃들이 사는 이야기

좋은이웃들이 그리워지는 세상입니다. 추운 겨울날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무거운 삶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무더운 여름 날 시원한 수박을 깨어 먹으며 하루의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각박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의 기쁨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내 이웃의 아픔이 바로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심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삶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은 영향력 있는 크리스챤 리더쉽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과 격려와 축복으로 깨어지고 상처난 많은 관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좋은 이웃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좋은 이웃을 꿈꾸며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며, 늘 생명력 있게 새로와짐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좋은이웃교회입니다. 좋은이웃교회의 좋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아 좋은이웃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감동과 사랑, 회복과 치유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좋은이웃교회 좋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쓰여질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하고 격려합시다.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김기석 목사

좋은이웃교회(11 Ogden Court, Huntington Station, NY 11746)
문의: 516-456-3299

<그림 3> 좋은이웃교회 예배 실황

담임인 김기석 목사는 한국에서는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신대원은 뉴저지에 소재한 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였다. 한국에서 한 때, 찬양사역자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는데, “볼찌어다” 라는 찬양곡으로 유명했다. 그는 그의 장점을 토대로 하여 개척 목회 초반부터 지금까지 목회의 포커스(Pastrol focus)를 찬양과 관련된 집회와 콘서트 등의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실천해 왔다. 그래서인지 좋은이웃교회는 찬양과 음악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 현재 교인은 청장년 약 120여명 수준이고, 학생(15여명), 아동부(약 20여명)까지 교회학교 약 35~40여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좋은이웃교회의 역사는 짧지만, 한 가지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창립 일부터 지금까지 해 마다 교회 창립일인 12월 25일까지 찬양 CD를 제작 완성하여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함께 기쁨과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좋은이웃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자. 복음전도를 위한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총 5장의 음반과 도미니카 선교를 위한 클래식 음반 1장을 제작했다. 연주는 본 교회에 소속된 줄리어드, 맨하탄 음대 출신들의 클래식 연주팀(바이올린, 오보에, 클라리넷, 플룻 등)과 NYU, FTC, 버클리 음대 출신들의 실용음악 연주팀(드럼, 베이스기타, 일렉기타, 피아노 등)이 대거 포진되어 있다. 보컬에 있어서는 김기석 담임목사와 버클리 출신의 김형미 집사(찬양사역자)를 메인싱어로 중심으로 해서 듀엣, 특정부서(예로, 젊은이사역공동체), 그리고 전교인의 합창으로 곡들이 세심하고도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음반 작업의 총괄 지휘는 본 교회 음악감독인 유명 클라리넷 연주자 김하나 집사가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녹음과 엔지니어 부분은 역시 버클리와 NYU에서 공부하신 김형부 집사가, 앨범 표지와 내용에 대한 디자인은 현재 맨하탄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이지혜 자매가 그것을 담당하고 있다.[8]

---

[8]2010년도까지 좋은이웃교회의 상황을 설명한 것임.

좋은이웃교회의 목회 비전과 철학은 철저히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교회론 역시 성경적인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좋은이웃교회의 신학적인 관점은 예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전적인 신학에 대한 관심은 곧 성찬과 설교의 균형잡힌 조화에 있다. 김기석 담임목사는 예배현장에 대한 관심이 많다. 여기에 대해 서울신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조기연 교수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 현장이다. 아무리 예배학적 원리에 입각한 훌륭한 예배 형식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례자가 그 예배를 어떻게 집례하고, 또 회중이 어떠한 태도로 그 예배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배 현장을 무시한 예배학은 존재 가치가 없다.[9]

바쁜 이민사회를 이해하고 경험했기에 담임목사는 현장에 대해서 많이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있어서 상징성도 중요한데 좋은이웃교회는 성찬식을 매달 첫 주에 예배가운데 드리고 있다. 성찬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배신학자 제임스 화이트 교수의 견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제임스 화이트 교수(James F. White)는 성례전을 하나님 사랑의 가시화로 인식하였다.[10]

> 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면, 성만찬과 함께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은 지속된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다른 수단이다. 그러나 두 가지는 하나이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원형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공표하고 실행한다.[11]

---

[9]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6.

[10]James F. White,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trans. 김운용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45.

[11]Ibid., 73.

사실 역사적으로도 보면, 카톨릭은 너무 상징적인 부분인 성례전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이 죽었고, 개신교는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 상징적인 의식이 죽어버린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둘의 균형 잡힌 조화가 오늘날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많은 관심이 있다. 마지막으로, 담임목사의 설교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주일날에는 주제설교를, 금요찬양예배 때에는 강해설교를 하고 있다. 설교는 소수 민족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복음적이면서도 성경적인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설교로 진행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담임목사의 탁월함은 설교의 전달에 있다. 설교학에서도 흔히 설교의 완성을 위해서 설교의 내용과 전달이라는 두 축에 건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배설교학자인 정장복 교수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용이 없는 화려한 전달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며, 내용만 가득하고 전달이 빈약한 설교는 허공을 향한 독백에 불과하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설교는 내용 60%, 전달 40%의 비율을 가지고 100%를 이룩해야 한다." [12] 그런 의미에서 김기석 담임목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이 있다. 하나는 그의 탁월한 맑은 찬양의 목소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적이면서도 간결한 설교, 그리고 탁월한 전달력이다.

(2) 좋은이웃교회의 목회비전과 철학

다음은 김기석 담임목사가 꿈꾸고 있는 목회방향이다.

좋은이웃교회 목회방향[13] Mission Statement

[12]정장복, *설교 전달의 클리닉*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14.

좋은이웃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상가운데 나가는 것이다. 비전은 사람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뜻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 예수님의 핏 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세월이 가고 시대가 변해도 언제나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많은 교회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 많은 모순과 문제 속에 빠져만 가고 있다. 홍수가 났을 때에 사람들은 넘치는 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반면에 먹을 물이 귀하여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교회가 필요한 때이다. 단지 교인 수나 예산의 규모와 같은 수적으로만 교회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느냐로 교회의 규모가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민자의 삶은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다. 다른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인한 긴장감, 자녀들의 교육문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이민자들은 영적인 절망과 아픔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특히 이민교회는 그러한 이민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해 주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Vision

1. 온전한 예배를 통해 날마다의 삶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할 때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많은 시간과 물질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헌신은 온전한 헌신일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여러 가지 헌신의 모습이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헌신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감으로 날마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

2.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 공동체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섬기시기 위

해 오셨듯이 이웃과 사회와 세상을 향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나눔과 섬김의 장소는 작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일 수 있고, 넓게는 이 땅 저편의 각 나라와 족속이 될 수 있다.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이다.

3. 생명력 있게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오래 고인 물은 시간이 가면 썩게 되듯이 교회가 늘 새로워지지 않을 때 교회의 본질은 쉽게 변질된다. 늘 한 자리에서 과거의 죽은 전통에 얽매여 수동적이고 교리적인 모습으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 나갈 수 없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계속 자라남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숨 쉬는 곳이기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 새로움으로 세상의 문화와 삶의 방식까지도 주도하며 바꾸어 나가야 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단지 시대적인 상황 속에 발맞추어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개혁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듯이 교회가 이 시대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개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이다. 절대 진리가 불분명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새롭게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들의 삶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적인 공동체이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며 계속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전문 목회자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를 통해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러한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는 평신도들의 은사와 리더십을 세워줄 수 있도록 훈련과 교육을 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민 사회라는 독특한 상황 속에서 이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 2세들이 Korean-American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는 온 힘을 다해 양육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다.

3) 상황적 배경

(1) 뉴욕(New York)

New York Population Growth: Census 2000 to Census 2010[14]

[13]http://www.gnccny.org/xe/about_vision

[14]http://www.cubitplanning.com/state/41-new-york-census-2010-population

Name	Population Growth
New York	2.1%
United States	9.7%

<표 4> 뉴욕의 인구 증가율

뉴욕의 인구 성장을 보면, 미국 인구주택총조사 센서스 2000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전체 인구 9.7%에 비해 많이 증가한 수치는 아니지만, 2.1%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세계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만큼 뉴욕의 유입 인구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New York 2010 Population by Age

New York 2010 Population Over/Under 18 Years of Age

Over 18
Under 18

Name	Total	18 years of age & over	Under 18 years of age
New York	19,378,102	77.7%	22.3%
United States	308,745,538	76.0%	24.0%

<표 5> 나이에 따른 뉴욕 인구

그리고 뉴욕의 인구 가운데 나이와 관련된 통계를 보면, 18세 미만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22. 3%로 미국 전체의 인구 통계인 24%보다는 좀 적은 편이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미국 전체의 인구 대비 76%보다 1.7%가 높은 77.7%로 뉴욕은 18세 이상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New York Census 2010 Race Data

New York Census 2010 Race Data

Geography	Not Hispanic							Hispanic**
	White	Black*	Indian*	Asian	Islander*	Other*	Two*	
New York	58.3	14.4	0.3	7.3	0.0	0.4	1.7	17.6
United States	63.7	12.2	0.7	4.7	0.2	0.2	1.9	16.3

*The complete Census race descriptions are as follows: White; Black or African American;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sian; Native Hawaiian and Other Pacific Islander; Some other race; and Two or more races.

**Hispanics may be of any race. See 2010 Census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Summary fi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race and ethnicity here: http://www.census.gov/prod/cen2010/doc/pl94-171.pdf. Origin can be viewed as the heritage, nationality group, lineage, or country of birth of the person or the person's parents or ancestors before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People who identify their origin as Hispanic, Latino, or Spanish may be of any race.

<표 6> 뉴욕의 인종 분포도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인종 분포도인데, 가장 많이 뉴욕에서 살고 있는 인종은 2010년도 기준으로 58.3%의 백인이다. 그 뒤를 이어 히스패닉이고(17.6%), 흑인이 14.4%로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인(동양인) 같은 경우도 7.3%로 미국 전체의 수치 4.7%보다는 다소 높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2) 롱아일랜드 서폭 카운티(Suffolk County in Long Island)

Suffolk County Population Growth: Census 2000 to Census 2010[15]

Name	Population Growth
Suffolk County	5.2%
United States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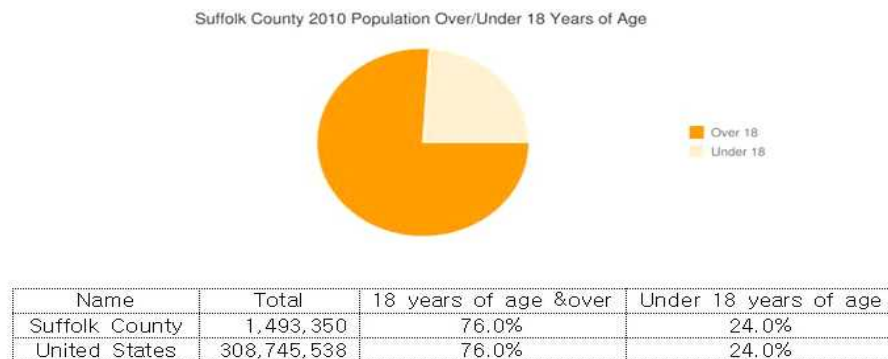
<표 7> 서폭 카운티의 인구 증가율

서폭 카운티(Suffolk County)의 경우 증가율은 2000년도와 2010년도 사이의 기준으로 볼 때, 5.2% 증가했다. 미국 전체 인구증가율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수치이지만, 그래도 롱아일랜드 지역의 특성상 이 수치는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이다.

Suffolk County 2010 Population by Age

Name	Total	18 years of age &over	Under 18 years of age
Suffolk County	1,493,350	76.0%	24.0%
United States	308,745,538	76.0%	24.0%

<표 8> 나이에 따른 서폭 카운티 인구

[15] http://www.cubitplanning.com/county/2723-suffolk-county-census-2010-population

서폭 카운티(Suffolk County)는 18세 미만의 인구가 24%로 미국 전체의 인구분포도와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뉴욕 전체의 인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인데, 이유가 있다면, 학군에 따른 유동인구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임을 발견할 수 있다. 흥미로운 부분은 18세 이상의 인구도 미국 전체적 통계와 똑같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Suffolk County Census 2010 Race Data

Suffolk County Census 2010 Race Data

Geography	Not Hispanic							Hispanic**
	White	Black*	Indian*	Asian	Islander*	Other*	Two*	
Suffolk County	71.6	6.8	0.2	3.4	0.0	0.2	1.3	16.5
United States	63.7	12.2	0.7	4.7	0.2	0.2	1.9	16.3

*The complete Census race descriptions are as follows: White; Black or African American;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sian; Native Hawaiian and Other Pacific Islander; Some other race; and Two or more races.

**Hispanics may be of any race. See 2010 Census Redistricting Data (Public Law 94-171) Summary file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race and ethnicity here: http://www.census.gov/prod/cen2010/doc/pl94-171.pdf Origin can be viewed as the heritage, nationality group, lineage, or country of birth of the person or the person's parents or ancestors before their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People who identify their origin as Hispanic, Latino, or Spanish may be of any race.

<표 9> 서폭 카운티 인종 분포도

서폭 카운티(Suffolk County)의 인종분포도를 보면, 백인이 절대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 무려 71.6%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폭 카운티의 생활수준을 반영해 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다. 그 뒤를 이어 히스패닉도 16.5%인데 직업상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음을 보여준다. 주목할 부분은 아시아인(동양인)인데, 3.4%로 뉴욕의 전체 수치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학군과 환경

적인 요인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3) 헌팅턴 시티(Huntington Station in Suffolk County)

Huntington Station CDP Population Growth: Census 2000 to Census 201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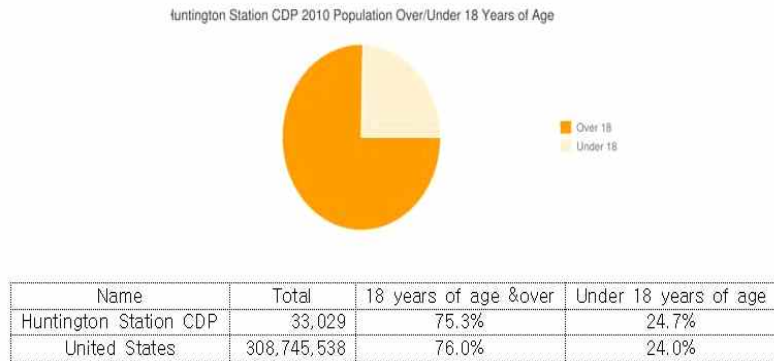
Name	Population Growth
Huntington Station CDP	10.4%
United States	9.7%

<표 10> 헌팅턴 시티 인구 증가율

앞에서 살펴 본 바대로 비교해 보면, 헌팅턴 스테이션 CDP(Huntington Station CDP)의 밀구 밀도는 미국의 9.7%, 뉴욕의 2.1%, 서폭 카운티의 5.2%보다 높은 10.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헌팅턴 스테이션 CDP가 타지역보다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6]http://www.cubitplanning.com/city/24905-huntington-station-cdp-census-2010-popul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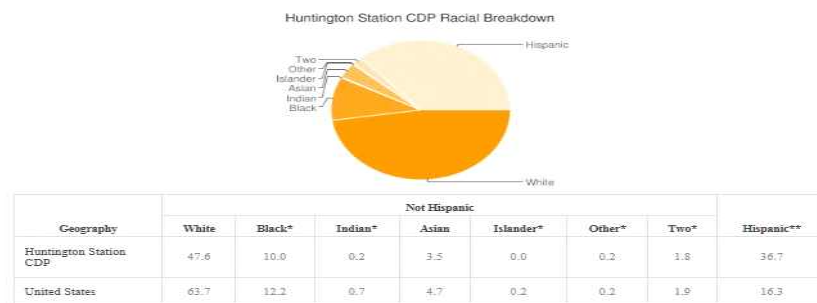
Huntington Station CDP 2010 Population by Age

Name	Total	18 years of age &over	Under 18 years of age
Huntington Station CDP	33,029	75.3%	24.7%
United States	308,745,538	76.0%	24.0%

<표 11> 나이에 따른 헌팅턴 시티 인구

헌팅턴 스테이션 CDP 18세 미만의 사람들은 미국의 24.1%, 뉴욕의 22.3% 보다는 서폭 카운티의 24%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의 24.7%를 보이고 있다. 18세 이상의 사람들은 75.3%로 미국 전체 76%, 뉴욕 77.7%, 서폭 카운티 76%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전반적인 통계와는 큰 차이가 없지만, 18세 이하의 학생들이 조금 더 많다는 사실은 학군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Huntington Station CDP Census 2010 Race Data

Huntington Station CDP Census 2010 Race Data

Geography	Not Hispanic							Hispanic**
	White	Black*	Indian*	Asian	Islander*	Other*	Two*	
Huntington Station CDP	47.6	10.0	0.2	3.5	0.0	0.2	1.8	36.7
United States	63.7	12.2	0.7	4.7	0.2	0.2	1.9	16.3

<표 12> 헌팅턴 시티 인종 분포도

위의 통계를 보면, 헌팅턴 스테이션 CDP의 경우 백인은 47.6%로 미국 전체의 백인 63.7%, 뉴욕 58.3%, 서폭 카운티 71.6%보다 훨씬 적은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히스패닉의 인구 밀도는 36.7%로 미국 전체의 히스패닉 인구의 16.3%, 뉴욕의 17.6%, 서폭 카운티의 16.3%보다도 두 배가 넘는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력하고 연관이 있다. 흑인의 인구는 10%로 미국 전체의 12.2%, 뉴욕의 14.4%보다는 다소 낮은 통계를 보이지만, 서폭 카운티의 6.8%보다는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 외 아시아인은 3.5%로 미국 전체의 4.7%, 뉴욕 7.3% 보다는 낮지만, 서폭 카운티의 3.4%와는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다.

(4) 한인교회 상황

매년 세계한인교회주소록을 발간하고 있는 미주크리스찬신문의 최근 보도에 의하면 2011년 기준 미주 한인교회 전체수가 4,194개로 집계됐다고 보도하였다.[17]

이 신문은 2011년 11월 현재 세계한인교회주소록 데이터 집계 결과 가장 교세가 큰 지역은 캘리포니아로 1,280교회, 2위는 452개인 뉴욕, 3위는 246개인 뉴저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3위였던 버지니아는 5위로 밀렸다. 4위는 일리노이주(212개), 5위는 버지니아(207개), 6위는 워싱턴주(204개), 7위 조지아(197개), 8위는 텍사스(192개)로 각각 뒤를 이었다.

미주 전체에서는 작년에 비해 183개 교회가 늘어났으며 새롭게 등록한 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보다 더 많았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롭게 등록한 교회는 166교회(폐쇄 82개), 뉴욕은 23교회(폐쇄 13교회), 뉴저지 6교회(폐쇄 2교회), 일리노이 12교회,

---

[17] 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id=190351&code=cg/November 17, 2011.

버지니아 5교회, 워싱턴 9교회(폐쇄 2교회) 등이다.

반면 폐쇄된 교회가 더 많은 지역도 있었다. 신규교회가 없었던 아칸소는 3개 교회가 폐쇄됐고, 메릴랜드는 11교회가 없어졌다. 인디아나와 메사추세츠 등도 신규 교회보다 폐쇄된 교회가 많았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한인교회들의 소속교단 분석 결과, 장로교(개혁교단 포함)가 1,771교회로 약 47%를 차지했으며 2위 침례교는 694교회로 19%, 3위 감리교는 511교회로 14%,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한 순복음 계열은 288교회로 8%, 나사렛 성결교단이 187교회로 5%의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 독립교단 195개, 초교파 75개, 또 교단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무소속도 다수 있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장로교 중에서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가 463교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PCUSA가 334교회, 해외한인장로회(KPCA)가 262개로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미국교단인 PCA 180교회, 개혁주의 교단인 CRC와 RCA도 각각 89개 교회와 41개 교회로 나타났다.

미주크리스찬신문은 이번 통계 결과 미국 내 50개 주에 모두 한인교회가 존재하며 워싱턴DC에 2개 교회, 괌에 9교회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75개국의 한인교회는 1,295개로 전년도에 비해 38개 교회가 추가됐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위의 집계대로라면 뉴욕, 뉴저지 지역 한인교회는 현재 약 700개가 존재하고 있다. 특별히 롱아일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는 롱아일랜드연합장로교회, 아름다운교회, 성서교회, 코맥교회, 좋은이웃교회 등이 지역 한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지역 한인들 상당수는 상점, 세탁소, 네일가게 등 상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2. 연구 목적과 목표

1) 목적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In Text's Circumstance)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In Context's Circumstance)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가?" 하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또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잘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 특별히
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컸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18] 즉 설교는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 설교에 의해서 형성되고, 풍성함을 누린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있게 인도했던 '설교 영광의 시대' 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설교 암흑의 시대' 가 있었다. 설교 영광의 시대에는 설교와 함께 교회는 말씀의 풍요를 누렸다. 그 시대의 말씀은 힘이 있었으며, 교회는 영적 활기로 충만해 있었다.[19]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를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보다 깊은 설교에 대한 이해와 설교자에 대한 이해, 청중에 대한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소통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자 한다.

2) 목표

[18]설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 세우시는데 가장 중심적인 수단이 되어 왔다. 설교가 강력하게 행해지던 시대는 영적으로 충만했고 교회도 건강했다. 반면 설교가 무기력하게 진행되던 시대에 교회는 쇠퇴해갔다.

[19]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설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41.

2005년 한미준 한국갤럽리서치에서 자신의 신앙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65.5%가 목사님의 설교로 나타났다.[20]

(결과)	(%)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	65.5
가족	10.9
계(N=1,000)	100.0

<표 13> 자신의 신앙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

개신교인이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65.5%가 ‘교회예배 / 목사님 설교’ 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가족’, ‘구역 / 소그룹 / 양육(성경공부)’, ‘신앙선배 / 동료’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개인의 신앙 성장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 로부터 신앙 성장을 꾀하는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앙 성장을 위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0]한미준 · 한국갤럽,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189~190.

	사례수	교회예배/목사님 설교	가족	구역/소그룹/양육	신앙선배/동료	QT	신앙서적	기독교매체	기타	없음
전체	1000	65.5	10.9	7.4	6.4	4.5	3.5	0.7	0.6	0.5
18-29세	323	54.2	**12.4**	**11.1**	**10.8**	6.5	2.2	0.6	1.5	0.6
30-39세	277	65.3	**13.4**	5.1	5.4	5.1	4.3	0.7	0.4	0.4
40-49세	184	67.9	9.2	9.2	3.3	2.7	4.9	1.6	-	1.1
50세 이상	216	**80.6**	6.9	3.2	3.7	2.3	3.2	-	-	-

<표 14> 자신의 신앙성장에 가장 크게 도움을 받는 것(세부사항)

위와 같은 통계를 살펴볼 때도 기독교에서 말씀의 사역이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설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현재에도 말씀하시며, 미래에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문제는 오늘의 설교가 현대의 청중들에게 소통(커뮤니케이션)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의 중심부에는 설교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청중들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통(커뮤니케이션)이란 송신자와 수신자의 공존 속에서 출발되며, 또 공동의 노력 속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해결할 수 있을까?

본 연구자는 설교와 설교자, 청중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뉴욕좋은이웃교회의 청중들에게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소통을 위한 좋은 방향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설교에 대한 이해

21세기를 맞이한 현대 사회는 속도의 개념이 매우 빨라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리의 말씀인 설교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크게 설교의 정의와 신학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1. 설교의 정의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프레드 크레독(Fred B. Craddock) 교수는 그의 책 "*Preaching*" 에서 설교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이며, 청중이 하나님의 계시를 현재적 사건으로 경험하게 하며, 자기 자신들에게 적절한 말씀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21]

위의 정의에 의하면 설교란 '계속되는 하나님의 계시의 현재화' 라고 이해할 수 있다.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 교수는 설교를 '회중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22]이라고 정의한다.

영국의 대표적인 설교가 존 스토트(John Stott)는 설교를 가리켜 "다리 놓기(Bridge-building)" 라고 하였다. 즉 참된 설교는 성경의 세계(Ancient World)와 오늘의 세계(Modern World)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는 것이다.[23]

---

[21]Fred B.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8), 51.

[22]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21.

[23]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신학자인 정장복 교수는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설교란 택함 받은 설교자가 당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회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고, 해석하고, 이 진리를 회중의 삶에 적용함이다.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감화하심(under dynamic of Holy Spirit)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24]

특별히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는 설교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구성요소로서 아홉 가지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첫째는 '계시 혹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이미 일어났고 또 장차 도래할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과 재림을 선포해야 할 과제로서 '계시적합성.'

둘째는 '설교의 자리로서의 교회,' 설교의 장소는 임의의 장소가 아닌, 세례와 성만찬과 성서에 의해 그리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진 것으로 한계 지어진 장소로서의 '교회성.'

셋째는 '하나님의 명령,' 설교는 주님의 명령으로부터 부여받은 위탁을 반복하는 '신앙고백적 성격.'

넷째는 '설교자의 특별한 직무,' 설교는 교회에서의 봉사에 의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자격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 의한 '설교자의 직무 적합성.'

다섯째는 '설교가 하나의 시도라는 생각,' 설교를 죄인 된 인간에 의해 행해지는 행위로 그리고 설교의 율법과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 가운데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설교의 거룩성.'

여섯째는 '성서와의 관계,' 설교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성서해석의 의무를 지녀야 하는 '성서성.'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137~138. 참조.

[24]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70.

일곱째는 '자기 자신과의 말의 개념,' 설교는 오직 인격적인 회개와 감사에 의해서 하는 설교자의 자유로운 의무를 지녀야 하는 '독창성.'

여덟째는 '회중의 개념,' 설교는 결코 텅 빈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현재의 인간들을 목표로 선포하는 '회중 적합성.'

아홉째는 '출발점이며 위대한 중심 그리고 초석으로서의 성령,' 설교는 겸손과 진지함 가운데 행해져야 하며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설교를 자신의 인간 언어라고 고백해야 함을 인식하는 자의 기도로서 행해지는 '설교의 영성' 이라고 말했다.[25]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2009년도에 목회와 신학 출판부에서 설교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바가 있다.

<차트 1> 설교에 대한 목회자들의 생각

[25]Kar. Barth, *칼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101~106. 참조.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5명 중 3명(68.7%)가량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 · 선포하는 것'[26]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설교의 신학

설교학자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그의 *'The Practice of Preaching'* 이란 책에서 "설교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Self-giving)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의 행위" 라고 보았다.[27]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과 성례를 통해 계속적으로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28]

설교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요, 구원의 방편이요, 교제의 방편이라는 말은 요약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행위라는 것이다. 인간 설교자는 하나의 작은 도구일 뿐 그 이면에서 말씀하시는 참된 설교자는 하나님이다.[29]

그런 의미에서 설교에 있어서 신학이 차지하는 위치는 매우 크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설교는 오류가 많은 인간의 일이기에 신학이 필요하다. …… 신학은 '설교가 진리와 순수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설교를 섬기고 있다. 신학은 설교의 케리그마가 정통성이 있는지를 검사한다.[30]

---

[26]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29.

[27]Paul Scott Wilson, *The Practice of Preaching,* 22.

[28]한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21.

[29]Ibid., 22.

[30]Karl Barth, *Church Dogmatics,* Vol. 1/Ⅰ, trans. G. W. Bromley (Edinburgh: T & T Clark, 1975), 82.

위의 견해대로라면 바르트의 주장은 상당히 일리가 있다. 신학의 책임은 교회의 복음선포 사역을 성찰하고 비판적으로 논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신학은 설교의 케리그마(Kerygma)에 있어서 진리와 순수함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즉 신학은 교회의 설교가 성서의 증언에 신실한가를 검토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신학적인 성찰이 없이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식으로 무비판적인 예배와 설교가 난무한다면 비본질적인 요소로 가득할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들도 양성하게 될 것이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하인리히 오트(Heinrich Ott)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신학은 설교의 양심이다. 그리고 설교는 신학의 마음과 영혼이다.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하여 설교자는 신학적인 성찰을 하여야 한다. 설교자 스스로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지 않고, 그 일을 신학자에게만 맡기는 설교자는 마음과 양심을 가지지 못한 나쁜 설교자이다. 또한 신학자로서 교회가 실제적으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 선포의 일을 설교자에게만 맡기는 신학자는 교회의 나쁜 교사이다.[31]

오트 교수의 표현대로라면, 설교의 양심으로서의 신학은 설교자로 하여금 나의 설교가 성서의 말씀에 신실한 것인가를 검토케 한다. 신학은 말씀의 사역자인 나 자신이 복음을 진실하게 선포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의견이나 세상의 학문을 대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볼 수 있게끔 한다.

더 나아가 신학은 설교자로 하여금 본문을 문맥과 장(Chapter)과 본문이 속한 책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본문을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학적 안목을 가져다준다. 또한 신학은 설교자로 하여금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치 않은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해준다.

---

[31]Heinrich Ott, *Theology and Pr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31.

3. 설교의 목적

목적에 따라 설교를 분류하면 첫째 선포적인 설교(Kerygmatic Preaching)이다 흔히 전도설교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강조하고 오늘의 사건으로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설교이다. 둘째, 교훈적인 설교(Didactic Preaching)로서 딱딱한 신학적인 풀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교리의 특수한 해석, 어려운 본문의 차분한 주석, 그리스도인의 엄격한 훈련과 생활원칙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셋째 치유적인 설교(Therapeutic Preaching)이다.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질환의 소유자에 가까운 현대 교인들에게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목양설교이다. 넷째 예언적인 설교(Social-Prophetic Preaching)이다. 그 시대의 부정부패와 여러 문제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고 그 길을 바르게 걷도록 외치는 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다.

1) 선포적인 설교(Kerygmatic Preaching)

선포적인 설교는 전도 설교(Evangelistic Preaching)라고도 부르는데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예수 그리스도)을 외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생애와 교훈, 수난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선포한다. 예수가 누구이며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 회중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이다.[32]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볼 주제는 ‘케리그마(Kerygma)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케리그마는 헬라 세계에서 선포의 행위 및 내용을 모두 가리키며, “소식, 선포, 포고령, 고지” 등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신약에서는 복음의 선포는 그

---

[32]http://blog.daum.net/esjk8030/7379356/09.23.2010.

자체가 구원의 능력을 가지며(고전 1:21), 복음의 선포 속에는 예수의 부활과 예수 그 자체가 포함되어 있고(고전 15:14, 롬 16:25), 복음 전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며 복음전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사도에게 위탁되었다.[33]

다드(C. H. Dodd)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에서 "전도" 란 희랍어 성경인 케리그마를 번역한 말로서 전도자의 행동보다는 설교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특히, 비기독교적인 세계에 공적으로 그리스도교를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케리그마의 동사 케리세인(Keryssein)은 선포한다는 뜻이며, '선포한다는 것' 은 이미 '복음을 전파한다.' 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Didache)과 구분시켰다.[34] 사실, 교훈(Didache)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케리그마는 선포의 행위와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복음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드(C. H. Dodd)는 선포의 행위 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는 신약을 연구하면서 신약성서 안에서 다양한 복음의 원형인 케리그마가 존재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다양성과 더불어 그들은 하나의 복음에 대한 선포 속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35] 결국 다드(C. H. Dodd)가 강조하는 설교의 내용도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케리그마의 설교 내용은 '복음의 본질' 과 '하나님의 구속사역' 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속적인 사역으로서 복음의 본질 된 예

---

[33]게르하르트 킷텔 and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신학성서 신학사전,* 제프리W and 브라밀리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8), 496~497. 참조.

[34]C. H. Dodd and A. M. Hunter,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채 위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91), 5~6.

[35]James Dunn,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김득중 외 역 (서울: 솔로몬, 2000), 33.

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사역, 영광, 심판, 재림을 말하는 것이다. 다드(C. H. Dodd)는 복음의 원형을 사도들의 설교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한마디로 "하나님은 찾아 오셨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고 말한다. 그는 케리그마의 원형은 사도들의 설교에 있으며, 완성된 역사적 사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영광, 재림을 의미하며 회개와 용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36] 결론적으로 선포적인 설교는 내용에 있어 과제를 가지고 있다. 즉, 신약성서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드(C. H. Dodd)가 언급한 것처럼 현대의 설교는 초대 기독교의 케리그마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 를 선포하여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심판 등을 포함해야 한다. 현대 교회가 사는 길이 설교가 살아야 하고, 설교가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2) 교훈적인 설교(Didactic Preaching)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의 '목사와 교사' 는 두 가지의 다른 직책이 아니라 같은 직책을 의미한다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즉, 목사가 교사요, 교사가 목사라는 것이다. 설교자를 교사로 보는 견해는 강해설교를 가장 성경적인 설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한 강해설교자인 존 메카터, 척 스미스, 척 스윈돌 목사와 같은 분들은 그들의 최우선적인 임무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회중에게 가르치는 교사로 보고 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자신을 목사로만 생각지 않고, 자신을 "목사-교사" 라고 생각하

[36]C. H. Dodd and A. M. Hunter,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40~42. 참조.

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학교이며, 하나님은 회중을 가르치기 위하여 목사를 임명했다고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은 같은 내용으로 사용되는 단어였다.[37]

그레디 데이비스(Grady Davis)도 그의 명저 *"설교의 디자인"* 에서 다드의 영향을 받아 설교의 기능적 행태를 케리그마적 선포(Proclamation)와 디다케(Teaching)와 테라피(Therapy, 치유)로 구분하고 있다.[38]

사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을 강해함으로 회중들을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후세대들이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는 그들의 진정한 요구(Needs)를 채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서도 얻을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고 교회성장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즉, 주류교단의 설교자들이 신학적인, 성서적인 망각증세(Amnesia)에 걸려 회중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 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39]

교회성장 학자인 라일리 쉘러(Lyle E. Schaller)에 의하면 포스트모던 시대와 종교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설교는 교육적 설교라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미국의 대형교회의 담임목회자들은 대부분 교육적 설교를 하는데, 교육적 설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그들의 설교 시간이 35~70분 가량 된다고 한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회중의 관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평균 50분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매우 능숙하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40]

---

[37]Ronald J. Allen, *The Teaching Sermon* (Nashville: Abingdon, 1955), 16.

[38]H. Grady Davis,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58), 97~138. 참조.

[39]Ronald J. Allen, *The Teaching Sermon,* 18.

[40]Lyle E. Schaller, *21 Bridges to the 21st Century* (Nashville: Abingdon, 1994), 85.

미국의 설교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크레독 교수와 하버드 대학 부속교회의 흑인목사인 피터 곰즈도 교육적 요소가 많은 설교를 하기에 그의 설교시간도 평균 35~40분간 소요되고 있다. 설교자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Herald)로 보는 견해에서는 본문을 중요시하였으나 상황을 도외시하였다. 반면에 설교자를 목양자로 보는 견해에서는 본문보다 상황을 더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교육적 설교인 강해설교자들은 무엇보다도 본문을 중요시하고, 본문이 회중들의 삶에 적용되어야만 하기에 상황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정장복 교수는 교훈적인 설교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참고사항[41] 을 제시하였다.

첫째, 교훈적 설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설교자가 한 설교 속에서 여러 가지의 교리를 모아서 내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언제나 준비로 가득한 현명한 설교자는 한 주제만 가지고도 새로운 내용으로 몇 번이고 설교를 감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회개에 대한 설교라면 회개란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에는 회개를 해야 할 동기와 방법과 결과 그리고 의무 방법 등을 가지고도 수편의 설교를 더 계속하게 된다.

둘째, 교훈적인 설교는 언제나 필요성의 강화와 흥미의 유발이 있어야 한다. 교리 설교라고도 지칭되는 본 설교가 흔히 실패하기 쉬운 것은 듣는 회중에게 흥미를 주지 못하는 딱딱한 설교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예화와 함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흥미를 돋우어 가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어떤 설교자들은 회중이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책임이며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나 현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일차적인 책임은 전달자에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이 설교에서는 근본적으로 설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41]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143~4. 참조.

밝혀 준다. 그리고 그 정의는 설교자의 시각이나 지식에 근거하기보다는 본문을 따라 풀어 주면서 석의와 주해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실례를 들어가면서 전개해야 한다.

넷째, 교리 또는 신학적인 주제들은 흔히 막연한 추상적인 해석에 머무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 현장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실현성 있는 진리의 보편성을 심어 주어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진리로서 밝혀 주어야 한다.

3) 치유적인 설교(Therapeutic Preaching)

스위스가 낳은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Carl G. Jung)은 그의 *"묻혀 있는 자신"* 이라는 책에서 "불안한 소망과 함께 미래를 보는 인간들의 눈이 육체적, 정치적,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된 오늘 속에 집결되어 있다." [42]고 말하였다. 사실 시대가 흐를수록 현대인들은 병들어가고 있다. 특별히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오늘의 시대는 그야말로 속도의 개념(Conception of speed)이 빨라진 시대이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회중 역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상처 입지 않은 심령이 드물 정도로 모두가 번민과 권태와 좌절과 불안 등등의 상처를 입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교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설교가 목양 설교라고도 불리는 이 치유 설교이다.

자신을 목양자로 이해하는 설교자는 주로 목양적(Pastoral), 상황적(Life-situation), 치유적(Therapeutic), 문제해결 위주(Problem-solving), 또는 제사장적인(Priestly) 설교를 하게 된다. 목양적 설교의 목적은 회중들의 문제를 해결하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여 회중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가져오고자 하는 데 있

[42]Carl G. Jung, *The Undiscovered Self,* trans. R. F. Hull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8), 11.

다. 그러기 때문에 목양적 설교에서는 회중이 놓여 있는 상황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목양적 설교는 상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은 1928년 *"Harper's Magazine"* 에 유명한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글에서 포스딕은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 모든 설교는 문제해결을 설교의 중요과제로 삼아야 한다. 즉, 매우 생생하고 중요한 문제, 마음속에 있는 난제들, 무거운 양심, 혼란된 삶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43]

포스딕은 후에 기록한 그의 자서전에서도 그의 설교철학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고 있다.

> 설교는 회중들의 진정한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설교의 전문분야는 바로 사람들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설교는 에세이나 강연과 다른 것이다. 모든 설교는 회중들의 마음에 있는 난제들, 양심의 무거운 짐, 어지러운 삶의 문제 등에 건설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을 주요과제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의 어려움에 빛을 비추어 주고, 그 어려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교라면 어떠한 설교도 결코 헛된 것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 인식 안에서 앞으로 오늘의 설교자들은 치유 설교, 즉 삶의 정황 설교 또는 목양 설교를 바르게 시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43]Harry Emerson Fosdick, *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 (Harper's Magazine, July 1928), 134.

[44]Harry Emerson Fosdick, *The Living of These Days* (N.Y: Harper & Row, 1956), 94.

4) 예언적인 설교(Social-Prophetic Preaching)

양낙홍 교수는 그의 저서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한국 신학교육의 개혁"* 이라는 책에서 목사의 위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

> 현대 한국 사회에서 목사의 위치는 어디인가? 목사가 사회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목사들의 설교가 민족과 역사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목사는 교회 내에서나 힘있는 사람으로 통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 목사의 존재란 미미하다. 아무도 그들의 말이나 설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며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목사는 전통적으로 '골목 대장' 에 불과한 뿐이다.[45]

하나님은 교회에 선지자적 사명을 주셨다. 설교자들은 공동체의 '파수꾼' 으로서 한 사회의 도덕적 타락과 윤리적 부패의 조짐을 누구보다도 빠르고 예민하게 감지해서, 그것이 필연적으로 초래할 위험-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경고해야 한다. 부패한 사회를 향해 죄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을 피하라고 권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민족의 파수군으로서의 사명을 가진다고 말씀하신다.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의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 당

[45]양낙홍,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한국 신학교의 개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16.

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 33:1~7, 개역개정번역)

이 말씀에 의하면 첫째, 선지자들, 즉 말씀의 설교자들은 파수꾼들이다. 파수꾼의 두 가지 핵심적 사명은 '관찰' 과 '경고' 이다.

둘째, 설교자들은 민족 전체를 위한 파수꾼들이다. 설교자는 단지 어느 한 회중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대로 그들의 책임은 민족 공동체 전체가지 확산된다. 오늘날 한국의 설교자들은 너무 자기 교회에만 집착해 있다는 인상을 준다. 모든 관심이 가지 목회, 자기 교회 성장에만 쏠려 있다. 물론 목사가 맡은 양떼들에게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모든 관심이 배타적으로 자기 교회에만 집중되면 개교회주의가 된다. 보편 교회에 대한 인식도 책임감도 없는 극단적 개교회주의는 성경적이지도 바람직한 태도도 아니다.

셋째, 설교자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고해야 한다. 에스겔이나 이사야, 예레미야 등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설교자가 선지자로서 사회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경의 진리에 능통해야 함은 물론, 사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과 국가적 형편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예언적인 설교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성경은 개인의 죄악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악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은 개인의 내면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선지자들은 개인적 죄뿐 아니라 사회적 죄도 지적했다. 어쩌면 21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역시 팽배한 시대적 현대사회문화 흐름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선포되어져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4. 설교 형태의 변천사 이해

1) 예수님의 설교

기독교는 태동의 때로부터 '말씀의 종교'로 시작되었다.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Preaching) 것이었다(막 1:15). 회당 예배의 형식을 빌려 행해진 예수님의 설교는 철저하게 구약의 본문을 해설하는 주해적 설교였다(눅 4:16~22, 참조.). 또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자주 이야기 형식의 비유를 사용함으로 청중 스스로 진리를 깨우치도록 유도하는 귀납적 방법을 구사하셨다.[46]

2) 사도들의 설교

사도들의 초기 설교사역은 주로 가정이나 회당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설교는 사적 대화와 유사한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형태의 담화였다. 사도 바울은 자연이나, 시, 예술, 전쟁, 체육 등과 같은 일상적 삶에서 소재를 끌어와 논증하기를 즐겨했다. 사도시대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자신들이 경험한 케리그마(Kerygma)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도래하게 되었고, 교회 안에 임한 성령이 그 현재적 축복의 증표라는 케리그마는 사실상 신약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핵심이다. 이러한 구속사의 사건을 설교의 주제로 삼은 전통이야말로 사도들이 기독교 설교전통에 이바지한 최대의 공헌이라고 할 것이다.[47]

---

[46]한진환, *설교의 영광*, 64~5. 참조.

[47]Ibid., 65~6. 참조.

3) 교부 시대의 설교

기원 후 몇 세기 동안 교회의 언어는 헬라어였다. 서방교회에서 처음 얼마동안은 헬라어로 설교가 이루어졌다. 기독교의 설교는 그 당시 마지막 전성기를 구가하던 헬라 수사학(Rhetoric)의 영향권에 놓여 있었다. 고대인은 수사학을 최대의 예술의 형태로 생각했으며, 고대 후기의 교육은 주로 수사학교에 의존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교부들은 수사학과 웅변술의 훈련을 잘 받았으며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과 같이 그 방면의 교사들도 있었다. 그 시대의 수사학의 스타일은 복음의 단순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화려하기까지 했다. 어떤 설교자들은 진리보다는 웅변이나, 표현, 혹은 문장 등에 더 신경을 썼고, 멋있는 말이나 비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를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향도 있었다. 설교자의 말에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박수갈채를 보내거나 환호하는 일이 흔히 있었으며, 손수건을 흔들거나 옷을 공중에 던지기도 했다.[48]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교부시대는 설교의 이론과 기술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한 시대였다.

4) 중세 시대의 설교

5세기에 이르면 교회 내에서의 설교사역이 현저히 감퇴하게 된다. 그 원인에 대해서 홀란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참회와 고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금욕주의가 대두됨에 따라 말씀 선포의 중요성이 반감되게 되었다. 둘째, 예배가 의식적인 면에 치중하게 됨으로 케리그마의 선포로서의 설교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셋

[48]Ibid., 67. 참조.

째, 기독교가 국교가 됨으로 모든 사람이 명목상으로는 다 신자가 되었다. 따라서 교회는 회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설교사역보다는 교회의 의식과 법규를 더 강조하게 되었다. 넷째, 교회가 권력과 금력에 맛을 들여 세속화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었다.[49]

중세로 진입하면서 점차 미사는 의식 위주가 되었고,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해졌다. 설교는 미사의 필수적 순서에서 점차 밀려나 특별 참회일이나 사순절과 같은 금식 기간, 축제일 등에만 행해지게 되었다. 사제들은 교육적 수준이 낮아서 성경 해설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으므로 설교는 주로 감독들의 직무가 되었는데, 감독들도 교부들의 설교나 교황 그레고리 같은 사람들의 설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중세설교자들은 예화를 과도하게 사용했다. 설교자들을 위한 갖가지 예화집이 범람했는데 그것들은 이야기나 기적 사화, 일화, 우화, 여행담, 모험담 등을 총망라하고 있었다.[50]

5) 종교개혁 시대의 설교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큰 공로는 말씀을 회복한 것이었다. 그들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이라는 구호와도 같이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다.[51]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 츠빙글리, 존 칼빈같은 개혁자들은 언어와 주석, 성경 해석에 탁월한 사람들이었다.[52]

---

[49]Ibid., 70.

[50]Ibid., 72.

[51]Ibid., 73.

[52]Ibid., 73~4. 참조.

6) 청교도 시대의 설교

17세기경 미국의 청교도 사회에서 목사는 지역사회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영적 양식도 공급해 주었지만 시민 생활 전반에 대해서 조언해 주는 훌륭한 상담자이기도 했다. 청교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한 강해가 특징이었다.[53] 때로는 세 시간씩이나 걸리는 긴 설교였고 신학강의와 같은 냄새를 풍길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치중했다.

7) 18세기의 설교

18세기의 설교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조지 휫필드 두 사람으로 대변된다고 하겠다. 웨슬리나 휫필드의 설교는 개혁파 교회의 설교와 같이 주석적이지는 않다. 대개는 짧은 본문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설교했는데 화목, 죄, 은총 등과 같은 성경의 중심메시지를 생동적인 말씀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했다.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칼빈주의의 기본 교리,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힘있게 선포함으로 대각성운동의 발단을 장식했다.[54]

8) 19세기의 설교

대표적인 인물로 찰스 스펄전은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설교 본문과 주제를 가져왔지만 특히 죄의 심각성과 은총의 부요함을 강조함으로 바울

[53]D. M. Lloyd-Jones,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375~8. 참조.

[54]한진환, *설교의 영광*, 75~6. 참조.

주의적인 복음노선에 섰다. 또한 미국 뉴욕에 소재한 플리머스 회중교회의 헨리 비처는 아웃라인도 없는 즉흥 설교를 자주했다. 노예제도나, 이민, 세금, 여성의 위치. 등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쟁점을 포함한 시사문제들을 자주 설교함으로 당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보스톤에 소재한 트리니티 감독교회의 필립스 브룩스 또한 당대의 명 설교자였다. 그의 주의 깊은 성경 연구와 열정적 전달은 그로 하여금 해박하고 감동적인 설교자로 명성을 얻게 했다.[55]

9) 20세기의 설교

대표적인 설교자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설교란 오직 성경 각 권을 연속해서 강해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설교자였다. 그는 본문의 세밀한 주석과 신학적 해석에 집중했으며 본문의 의미를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적용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였다. 그는 설교를 전도설교, 교육설교, 강해설교 등으로 나누었으나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설교는 강해적이야 함을 강조했다.[56]

존 스토트(John Stott)는 강해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문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즉석 주석(Running Commentary)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에게 강해란 본문의 “닫힌 것을 열어 보여주고, 모호한 것을 분명히 해주며, 잠긴 것을 풀어 주고, 감추어진 것을 풀어헤쳐 주는 것” 이었다.[57]

5. 설교의 기술(전달력)

---

[55]Ibid., 76~7. 참조.

[56]D. Marti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63, 75~6. 참조.

[57]John Stott, *Between Two Worlds* (Grand Rapids: Eerdmans, 1982), 1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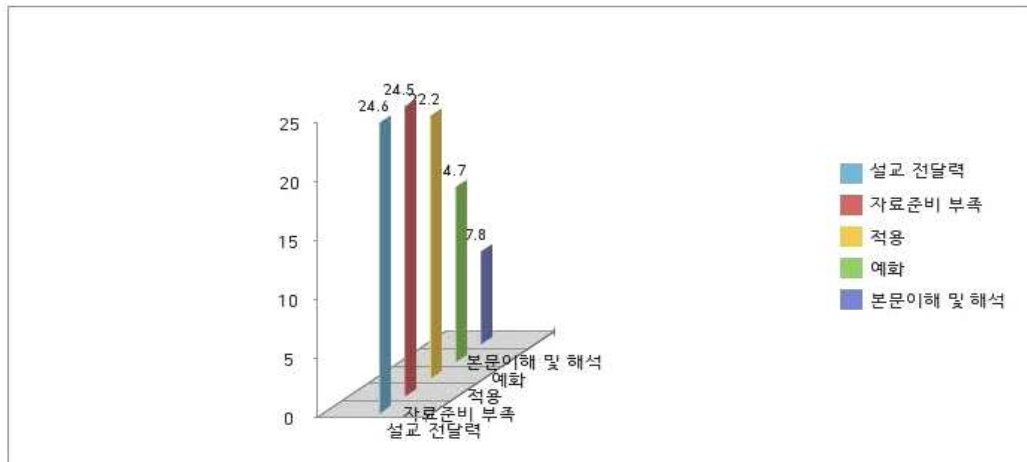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본문을 묵상하고 주석 책을 참고하여 설교의 원고를 집필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정작 준비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회중에게 전달하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는 메시지의 내용만 좋으면 설교의 전달도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교는 문자나 인쇄물을 통하여 청중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설교자의 언어를 통하여 일어나는 사건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완성된 원고는 설교의 준비물이지 설교 자체는 아니다. 이는 원고의 내용이 설교자를 통해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비로소 설교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전달되지 않은 메시지는 메시지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58]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의 설교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조사에 의하면 목회자들이 설교 사역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전달력(2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준비 부족(24.5%), 적용(22.2%), 예화(14.7%), 본문 이해 및 해석(7.8%)이 그 뒤를 이었다. 설교 전달력에 대한 부족한 느낌은 60대 이상(28.7%)에서 높게 나타났고, 자료 준비 부족은 중대형 교회(3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7.8%로 매우 낮다는 점은 의외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대한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

[58]Paul Tillich, *Communicating the Gospel,* Union Seminary Quarterly, 7 (June 1952), 3.

계층별(%)

		사례수	설교 전달력	자료 준비 부족	적용	예화	본문 이해 및 해석
연령	30대	(60)	23.9	21.2	29.7	10.0	4.8
	40대	(270)	25.4	21.4	21.2	16.6	8.7
	50대	(186)	22.1	28.6	22.6	13.6	9.1
	60대	(62)	28.7	29.1	17.8	14.6	3.1
교회규모 (장년출석인원)	50명 미만	(249)	24.5	20.5	24.9	16.2	8.2
	50~300명 미만	(242)	26.8	26.5	17.3	14.3	8.3
	300명 미만	(87)	18.7	30.3	27.8	11.5	5.7

<차트 2> 목회자들이 자신의 설교 가운데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설교 전달력에 있어서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동일한 내용의 설교라도 전달에 따라 설교의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주일에 몇 차례 동일한 설교를 할 때도 전달에 따라 큰 차이를 체험할 때가 있다.

둘째, 전달은 전인격적인 부분이어서 하루아침에 발전을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달이란 목소리, 제스처, 시선 마주침, 언어 사용뿐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모든 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다. 설교 내용을 동일하게 따라 할 수는 있어도 동일하게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셋째,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 전달에 대한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달법에 대한 강조보다 원고를 충실하게 읽어도 청중이 귀를 기울였던 시기가 있었다. 오늘날의 강단은 준비된 성도들보다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야 하는 부담까지 안고 있다. 따라서 설교에 있어서 전달력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전달에는 언어적 전달과 비언어적 전달이 있는데, 설교자가 반드시 주목하고 훈련되어져야 할 사역이다.

1) 언어적 전달

아무리 좋은 설교라 할지라도 청중들이 잘 들을 수 없다면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다. 심리학자인 엘버트 메라비안(Albert Mehrabian)은 메시지의 7%는 내용을 통하여, 38%는 말하는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55%는 그의 표정을 통하여 청중에게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설교자의 음성이 메시지의 전달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59]

설교자는 음성의 고저(pitch), 발음(articulation), 말의 속도(rate), 그리고 침

[59]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0), 192.

묵(pause)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자가 체크 리스트: 언어적인 면[60]

* 인위적인 음성을 내고 있지 않은가? * 입에 힘이 들어감으로 S발음이 강한 음으로 나오지 않는가? * 설교 진행 시 일종의 변사식 리듬을 타지 않는가? * 발음을 빨리 함으로 단어의 종성 부분이 불명확해지지는 않는가? * 문장에서 문장으로 넘어갈 때 입술을 떼는 소리나 입맛 다시는 소리가 나지 않는가? * 마이크의 음량을 회중에게 맞추는가, 설교자에게 맞추는가? * “에-” “아-” 등 불필요한 언어 습관은 없는가? * 설교가 구어체인가, 문어체인가? * 설교에 형이상학적, 추상적, 관념적 단어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는가? * 신학적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가? * 표현이 너무 진부하지 않은가? * 문장을 가급적 짧게 하고 있는가? * 반복, 부연, 열거 등의 기법을 잘 사용하는가? * “믿습니까” “……할 줄로 믿습니다.”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가? * 목소리를 목에서 내고 있는가? * 원고의 지배를 받는가, 아니면 원고를 지배하는가?

2) 표현적 전달(비언어적 전달)

커뮤니케이션은 언어를 통하여 일어나지만 비언어(Non-verbal)를 통해서도

[60]정인교, *정보화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294.

일어난다. 우리는 주로 언어를 통하여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만, 말하지 아니함(Silent Language)을 통해서도, 즉 나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을 통하여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전하고 있다.[61] 인간의 얼굴은 놀랍게도 50만 가지의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며, 인간은 팔과 손, 손목, 그리고 손가락을 가지고 7만 개의 사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62]

따라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언어를 통해서는 물론 그의 몸의 언어를 통해서도 많은 메시지를 회중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별히 21세기 현대의 강단은 말 그대로 멀티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만일 설교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하면서도 그의 얼굴 표정이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회중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교도중 체험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스처 같은 경우도 설교자가 확신과 뜨거움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할 때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

설교자의 자가 체크 리스트: 비언어적인 면[63]

* 시선이 회중이 아닌 창문이나 벽을 보고 설교하지 않는가?
* 강조할 때 발뒤꿈치를 습관적으로 들지 않는가?
* 몸을 지나치게 흔들지 않는가?
* 제스처가 습관적인 몸동작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설교하지 않는가?
* 한쪽 어깨가 지나치게 올라가 있지 않은가?
* 강단을 잡은 자세로 설교를 계속하지 않는가?
* 지나치게 눈을 깜박이지 않는가?

[61]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9), 192.

[62]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200.

[63]정인교, *정보화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살리기,* 300.

* 제스처로 주먹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가?
* 강대상을 자주 두드리거나 치지 않는가?
* 석고상처럼 설교 자세가 무변화로 일관하지 않는가?
* 입술을 핥는 습관은 없는가?
* 얼굴 표정이 설교 내용과 일치하는가?
* 설교 시간을 제대로 지키려 노력하는가?

Ⅲ. 설교자에 대한 이해

정장복 교수는 설교의 정의에 대해 설교자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설교자로서 다음의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첫째, 나는 택함 받은 설교자로서 충실한가?

둘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선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고 있는가?

셋째, 나의 전달 방법과 기술이 오늘의 시대와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넷째, 나는 이 모든 준비와 외침을 성령님의 감화하시는 역사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가?[64]

이러한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존 스토트(John R. W. Stott)에 의하면, 설교자들은 성경의 세계(Ancient World)와 오늘의 세계(Modern World) 사이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키는 다리 놓는 사람들(bridge-builder)이다.[65]

데이빗 버트릭(David G. Buttrick)은 설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설교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거주하는 해석자요 신학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의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설교자는 함께 빵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준비된 존재들이다.[66]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설교자도 일반 회중들과 마찬가

---

[64]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70.

[65]John R. W. Stott,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139.

[66]David G. Buttrick, *Homile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231.

지로 인간이며 죄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다. 설교자는 죄인으로서 죄인 가운데에서 설교한다. 그는 구원받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의식을 공유한다. 설교자로 부름 받았다는 표징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경향으로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설교하도록 부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신비와 인간을 연결한 매개체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67]

1. 설교자의 신학

설교자는 하나님 체험을 통해서 투철한 소명감을 가져야 하지만 또한 철저한 신학 훈련을 통해서 신학적 분별력과 사고방식을 갖춘 '신학자-목사' 가 되어야 한다. 신학과 설교는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어떤 설교자는 신학을 많이 공부할수록 설교에 힘이 없어지고 교회 성장을 방해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신학과 설교를 알지 못하는 비지성적이고 비신앙적인 태도이다. 하지만 신학과 설교는 분리될 수 없다. 신학이 없는 설교는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처럼 방향을 잃고 좌초하고 만다.

아무리 신학을 거부하는 설교자라도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설교에 대한 고찰이나 작업, 또한 설교에 대한 엄명은 교의학적 언명' 이며, 설교자는 모두 '하나의 조직신학자' 이다.[68]

이처럼 신학과 설교는 분리될 수 없지만 구별은 해야 한다. 여기에 신학과 설교의 긴장 관계가 있다. 설교는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신학을 통해 재해석된 하나님 말씀을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선포하는 일이다. 설교가 신학적 지식의 전달에 그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아닌 인간적 지식의 자랑이 된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설교가 성서

---

[67]Ibid., 255~7. 참조.

[68]Dietrich Ritschl, *설교의 신학,*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8.

의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파수꾼이다. 신학과 설교는 서로 역할이 다른 하나님의 도구이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도구이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이 두 도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씀하신다.[69]

그러므로 설교자가 신학을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기초가 된다.

오늘의 설교자들이 상황에 대한 숙고와 함께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다. 즉 복음의 선포인 설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한다.

기독교 설교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신학적인 특성을 우리는 성육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포기와 변형의 틀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신다. 즉 하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언어와 방법을 통해,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새롭게 하늘의 메시지를 해석하여 들려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설교는 하늘의 메시지가 이 땅에 구현(Embodiment)된다는 점에서 성육신적이다.

그러므로 설교는 단순하게 천상에서나 혹은 거룩한 땅에서 행해지는 것은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새롭게 들려져야 하는 사역이다. 마치 성육신 사건을 통해 하늘이 인간 삶을 밀고 들어온 것과 같이 설교는 오늘의 삶 속으로 도전해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존 왓슨(John Watson)은 설교를 가리켜 청중들의 한 주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사건” (the most critical and influential event)이라고 평했다.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설교는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해왔음을 감안할 때, 그 말은 지나친 표현은 아님에 틀림없다. 설교 신학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시” 하시기 위해, 그리고

---

[69]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57.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 하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설교" 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설교 사역은 사람이 부름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 이며 "교회의 일차적인 임무" 라고 주장한다.[70]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설교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세움 받은 존재인가? 설교자의 자기 정체성의 확인이 없이는 이러한 사역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마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겠느냐" 고 물었던 모세의 질문은 오늘날 설교자들이 물어야 할 질문이다. 대 이집트 제국의 문화 사회적인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그러한 문화에 대해 대항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려는 문화, 잡다한 신들을 모시고 있는 다원주의 문화, 당시 근동 최고의 판도를 누리면서 권력과 부귀와 함께 발달된 감각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던 그가 그곳에 나아가 야훼 신앙을 전파한다는 것은 조롱 받기에 정말 좋은 일이었기에 당연히 거절한다.

그러한 그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를 준비하고 계셨다. 불이 타고 있으나 타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하셨고, 확인시켜 주셨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실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을 것" 을 요청하신다. 그리고 그를 설교자로 보내시는데,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은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다. 설교자는 이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세움 받은 존재이다.

설교자는 말을 잘해서 세움 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의 학문이 이집트의 문화를 압도할 정도로 탁월하기 때문에 세움 받은 존재도 아니다. 그의 손에는 이집트의 부귀와 권력을 압도할 만한 굉장한 것이 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손에

[70]D. Marti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 1장.

쥐어주신 지팡이 하나였지만 그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담아 놓으신 존재이다. 그의 메시지의 강력함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기인되며, 그가 바로의 정치권력에 의해서도 제한 받을 수 없었던 것은 그는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 택정함을 받은 존재이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2. 설교자의 인격

19세기 위대한 설교자 필립스 브룩스(Phillips Brooks)는 그의 책에서 "설교란 한 사람에 의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전달(Communication)다."라고 언급하였다.[71] 즉 이 진리의 전달을 위해서 설교자에게는 인격이 필요하다. 설교한다는 것은 인격을 통하여 진리가 전달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표적인 설교자인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도 그의 저서에서 설교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인간 됨됨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설교는 말뿐 아니라 인격의 산물이다. 하나님은 설교자의 전인격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설교자는 목회자이고, 목회를 위해서 설교하는 사람이다. 목회는 주님의 목양 정신으로 주님의 양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야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72]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도 설교 행위에 있어서 참된 설교를 위해 필요한 점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설교자는 전인적인 품격, 권위

---

[71]Phillips Brooks, *On Preaching, 설교론 특강,* 서문강 역 (경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1), 16.

[72]문성모, *곽선희 목사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 2008), 55.

로써 청중의 압도하고 진행해 나가는 지각력, 진지함, 박력, 열심과 열정, 긴박감, 설득력, 정념(Pathos), 말씀의 능력 등을 말하고 있다.[73]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설교자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설교신학자 주승중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설교자가 설교하는 상황에서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분리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청중이 설교자에게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다. 설교의 전달은 말이나 어떤 동작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느낌이 눈, 얼굴, 몸, 목소리, 몸짓, 태도를 채널로 보이고 전달되는 것이다.[74]

또한, 마케팅 전문 컨설턴트인 맹명관 교수도 그의 책 *"메시지 전달 혁명"* 에서 "설교자가 아무리 강한 제스처를 쓰고 표정을 지어도 청중이 설교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75]라고 했다.

영국이 낳은 위대한 청교도 설교가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설교와 일상생활 사이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목사들에게 뚜렷이 나타나는 실수는 그들은 빈틈없이 설교하기 위해서는 맹렬히 연구하지만, 빈틈없이 살기 위해서는 전혀 연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시간 동안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연구하기에는 일주일은 너무 짧다. 그러나 일주일 내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우리는 설교를 잘 하기 위해 연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76]

---

[73]D. Martin. Lloyd-Jones, *The Pastor and preaching,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105~130. 참조.

[74]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443.

[75]맹명관, *메시지 전달 혁명* (서울: 규장, 1999), 54.

[76]Richard Baxter, *The Reformed Pastor, 참목사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25.

실천신학자인 황금봉 교수는 좀 더 나아가 목회자의 인격을 소명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를 '소명실존' 이라고 인식하는데, 목회자들의 자기 실존을 통한 소명 확인은 언제든지 사회와 현상세계 사이에서의 갈등과 괴리감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도 목회실천 현장에서 목회인격으로 형상화되는데, 이러한 소명실존은 그 소명을 가능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의 연속성 속에서 성취될 수 있음을 피력한다.[77]

이상으로 볼 때 현대의 설교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격이다. 설교자는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분의 사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에 분명히 남다르게 어질고 신실한 인격의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설교자의 영성

설교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영적인 삶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자신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며,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확신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 설교는 기록된 계시를 통하여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설교하기에 앞서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78]

설교자가 청중(회중)들에게 매주 감동 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성생활이 충만해야 한다. 이는 좋은 설교란 설교자의 내적인 충만에서 나오는 것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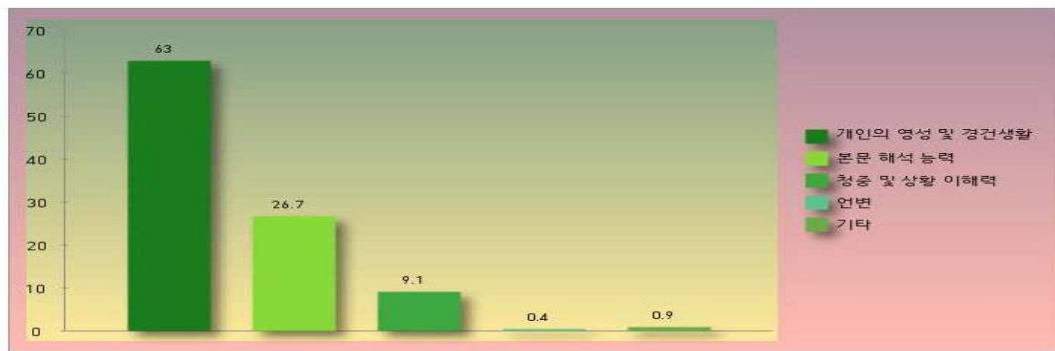
[77]황금봉, *신학실천과 목회자* (청도: 도서출판 빈들, 2009), 174~5. 참조.

[78]한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45.

때문이다.[79] 하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행정, 상담, 심방, 회의, 노회 등의 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정작 설교준비에 가장 필요한 묵상과 기도, 독서와 연구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피곤과 탈진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육체적인 피로도 있지만, 영적으로 메마르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목회자의 영성생활이 메마르고 고갈하게 되면 피곤하기 쉽고, 초조해지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적인 삶이 고갈된 목회자는 계속되는 설교의 사역에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80] 한 리서치 조사에서도 설교자로서의 중요 자질[81]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다.

n=578.%　　　　계층별,%

		사례수	본문 해석 능력	청중 및 상황 이해력	개인의 영성 및 경건생활	언변
연령	30대	(60)	25.2	14.7	60.0	0.0
	40대	(270)	26.7	7.5	64.3	0.8
	50대	(186)	28.4	9.6	60.4	0.0
	60대	**(62)**	22.7	9.1	**68.2**	0.0
교회규모 (장년출석인원)	50명 미만	(249)	26.5	9.5	62.4	0.0
	50~300명 미만	(242)	28.8	9.0	60.9	0.8
	300명 이상	**(87)**	21.2	8.3	**70.5**	0.0

[79]John Killinger, *Foundamentals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96), 199~200.

<차트 3> 설교자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

설교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질로 '개인의 영성 및 경건생활(63.0%)' 을 꼽았고, '본문 해석 능력(26.7%)' , '청중 및 상황 이해력(9.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인의 영성 및 경건생활' 은 60대에서 가장 높게 꼽았고(68.2%), 교회 규모에서 중대형 교회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70.5%). 이러한 사실은 한국교회의 청중들은 설교자의 영성과 경건생활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에게는 영성을 위한 연구생활과 기도생활이 필요하다.

1) 연구생활(Life of Study)

한 리서치에서 '보다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노력 형태(복수 응답)' 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설교자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

[80]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211.

[81]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33.

n=578.%　　　　　　　　　　　　　　　　　　　　　　　　　　　　　　계층별,%

		사례수	독서를 많이 한다.	국내 유명 설교가의 인터넷 사이트 방문, 설교 방송, 테이프 등을 듣는다.	설교 관련 세미나,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가족, 성도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설교 평가를 받는다.	해외 선교, 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다.	설교 관련 학위 과정에 다닌다.
연령	30대	(60)	80.5	78.4	34.3	37.0	12.0	**18.5**
	40대	(270)	76.4	68.3	44.2	33.9	21.7	**18.4**
	50대	(186)	81.9	59.5	**49.2**	32.4	28.6	7.4
	60대 이상	(62)	71.3	57.4	33.9	29.0	23.8	9.6
교회규모 (장년출석인원)	50명 미만	(249)	76.2	65.6	43.0	33.8	16.5	6.7
	50-300명 미만	(242)	79.5	67.3	46.1	31.4	25.3	9.1
	300명 이상	(87)	79.3	59.2	38.7	36.7	36.1	10.6

<차트 4> 보다 나은 설교자가 되기 위한 형태

위의 도표[8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규모가 클수록 해외 설교, 봉사 경험 노력 비율이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방송, 테이프 등의 이용이 높게 조사되었다. 컨퍼런스 참석률은 50대까지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다가 60대에서 낮아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은 연구에 있어서 독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것이고, 30~40대 같은 경우는 설교 관련 학위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다.

우리 시대 설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설교자는

[82]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24.

그냥 세워지거나 어느 순간 엄청난 능력을 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설교자로 세워져 갈려면 많은 연구생활이 필요하다.

한진환 교수는 그의 책 *"설교의 영광"* 에서 설교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 가운데 특별히 영성을 위해 갖추어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는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이다. 성경의 전문가로서의 노력을 그는 강조하고 있다.

> 설교자는 먼저 성경에 정통해야 한다. 성경 각 책의 중심사상이나, 그 배경과, 개괄적 흐름 등에 대해 꿰뚫고 있어야 한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구절들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교리적으로나 경건 생활에 있어 핵심이 되는 구절들은 암송할 수 있어야 한다. 명실공히 성경의 전문가가 되도록 성경 자체를 부단히 파고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83]

둘째는 설교자의 신학 정보에 대해서 언급한다.

> 설교자는 신학 정보에도 밝아야 한다. 역사적 정통신학의 유산에도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하지만, 현대 신학계의 동향이나 새로운 이론들, 새로운 관점들에 대해서도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신학 잡지나 신학자들의 저작물을 꾸준히 섭렵하는 연구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시대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설교는 본문에 담겨있는 항구적인 진리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84]

설교자에게는 무엇보다 이 시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사상적 배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해석할 뿐 아니라 현대인들에 대한 해석 작업도 겸해야 한다. 따라서 설교자는 신문이나 잡지, 베스트셀러 등과 같

---

[83]한진환, *설교의 영광*, 53.

[84]Ibid., 54.

은 소설류는 물론이고 연극이나 영화, 음악 같은 대중문화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

셋째는 건강한 육체에 대한 관심이다. 건강한 육체는 곧 건강한 설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교자의 건강관리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 듯이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설교는 낳는다. 많은 설교자들이 육체적인 곤고함으로 인해 영혼이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험한다. 주일 저녁에는 마음이 텅 빈 것같이 허전하고 말수가 적어진다. 하루에 열 집씩 심방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울적한 마음에 사로잡힌다. 정신적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어떤 것도 생각하기 싫어진다. 왠지 나 자신이 왜소해 보이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우울해진다. 육체적인 피곤이 영혼을 위축시키는 것이다………… 육체적 피곤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고, 무력감을 주고, 우리를 위축시킨다. 상황을 사실 이상으로 비관적으로 보게 만든다. 때로는 고독감이 엄습해서 견디기 힘들게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감정은 순식간에 확대되고 증폭되어 때로는 자신도 추스를 수 없는 탈진(Burn-out)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85]

목회자의 탈진은 결국 전반적인 목회와 설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일과 휴식 사이에 나름대로의 적절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 매일의 사이클에 오전 중에는 독서와 연구, 오후에는 심방과 다른 목회 활동, 저녁에는 휴식하는 식의 리듬이 필요하고, 주간 사이클에도 월요일은 운동과 교제, 주중에는 연구와 목회 활동, 주말에는 설교 작성 식의 리듬이 필요하다. 연간 사이클에도 교회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리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규칙적인 삶은 예측 가능한 목회 활동을 의미함으로 교인들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목회자에게는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목회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어느 정도의 취미 생활을 가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취미에 중독되어 목회 사역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가

---

[85]Ibid., 56.

되어서는 곤란하다. 밤낮 낚시질을 다녀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진짜 고기 낚는 어부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바둑에 미쳐 강단에서 내려다보는 교인들의 머리가 검은 돌, 흰 돌로 보인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취미 생활은 그것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견문도 넓히고, 폭넓게 인생을 이해하고,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될 정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86]

2) 기도생활(Life of Prayer)

목회자이자 설교자에게 있어 기도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공급처이다. 영성 신학으로 유명한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는 그의 책 *"Prayer(기도)"* 에서 기도의 중요성과 더불어 독자들에게 기도로의 초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집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계신다. 그곳은 우리의 본향이며 우리가 창조된 목적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아들이기 위해 마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기다리신다.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는 먼 나라에서 살아왔다. 그 나라는 시끄러움과 분주함과 사람들의 아우성이 있으며, 좌절과 공포와 위협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향으로 영접하신다. 우리의 본향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다정함과 교제와 솔직함이 있으며, 친밀함과 용납이 있다.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
>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마음의 거실로 초대하신다. 우리는 거기서 낡은 슬리퍼를 신을 수도 있고 그 거실에 있는 모든 것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우정의 주방으로 초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하며 잡담할 수 있다. 그는 우리를 능력의 식당으로 초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마음껏 음식을 즐길 수가 있다. 그는 우리를 지혜의 서재로 초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배우고 자라며 성숙할 수 있고 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궁금증을 풀 수도 있다. 그는 우리를 창조력의 작업장으로 초대하신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들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도 있다.

---

[86]Ibid., 58~59. 참조.

그리고 그는 우리를 안식의 침실로 초대하신다. 그곳은 새로운 평화가 발견되는 곳이며 우리가 벌거벗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으며,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도 있다. 그곳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깊이 친밀해질 수 있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가장 잘 알리는 곳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 곧 우리의 본향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다. 혹 여러분 중에는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기도한 것 외에는 고통이나 두려움으로 기도한 것 외에는 전혀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사실이다.[87]

사실 설교자에게 있어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목회적인 차원에서 모든 부분이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더 간절히 구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설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처드 포스터가 설명하는 기도는 오늘의 설교자들과 교인들에게 참으로 의미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참고로 에모리 대학의 켄들러 신대원 도서관의 희귀본을 모아놓은 방에는 요한 웨슬 리가 사용하던 오래된 책상이 전시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책상에는 “1740년경 요한 웨슬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기도와 연구를 위한 책상 또는 강단으로 웨일스 지역의 탄광촌에서 웨슬리가 설교할 때 사용했음.” 이라는 글이 부착되어 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책상 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였고, 또한, 그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책상을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으로도 사용했던 것이다. 웨슬리처럼 오늘날 우리의 설교도 기도 가운데 영감을 얻어 준비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설교가 작성되며,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가 회중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88]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 가운데 기도로 그와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

[87]Richard J. Foster, *Prayer, 기도,* 송중인 역 (서울: 두란노, 1998), 13~14. 참조.

[88]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215.

할 것이다. 또한, 설교는 어떠한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설교자는 성실하고도 진실한 기도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설교자의 삶

한 홍 목사는 그의 책, *"거인들의 발자국"* 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부르심(calling)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언급한다. 하나는 '구원에로의 부르심'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으로의 부르심' 이다.[89]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한 사역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는 삶에 있어서 많은 주제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통전적인 삶과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필요한 삶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통전적인 삶

기독교인의 삶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삶(a life of communion), 가난과 소외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하는 삶(a life of compassion), 삶을 부정하는 모든 나라와 권력들에 대항하여 대결하고 투쟁하는 투쟁의 삶(a life of combat) 등으로 서술되어질 수 있는 통합된 삶이다.[90]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의 삶 역시 통전적인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설교자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다.

---

[89]한 홍,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3), 333~6. 참조.

[90]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166.

예배 후에 한 교인이 목사에게 다가와서 묻는다. “목사님, 그 설교 준비하는 데 몇 시간이나 걸렸습니까?” 목사가 대답한다. “몇 시간이라니요, 45년이 걸렸습니다.” 자신이 걸어 온 인생 전체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이 설교라는 표현이다. “그림은 단지 화가가 붓을 들고 캠퍼스 위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다. 그림은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 혹은 그림에 대해 생각할 때 떠오른다.” [91]

설교는 더욱 그러하다. 설교는 단지 주말 몇 시간의 준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의 영적인 생활, 지적인 세계, 인생 경험과 경륜들, 다양한 인간관계, 심지어는 설교자의 건강과 취미생활, 휴식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전부가 투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설교이다. 신학교에서 기초과목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많은 과목들을 배우지만,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설교가 있듯이 설교자의 모든 영적, 정신적, 사회적 경험의 정점에 설교가 있다. 설교 한 편에 온 인생이 녹아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선포되어져야 하며, 선포되는 메시지는 행동으로 옮겨져야 하며, 선포된 메시지는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자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할지라도 설교자의 메시지와 삶과 인격이 일치되지 못하면 회중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게 된다.[92]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당사자인 개신교인뿐 아니라 비개신교인에게도 질문하였다. 개신교인의 경우 주로 ‘양적 팽창,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 와 ‘교파가 너무 많다/단합이 안 된다.’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비개신교인의 경우 양적 팽창과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 ‘이단 교회가 너무 많다.’ 라는 측면을 지적하였다.[93]

이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에게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 분파주의, 집단

---

[91]Fred Craddock,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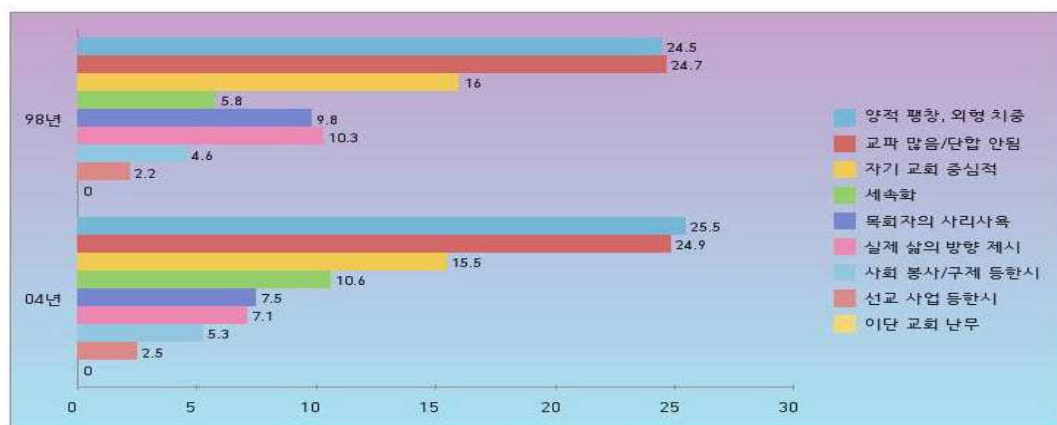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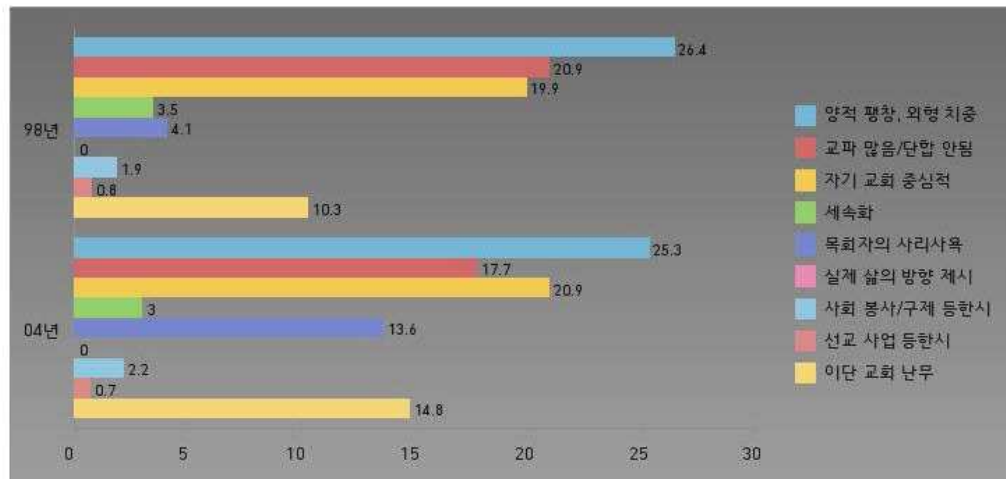
[92]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217~8. 참조.

[93]한미준,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262~4. 참조.

이기주의 등이 한국교회 전반에 내재된 문제점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치유를 한국교회의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참고로, 1998년과 비교해 보면 한국교회의 과제에 대해 개신교인들은 한국교회 세속화에 대해 염려하는 비율이 다소 증가했으며, 비개신교인의 경우에는 '목회자의 사리사욕' 에 대한 지적이 대폭 증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결과) **(%)**

	개신교인 (N=1,000)	비개신교인 (N=1,000)
양적 팽창, 외형에 너무 치우친다.	25.5	25.3
교파가 너무 많다/단합이 안 된다.	24.9	17.7
지나치게 자기 교회 중심적이다.	15.5	20.9
세속화/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	10.6	3.0
목회자의 사리사요/이기심	7.5	13.6
성도들의 실제 생활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지 못한다.	7.1	-
사회 봉사/구제 사업 등한시	5.3	2.2
선교 사업을 등한시한다.	2.5	0.7
이단 교회가 너무 많다.	-	14.8
기타	0.3	0.7
계	100.0	100.0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차트 5>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점

2) 섬김의 리더십이 있는 삶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더십(Readership)의 문제이다. 홍영기 박사는 목회자의 카리스마 리더십은 담임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상호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즉, 관계 속에서 교인들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리더십의 자질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94] 또한, 홍사중 교수는 *"리더와 보스"* 라는 책에서 '한 나라가 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나라를 망하게 하는 데는 지도자 자리에 있는 한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 [95]고 말한다. 이 말은 오늘의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주목해 보아도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리더의 중요성이

---

[94]홍영기,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252~54. 참조.

[95]홍사중, *리더와 보스* (서울: 사계절, 1997), 7.

강조되지 않았던 때가 없었음을 암시해 주는 말이다.

리더십에 있어서 일반적인 리더십의 정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존경, 신뢰, 복종 및 충실한 협력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사람의 사고, 계획 및 행위를 통솔하는 기술로 이해할 수 있다. 리더십은 인간관계, 즉 한 사람의 인간과 집단 및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으로 명령, 지시, 설득, 기타의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따르게 하는 행동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리더십의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지도자 개인의 인격적인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도자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 및 집단을 연구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어떤 조직 또는 집단이 위기를 맞이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나타난다.[96]

그러나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닌 크리스천 리더십(Christian Readership) 그 목적부터가 세속적인 기업이나 정치 단체의 리더십과 구별된다. 교회의 리더십은 성경에서 그 기초가 비롯되어야 하며, 인간 사회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다. 그 중심적 윤리가 하나님의 목적(God's purpose)을 이루도록 영향을 미치게 하는 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God-given capacity)"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그것이 선천적인 달란트이든 성령의 은사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지도자가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라기보다 우리 모두의 궁극적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로써 주어진 것에 불과하다. 이 개념은 모든 지도자에게 겸손의 필요를 가르친다.

크리스천 리더십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책임(God-given responsibility)"을 이루는 일이다. 이 책임 혹은 사명의 개념은 첫째로, 타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

[96]조말수, *21세기 지도자*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9), 16.

백성이 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을 위한 사명감과 둘째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 즉 추종자에 대한 책임감, 다시 말해서 리더십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무가 지도자에게 있음을 암시해 준다. 따라서 크리스천 리더십의 궁극적 목적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있다.[97]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리더십이 있다면 무엇일까? 많은 부분을 떠올릴 수 있지만, 섬김의 리더십이다. 섬김의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종' 이 되기를 원하셔서(막 10:45;요 13:4~5)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한 평생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섬김의 종' 으로 살았다. 그러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자기 비하와 순종의 길을 제시하며 모두가 이 길을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98]

신약학자인 성종현 교수는 이 섬김의 실천이 결국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자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역설하였다.[99] 따라서 오늘의 설교자들은 삶 속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리더십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섬김의 리더십은 청중으로 하여금 감동적인 설교를 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97]명성훈, *창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서적, 1991), 18~21. 참조.

[98]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319.

[99]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241.

3)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는 삶

모든 설교자는 영향력 있는 설교를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청중들이 자기의 설교를 듣고 이해하며 믿음과 순종으로써 응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위하여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 마틴 로이드 존스(D. M. Lloyd Jones)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나는 모든 설교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설교하기 전에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을 기다리며 간구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까? 설교자에게 이보다 더 철저하고 노골적인 시금석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설교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자가 사람의 노력과 열심을 초월하여 성령에 의해 쓰임을 당해 그를 통해 성령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되는 위치에서 설교사역을 수행하도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입니다.[100]

로이드 존스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설교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첫째, 성령 하나님은 설교의 주인이시다. 왜냐하면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님과 마찬가지로 설교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당대의 회중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내용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설교 사역을 돕는 협력자(Helper)

---

[100]D. M. Lloyd Jones, *목사와 설교,* 400.

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의 한 분으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게 말씀의 주인이시지만, 동시에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설교자를 돕는 협력자로 활동하신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바람직한 설교 사역을 위하여 말씀의 주인이시며, 동시에 말씀 사역의 협력자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서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101]

김금용 교수는 설교 사역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102] 먼저,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와 회중에게 지식을 더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지식의 영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특별히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본질상 그분과 하나이신 예수님을 아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업적에 대하여 정확히 가르치신다. 그분만이 오늘의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어려운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르치실 수 있다. 둘째는 지혜이다. 지혜가 따르지 않는 지식은 위험하며, 지혜는 우리가 아는 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기술이다. 설교자는 성경의 일부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왜곡된 기독교를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모든 진리와 성경의 진리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하신다. 셋째는 신령한 입이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신령한 입술을 갖게 된다. 해야 할 말은 더욱 힘 있게 하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삼가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설교자와 회중은 힘 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며, 과거의 거칠고 천박한 말들은 삼가게 된다. 넷째로 성령 하나님은 설교 사역 전체에 기름을 부으신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동안 온몸과 마음을 설교를 위해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면 설교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설교자는 용감하고 자신에 찬

[101]김금용,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089~90.

[102]Ibid., 1091~2.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다. 다섯째로 성령 하나님은 설교가 충실한 결실을 맺게 하신다. 설교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결실을 맺는다(고전 12:8~11). 죄인이 죄를 회개하는 것, 죄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죄인들이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는 것, 성도들이 보다 더 고상한 것들을 깨닫고 고상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 등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섯째, 성령 하나님은 간구의 영으로 설교 사역을 도우신다. 설교자는 연약하기에 설교 사역을 홀로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롬 8:26).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설교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한다. 일곱째,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설교자는 자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도록 본을 보여야 한다.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성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설교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이해하고, 그 분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공적인 설교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Ⅳ. 청중에 대한 이해

1. 현대 사회의 변화의 흐름들

오늘의 설교자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삶의 현장(Context)에 대해서 주시해야 한다. 이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자리(Boundary)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왔지만 중심(Center)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 때문에 설교자들이 결코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 가장자리이다. 오늘 그러한 가장자리는 급격한 변화 가운데 있으며, 그러한 흐름들은 오늘날 교회의 사역들을 무기력하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교회도 변하고, 그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들도 그러한 영향을 통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103]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현대 사회의 변화의 흐름들을 이해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청중들의 삶과 문화를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1) 포스트모던 사회

다이어저니즈 앨린(Diogenes Allen)은 오늘날 시대의 지적인 문화(Intellectual Culture)가 주요한 전환점에 서 있음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거대한 지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아마도 중세시대가 끝나고 근대(Modorn) 세계로 전화될 때보다 더 큰 혁명이다. 근대 세계의 기초가 무너지면서 우리는 포스트모던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 계몽주의가 지배하던 기간 동안에 안출되어 근대의 사고방식(Modern Mentality)의 기초가 되었던 원리들이 이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104]

103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4), 32.

이러한 사실은 과거에는 낡은 것은 무너뜨리고 새로운 터를 구축하려고 하였는데, 이제는 토대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간다. 20세기 중반부터 거대한 흐름으로 생성,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반 토대적인 경향을 학자들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처음에 이것은 건축, 예술, 문학 분야의 한 흐름으로 이해되던 것이 이제는 "오늘날 문화 전체의 성격을 규정짓는 지시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105]

오랫동안 지배해 왔던 가치와 시대정신을 지배했던 터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대두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은 교회의 사역 전체에 있어서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이후 나타난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시대정신이요, 문화적인 현상(Cultural Phenomenon)이다.[106]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을 전제한 말이며, 과학과 기술문명, 이성과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를 떠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래 '포스트(Post)'라는 접두어는 '후기-' 혹은 '탈-'의 뜻을 가진 말이며, 이것이 모더니즘과 연결될 때, '후기 근대주의' 혹은 '탈 근대주의'라는 뜻이 된다.[107]

'후기'라는 말로 규정하면 연속성을 내포하는 반면, '탈'이라는 말로 규정하면 이것은 단절과 비판, 극복이라는 주제가 강조된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의미를 따라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108]

---

[104]Diogenes Allen, *Christian Belief in a Postmodern Worl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2.

[105]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IVP, 2000), 13.

[106]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34.

[107]Ibid., 34.

[108]Ibid., 34.

2) 다원화 사회

과거에 사람들은 아주 제한되고 한정된 사회적 세계 안에서 살았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언제나 제한적이었으며,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당시의 특징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대안이나 삶의 방식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다양성을 가져왔으며, 다원화된 사회로 치닫게 되었다. 이것은 정보의 발전이나 세계화로 치닫는 제반 사회적인 구조가 이것을 촉진시킨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하며, 다르게 보며, 다르게 행동한다. 모든 가치와 기준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Volatile) 것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 그리고 다양한 삶의 양식 때문에 사실상 다원적일 뿐만 아니라 이런 다원성이 인정되고, 널리 즐겨 신봉된다는 점에서 다원주의적(Pluralist)" 인 특성을 가진다.[109]

이제 현재 세계는 종교적으로 다원적인 곳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인종, 문화, 관습, 가치관에 있어서도 다원주의적인 경향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원주의" 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화적 다원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로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문화적 다원주의란 한 사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문화들과 생활 방식들을 환영하고 이런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믿는 태도이다. 나는 이것이 사실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가 필요한데 문화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문화에는 좋은 요소도 있고 나쁜 요소도 있다. … 한편 종교적

---

[109]Ibid., 38.

> 다원주의는 종교들 간의 차이가 진리와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다른 인식의 문제라고 믿는 것이다. 즉 종교적인 믿음에서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믿음은 개인적 문제이고,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110]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문화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사고는 이 땅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다원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다원주의는 이데올로기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원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믿음' 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인적인 결단과 관련되어 있어서 다원주의적이지만 '사실' 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해서는 다원주의적이지 않으며 이것은 공적인 지식의 문제이다. 사실이라는 영역에서는 다원주의가 형성되지 않는다. 물론 지역이나 문화에 따라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믿음의 문제는 개인의 차원으로 전락하게 되었고, 기독교 사회로 대표되었던 서구 사회의 타당성의 구조는 무너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사회적인 특성에 의해서 새로운 타당성의 구조가 형성되게 되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검증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연히 현대 사회는 다원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111]

따라서 이러한 현상으로 볼 때, 다원화 사회는 앞으로 기독교의 설교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온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인 진리를 이제 주관화 시키려는 도전 앞에 서 있게 된다.[112]

---

[110]Lesslie Newbigin, *The Gospel in a Pluralist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9), 14.

[111]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40.

[112]독일의 신학자 한스 큉(Hans Küng) 교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포기할 수 없지만, 타종교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는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로, 세계윤리, 환경, 전쟁 등에 있어서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강조한다.

3) 정보화 사회

현대 사회는 텔레비전의 출현과 함께 시작된 커뮤니케이션 혁명을 경험하면서 가히 정보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시각에 호소하는 매체인 텔레비전의 출현은 언어와 문자로 대표되던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그림과 그래픽이 중심을 이루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매체의 시각적 특성은 이제 다른 미디어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 갔다. 더 나아가 이렇게 텔레비전과 함께 시작된 거대한 커뮤니케이션의 대변혁은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정보화 사회'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거대한 정보의 흐름(홍수)앞에 서 있게 되었고, 전자라는 새로운 기술공학의 영향과 함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고 있다.[113]

이러한 사실들은 이제 청중들의 청취 스타일도 크게 달라짐을 의미한다. 전자문화와 영상문화에 익숙한 청중들은 이제 논리와 명제에 의해서보다는 이미지와 메타포, 스토리, 그리고 가시적인 영상을 맺어주는 언어에 의해서 전달될 때, 그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게 된다. 영상 문화와 함께 시각적이고 이미지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배적이 되면서 문자적이고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잠식 혹은 대처해 가고 있다.[114]

결국 오늘의 정보화 시대 속에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의 청중"이 태동되었다.

4) 오락화 및 감각화 사회

---

[113]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41.

[114]Ibid., 41~2.

피터림 소로킨(Peterim Sorokin)은 각 문화들의 탄생과 소멸, 성장과 쇠퇴, 퇴락과 부흥의 단계를 관찰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화는 관념 문화 단계, 이상주의 문화 단계, 감각 문화 단계를 거친다고 주장한다.[115] 소로킨(Sorokin)은 모든 인간 사회는 어느 때든지 어느 한 유형의 단계에 속하게 됨을 강조한다. 그가 말하는 문화의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관념 문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은 영적인 진리와 가치를 거의 유일한 진리와 가치로 여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세계는 가장 숭고하고 진실 된 실체이며, 가장 지고한 선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단계에서는 고상한 원리들을 고수하기 위해 현실적인 쾌락과 현세적인 목표는 희생시킨다. 이때는 자기 부인, 금욕주의 등은 높은 가치이며,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둘째는 이상주의 문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도 영적인 진리나 가치를 상위에 두지만 현실의 가치를 팽개치지 않고 중요하게 평가한다. 물질적인 가치와 감각적인 세계에 대한 매력을 가지면서 그러한 세계를 향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결국 이 단계에 있는 사회는 그 다음 단계인 감각 문화의 단계로 빠르게 발전하는 경향을 가진다.

셋째는 감각 문화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감각에 호소하거나 감명을 주는 물질적인 요소들에 깊은 관심을 둔다. 이 단계에서는 인상적이고 육감적이며, 외형적인 것에 가치를 부여하며 무절제한 탐닉에 빠진다. 이 단계의 문화적인 표현들은 감각적이며,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가치를 선호한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서구문화는 퇴락하는 감각 문화의 후기 단계에 이르렀다고 소로킨은 분석한다.

기독교적인 유산을 포기하고 다원주의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서구문화는 이제 이상주의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감각의 문화가 되었다.[116]

---

[115]Pitirim A. Sorokin, *The Crisis of Our Age* (1941; reprint, Garden City: Doubleday, 1956; 2nd ed., Oxford: Oneworld, 1992).

현대 사회는 오락성(Entertainment) 추구가 삶의 커다란 이유가 되었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내용이 되었다. 이것은 물론 물질적인 풍요가 이룩되면서 감각 문화, 오락성 추구는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새로운 경형으로 대두된다. 이제 예술은 감각 예술에 의해서 잠식되면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종교는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면서 주변의 것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의 문화를 가리켜 헤롤드 브라운(Harold O. J. Brown)은 "감각 중심의 문화(Sensate culture)라고 규정한다.[117] 감각 문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가치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퇴폐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며, 서구 문화가 이러한 단계에 접어들면서 감각적인 가치는 이제 기독교적 가치체계의 자취들을 점령해 가면서 차츰 소멸시켜 가고 있다. 감각의 문화가 만들어 가는 문화적인 부산물은 폭력, 성도덕의 붕괴, 마약, 알코올 중독, 가정 파괴, 에이즈와 같은 성병, 자살률 증가, 범죄와 전쟁의 증가들로 나타난다. 이성적인 감동보다는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게 되며, 더욱 자극적이고 표피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 사회와 문화의 변화를 보면서 기독교의 설교는 그 자체가 가장자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으며, 무기력하고도 공허한 외침이 돌 수밖에 없는 시대 속에 서 있다. 이러한 문화의 흐름을 놓고 볼 때 기독교적인 해법이나 대안이 아니라, 문화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필요한 것은 소로킨이 주장한 대로 "자각의 은혜" 이다. 설교자들이 이 시대정신을 알고,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 속에서의 메시지의 방향성을 찾게 할 것이며, 새롭게 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

[116]한 예로 미국의 문화도 청교도들의 이상이 지배하던 "보스턴의 문화" 를 넘어서, 다인종 사회가 되면서 종교포용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종교의 "뉴욕의 문화" 의 단계에서 이제는 "라스베가스의 문화" 가 형성되었다.

[117]Harold O. J. Brown, *The Sensate Culture*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6).

2. 청중의 문화 이해

문화적인 상황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다양한 문화" 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더 이상 인간의 삶과 문화는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계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와 문화는 상대적 대화의 가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씀의 사역가운데 깊은 문화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설교에 있어서 청중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앙과 문화 사이의 긴장 관계는 항상 존재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설교는 믿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릭 이젤(Reck Ezell)은 그의 책에서 이러한 사실들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

> 문화의 파도를 이해하는 것이 표적인 청중을 향하여 조준하는 첫걸음이다. 문화란 주로 어떤 사회의 생활양식이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문화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무엇에 가치를 두며, 무엇을 고통스러워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준다. 만약 한 선교단체가 어떤 나라로 선교하러 간다면 우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세속적인 사회에서 설교자인 나에게도 교회가 속한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내가 주변의 문화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그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는 있어야 한다.[118]

리처드 니버(Richard H.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 라는 책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기준으로 다섯 가지 유형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

[118]Rick Ezell, *설교, 변하는 청중을 사로잡으라,* 민병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54.

1)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이 유형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강조하므로 인해 문화를 죄악시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경건을 강조하므로 상대적으로 문화적 제도에 대한 철저한 반항적 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유형에서 말하는 세상은 '악의 세력 아래 점령되어 있는 영역이어서 암흑의 지역이며, 빛의 나라의 시민들로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이다. 그러므로 문화의 모든 국면이 비난의 대상이 된다.[119] 이들에게는 문화를 기독교적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그런 것은 아무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화가 다 이교적이요 부패한 것이다.[120]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터툴리안(Tertulian)과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i)가 있다.

2) 문화의 그리스도

이 유형의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 사회의 메시아요, 그들 사회의 희망과 열망의 성취자요, 신앙의 완성자요, 가장 거룩한 정신의 원천[121]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와 문화를 서로 일치, 조화시켰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무리로는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복음을 당시의 과학과 철학에 조화시키려고 시도했다.[122] 그들은 조잡하고 낡아빠진 유대적 신관과 역사관에서 복음을 해방시키며, 기독교 신앙을 지식인의 지성에까지 끌어올리려고 노력했다.[123]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이들은 문화

[119]Richard H. Niebuhr,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80.

[120]Ibid., 85.

[121]Ibid., 110.

[122]Ibid., 113.

[123]Ibid., 114.

속에 기독교를 동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렇게 설명된 기독교는 한 종교적 또는 철학적 체계로 되어 버린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화를 해석하며, 문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 그리스도는 위대한 교육자, 위대한 철학자 또는 개혁자로 간주되는 일이 많다.[124]

3)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

이 유형은 종합 유형으로도 불린다. 이 유형에서 중요한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와 문화, 이 둘은 모두 긍정된다. 즉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저 세상에 함께 주가 되신다.[125]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이것을 문화와 결부시킨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화는 그 기원에 있어서 신적이면서 동시에 인간적이며, 거룩하면서도 범죄적이고, 필연과 자유를 함께 가진 영역이며, 이성과 계시가 함께 적용되는 장소다.[126] 그러므로 이 유형에서는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양장 택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둘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와 토마스 아퀴나스(St. Thomas Aquinas)를 들 수 있다.

4)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 그리스도와 문화

---

[124]Ibid., 111.

[125]Ibid., 154.

[126]Ibid., 155.

니버(Niebuhr)는 이 유형의 사람들을 “이원론자”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니버가 말하는 이원론은 마니교에서 말하는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등으로 양분하는 의미가 아니라[127] ‘하나님과 인간의 충돌’ 가운데 있는, 즉 한편에는 우리가 서 있고, 다른 편에는 그리스도가 서 있는 의미의 이원론을 말한다.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죄’에서 출발한다. 즉, 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 죄는 인간 안에 있다.[128]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 편에만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죄는 사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문화는 부패한 것이고, 이 부패는 인간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129] 문화의 부패에 대한 이들의 견해는 종합 유형과 단지 정도의 차이만을 가질 뿐이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잠시도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유형에서는 율법과 은혜가 강조된다. 이 유형의 대표자로는 바울(Paul)과 루터(Martin Luther)가 있다.

5)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이들을 니버(Niebuhr)는 “개변주의자”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니버는 개변주의자는 이원론자와 가깝다고 말한다. 단 이들은 ‘이원론자 보다도 문화에 대하는 태도가 더 적극적이요, 희망적’이다.[130] 이들은 창조에 관해서 창조를 ‘속량의 위대한 행위에 대한 일종의 서론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이원론자들과 달리 창조가 그리스도의 속량 개념에 압도되거나 압도하는 일이 없다. 또한 개변주의자들은 인간의

---

[127]Ibid., 189.

[128]Ibid., 192.

[129]Ibid., 193.

[130]Ibid., 241.

근본적인 타락을 주장하나 이 타락은 창조의 반대이며, 문화는 전적으로 부패된 질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문화의 문제는 개변의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은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현재가 곧 역사라고 말한다. 따라서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과 인간의 극적인 상호 행동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다.'[131]고 개변주의자는 말한다. 이 유형의 대표자로는 어거스틴(Augustin)과 칼빈(John Calvin)이 있다.

교회성장연구소의 홍영기 목사는 그의 저서 *'설교의 기술'* 에서 회중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설교는 독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설교는 일방적인 강연이 아니라 목회자와 회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회중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회중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설교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132]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재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회중(청중)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대목이다.

사우스 이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설교학 교수였던 세비 혼 박사에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언제나 나를 향한 메시지 같습니다. 설교가 3분의 1가량 진행되면 나는 이 본당에 혼자만 앉아있고 목사님은 나만을 위해 말씀하고 계신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뉴욕의 유서 깊은 리버사이드 교회를 시무했던 포스딕(Harry Emerson Fosdick)도 비슷한 평을 듣곤 했다. 존 록펠러(John D.

---

[131]Ibid., 244.

[132]홍영기, *설교의 기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7), 58.

Rockefeller)는 그의 설교를 이렇게 평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은 저 분이 나를 향하여 외치고 있다고 느꼈다. 교인들의 한결 같은 반응은 목사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실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교인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설교, 교인들은 당에 있는데 늘 하늘에만 머무는 설교도 있다. 그래서 교인들은 온실 속에서만 사는 목사가 비바람 치는 광야를 어떻게 이해하겠느냐고 생각하기까지 한다.[133]

3. 청중의 상황 심리 이해

상담심리학자인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저의 저서 "*The seasons of Life(인생의 계절들)*"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일생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즉, 폴 투르니에는 모든 계절은 저마다의 의미가 있으므로 지나간 계절을 반추하며 쓸쓸해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다가온 계절에 충실해야 성숙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각 계절에 맞는 삶의 형태가 있다는 것이다.[134] 그러면서 인간의 일생 역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면 봄답게, 여름이면 여름답게, 가을이면 가을답게, 겨울이면 겨울답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름대로 중요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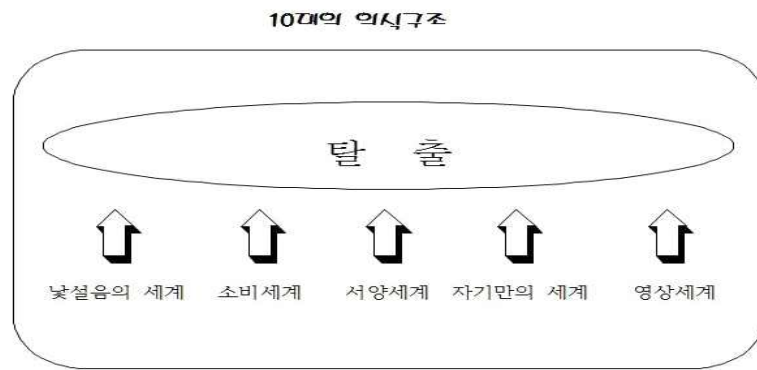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설교에 있어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의 세대와 상황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왜냐하면 청중의 세대와 상황 심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는 말씀이 제대로 깊이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1) 청소년기(10대)

---

[133]한진환, *설교의 영광*, 129.

[134]Paul Tournier, *The seasons of Life, 인생의 계절들,* 크티시스 역 (서울: 도서출판 쉼북, 2005), 7.

10대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의 특성은 '탈출' 이다. 모순적인 면이 다분하긴 하지만 욕구의 역설적 측면으로 조명해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10대들은 타인의 시선을 크게 의식하고 그 시선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동시에 자기만의 세계에 몰입해서 타인의 시선을 거부하려는 몸짓도 아울러 보이고 있다.[135] 남의 시선을 받으려고 튀는 것은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임으로써 그 무리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의 반영이다. 그 구체적인 탈출 방법으로는 서구화, 자기만의 세계, 소비의 세계, 영상의 세계, 낯설음의 세계로 몰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136]

<표 15> 10대의 의식구조

135십대에게는 두 가지 심리가 있다. 하나는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과시의 심리이고, 둘째는 자기만의 세계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고자 하는 심리이다.

136맹명관, *메시지 전달혁명* (서울: 규장문화사, 1999), 93.

(10대들의 Life Style)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	42	60	46	36	36	34
유명상표의 옷을 입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17	35	18	11	12	10
두드러진 옷이라도 마음에 들면 입는다.	27	41	35	22	18	18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입기 싫어진다.	27	37	35	29	20	16
장소나 분위기에 맞춰 옷을 골라 입는다.	36	31	42	39	34	34
방이 좁더라도 거실이 넓어야 한다.	49	37	44	57	56	49
집을 마련하기 전에도 승용차는 있어야 한다.	40	50	53	45	29	21
개인용 컴퓨터(PC)는 생활의 필수품이다.	43	52	51	43	37	32
PC나 전화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12	15	18	12	7	6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낭비는 필요하다.	39	45	45	39	33	32
쇼핑하는 것이 즐겁다.	39	53	45	37	32	29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다.	37	52	43	34	31	26
비싸더라도 이왕이면 유명상표의 물건을 산다.	26	33	25	25	24	23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절약을 해야 한다.	68	50	62	73	75	82
서구의 사고나 생활방식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40	49	49	38	34	30
양식이 한식보다 입에 잘 맞는다.	25	30	24	23	24	22
점심으로 패스트푸드를 먹는 경우가 많다.	13	31	18	7	4	5
온돌보다는 침대가 좋다.	37	64	49	39	23	12
광고에서 외국인 모델을 보면 거부감을 느낀다.	27	18	20	28	33	37
외국으로 이민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39	56	44	37	31	27
마땅히 볼 프로그램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TV를 켜놓는다.	47	51	49	43	43	50
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를 통해 얻는다.	58	57	53	55	59	68
같은 내용의 소설과 비디오가 있다면 비디오를 보겠다.	55	60	58	56	52	49

<표 16> 10대들의 라이프 스타일

2) 청년기(20대)

한국어 대사전을 보면 청년을 '20~30세 안팎의 젊은 사람, 특히 남자를 일컫는 말로 소년과 장년사이에 있는 사람' 이라고 정의한다.[137]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인생주기 이론에는 인생 주기를 8단계로 나누고 있다. 그는 인생주기를 영아기(0~18개월), 유아기(18개월~2,3세), 아동기(3~5세),

137한국어대사전 (서울: 한국어대사전편찬회, 1976), "청년" 항목.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8세), 성인초기(19~30세), 성인기(30~55세), 노년기(55세~)로 분류한다.[138] 이 분류에 따르면 청년기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초기에 이르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청년이라 함은 만18세(고졸)부터 결혼하지 않은 30세 전후의 연령에 속하는 청년들을 가리킨다.

청년을 이해하는 것이 단순하지 않음을 말해 준다. 또한 청년은 아동도 성인도 아니므로 이 시기를 중간기 또는 과도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청년기는 중간적이며, 영향을 받는 요인이 많고 이러한 요인과 함께 변화의 양상들이 폭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생리적 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인 면에서 그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보이는 이 시기에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전인적인 인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139]

청년기에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지적으로도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된다. 언어능력, 수리능력, 공간능력에서 특별히 성숙하며 창의적인 사고는 절정에 달한다. 청년기에 있어서 개념적 사고의 발달은 추상적, 논리적 발달과 더불어 이 시기의 지적 발달을 특징짓고 있다.[140] 과학적 이론에 흥미를 갖게 되고 철학적 의문을 갖고 자아를 탐구하고 사회나 정치문제를 비판적으로 본다. 반면에 대부분의 청년은 경험적, 실증적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쉬우며 극단적인 관점에 빠질 정도로 사고의 유연성을 잃기 쉽다. 이러한 지적특성은 기독교 교리와 신앙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청년기의 정서적 특징은 첫째로, 청년 때의 감정은 극단에서 극단으로 심하게 동요되며 아주 상반된 대립적인 감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수가 많고, 또한 정서가 솔직히 표현되지 않고 억압되거나 왜곡되는 수가 많다.[141] 둘째로, 때로는 도전적이고

---

[138]장동환 외, *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1987), 488~91.

[139]정인석,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3), 41.

[140]서봉연,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153~7. 참조.

[141]정인석, *신청년심리학* (서울: 대광사, 1998), 91~2.

적극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자기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상으로 불안, 고독, 열등감, 공허감 등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로, 청년은 인간, 자연, 문화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하여 동경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청년이 품고 있는 이상은 모순이 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타락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 쉽다. 또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은 리서치를 살펴보면 청년기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의 20대는 즐겁다. 그들의 멋과 놀이가 그렇고 앞날에 대한 희망 또한 그렇다.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20대의 특징은 나만의 멋, 놀이문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개인주의적인 성향, 여성 파워의 신장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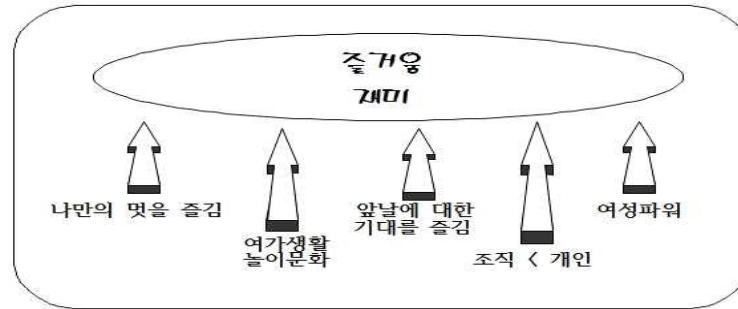
먼저, 패션의식에 있어서도 10대 못지않게 20대도 자기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입기 싫어하며 조화와 세련됨을 통해 자신의 멋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20대의 또 다른 특징은 놀면서 즐기고자 하는 욕구이다. '좀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일을 더 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는 20대의 비율이 절반을 넘고, 안정보다는 인생을 즐기는 쪽을 택하는 과감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이들이 추구하는 즐거움이란 비일상적인 것이 많다. 즉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들은 이런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 그 외에도 20대는 대학 진로 후 취업에 대한 문제와, 남자 같은 경우 군대 문제 등으로 현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대는 조직보다는 개인 중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기성세대와 적지 않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참고로 20대 여성들의 자아실현도 크게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142]

이상의 내용을 아래의 도표로 참조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142]맹명관, *메시지 전달혁명*, 105~109. 참조.

20대의 공동체 지향 특성

<

<표 17> 20대의 공동체 지향 특성

(20대들의 Life Style)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옷을 입기 싫어진다.	27	37	35	29	20	16
구두나 장신구는 옷에 맞추어 착용한다.	34	36	44	33	30	26
심플한 디자인의 옷을 즐겨 입는다.	54	49	68	58	49	46
장소나 분위기에 맞춰 옷을 골라 입는다.	36	31	42	39	34	34
속옷도 색상이나 디자인에 신경을 쓴다.	25	31	33	27	16	16
패션에 관한 기사나 잡지를 즐겨 본다.	22	31	34	22	13	9
수입을 위해 일을 더하기보다는 여가시간을 갖고 싶다.	48	55	55	46	42	41
휴가 때 힘들게 여행을 가느니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	40	34	29	37	45	54
집을 마련하기 전에도 승용차는 있어야 한다.	40	50	53	45	29	21
나는 일상생활에 변화를 주려고 노력한다.	35	38	45	37	32	23
취미생활과 관련된 서적이나 잡지를 자주 읽는다.	19	21	24	21	18	12
나의 일보다 조직의 일을 중시한다.	46	-	36	47	50	49
직장생활보다는 개인(가정)생활이 더 중요하다.	38	-	41	37	37	36
직장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	50	-	47	51	55	48
직장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을 요구할 때 거절하는 편이다.	21	-	24	21	19	20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43	-	52	43	42	36
앞으로 1년 후에는 내 집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다.	65	58	72	71	66	57
실내장식에 관한 기사나 잡지를 관심있게 본다.	31	29	42	38	29	17
새로 이사를 간다면 가구/실내장식에 투자하고 싶다.	34	44	44	34	25	21
가사일이 어느 정도 희생되더라도 주부가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45	49	42	40	37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주부의 책임이다.	29	21	18	27	34	43
주부가 남편의 월급을 전액 관리하고 있다(기혼자만).	65	-	71	67	67	55
여성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	55	41	48	59	6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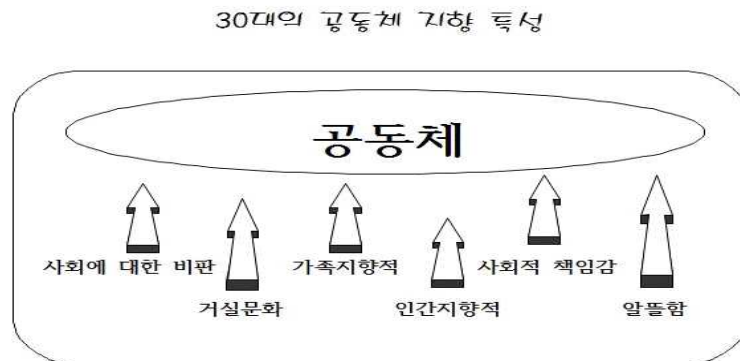
<표 18> 20대의 라이프 스타일

3) 30대 남성[143]

30대의 남성은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이다.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세대로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방향이 잡히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조직의 중간 관리자, 소비와 구매 잠재력이 높은 집단, 가장 혼란스러운 20대를 보낸 세대, 중압감, 일에 몰두, 무서움 없이 덤벼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너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에 몰두하다 보니 친구에게 투자할 시간이 부족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힘들지만 성공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포기할 수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30대 남성의 특징이 있다면,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로, 일과 성공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차 있다. 반면 스트레스도 많고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40대에 비해 사고 면에서 서구화되고 개인화된 경향이 있지만, 감각적인 20대에 비해선 보수적이다. 40대는 자동차보다는 집, 20대는 집보다 자동차, 30대는 집일 수도 자동차일 수도 있다는 절충적이고 모호한 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세대다.

30대의 공동체 지향 특성

공동체
사회에 대한 비판
거실문화
가족지향적
인간지향적
사회적 책임감
알뜰함

<표 19> 30대의 공동체 지향 특성

143하용조, *프로포즈* (서울: 두란노서원, 2008), 12.

(30대들의 Life Style)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75	67	77	78	75	77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78	66	79	82	81	84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다.	53	45	52	58	54	58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64	46	61	73	68	70
우리나라 언론은 언론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11	13	10	9	11	14
지역감정은 사실보다 과장된 것이다.	46	37	50	51	48	45
비싸더라도 환경오염을 덜 시키는 제품을 사겠다.	61	56	61	65	62	62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직업을 가져야 한다.	80	-	79	82	77	80
방이 좁더라도 거실은 넓어야 한다.	49	37	44	57	56	49
좋은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20세 이상만).	51	-	48	57	50	47
가족끼리 외식을 자주 한다.	16	15	14	24	16	9
지금까지 휴가는 주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	53	39	31	74	67	53
옷은 세일기간을 이용해 주로 산다.	58	50	59	65	62	56
대개의 경우 쇼핑하기 전에 목록을 작성한다.	28	19	24	34	31	31
여러 가게를 두루 둘러보고 충분히 비교한 다음 물건을 산다.	48	46	45	48	47	52
귀찮더라도 이왕이면 상품이 많은 곳으로 간다.	67	63	68	69	67	66
위험이 따르더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일해보고 싶다.	35	45	44	35	30	22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싶다.	45	52	52	43	42	36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등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20세 이상만).	56	-	31	63	66	62
값이 비싸도 A/S가 확실한 제품을 선택한다.	64	45	60	71	72	70

<표 20> 30대의 라이프 스타일

4) 30~40대 여성[144]

낀 세대, 방황, 소외감, 채워지지 않는 욕구, 정열과 꿈과 이상을 가진 세대, 안정과 성취를 향하여 나아간다. 또한 맞벌이 부부(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라고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고 맞벌이를 하는 세대이다. 결혼, 골드미스, 피오나 주부(아침과 저녁엔 살림을 하고, 낮에는 취미나 사회활동에 전념), 사회적 지위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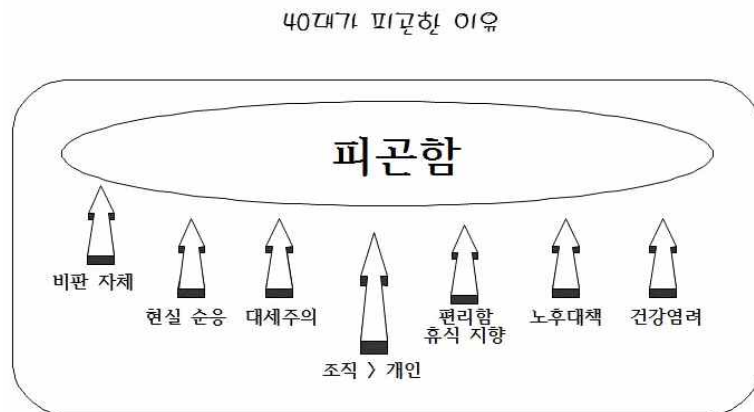
[144]Ibid., 48.

얻는 시기, 고학력 주부.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30~40대 여성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계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결혼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일과 가정 사이에서 늘 갈등하며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방황을 겪는다.

5) 40대 남성[145]

중견 사회인, 동창회, 불혹의 나이, 자신의 한계를 알아 가는 나이, 정체성, 스트레스, 낮은 삶의 만족도, 아저씨 세대, 조기 명퇴 대상자(50대 전에 조기 퇴출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낀 세대), 책임감, 디지털피로증후군, 연봉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40대 남성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디지털 문화에 대한 부적응, 경기불안과 조기 명예퇴직, 능력에 따른 연봉제, 가정과 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스트레스와 피로의 정점을 맛보고 있는 세대다. 이들의 희망은 스트레스와 불안,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리는 것이다.

145Ibid., 102.

<표 21> 40대가 피곤한 이유

(40대들의 Life Style)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75	67	77	78	75	77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78	66	79	82	81	84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다.	53	45	52	58	54	58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64	46	61	73	68	70
우리 정부는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4	23	18	23	29	28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옷을 주로 산다.	65	43	61	71	75	74
혼수는 부끄럽지 않을 정도면 된다.	62	52	60	64	68	65
나의 일보다 조직의 일을 중시한다.	46	-	36	47	50	49
직장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술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	50	-	47	51	55	48
직장동료와 회사 밖에서도 자주 어울리는 편이다.	41	-	42	41	46	35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2	36	51	58	60	55
주거환경이 좋은 곳보다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살고 싶다.	58	55	57	58	62	59
휴가 때 힘들게 여행을 가느니 집에서 편히 쉬고 싶다.	40	34	29	37	45	54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절약을 해야 한다.	68	50	62	73	75	82
여성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 있다.	55	41	48	59	64	64
자녀의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65	-	45	64	74	78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50	34	37	52	59	67
노후보장을 위해 보험가입 등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다(20세 이상만).	56	-	31	63	66	62
비싸더라도 무공해 식품을 사먹는다.	29	15	19	34	38	37
식료품을 살 때 내용물의 성분을 확인해 본다.	34	17	27	42	44	38
인스턴트 식품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한다.	65	46	58	69	74	76

<표 22> 40대의 라이프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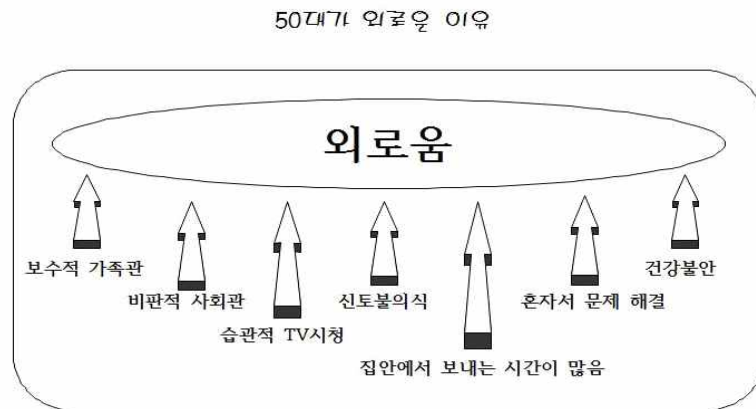
6) 50~60대 여성[146]

주름, 생리적 변화, 무기력, 공짜, 대접받기, 황혼이혼, 자녀들의 독립으로 인한 자아정체성 혼란, 남성에 비해 강함 등으로 이해할 수 있고, 50~60대 여성의 특징

[146]Ibid., 150.

으로는 나이가 들고 갱년기를 지나면서 남성보다 더 강한 면모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없는 무기력감에 빠져 있다.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이 하나둘 독립하고, 사회생활로 바빴던 남편과는 말이 통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력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친구와 놀이를 찾기도 한다.

7) 50대 남성[147]

인생의 전환기, 외로움, 로맨스 갈망, 여자친구, 일탈, 정리 단계, 사회생활의 정점, 육체적 능력 저하, 황혼이혼 등으로 표현될 수 있고, 특징이 있다면, 50대 남성은 퇴직, 건강 약화, 자신감 상실,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해야 하는 이중 부담, 아내의 발언권 강화 등으로 자아 상실감이 고조되는 시기다. 따라서 이들에게 남자로서의 용기와 자부심, 살아 온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남은 25여 년 간의 삶을 적극적이고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표 23> 50대가 외로운 이유

---

[147]Ibid., 200.

(50대들의 Life Style)

	전체 평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성공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75	67	77	78	75	77
우리나라는 돈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되어 있다.	78	66	79	82	81	84
우리 사회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보게 되어 있다.	53	45	52	58	54	58
세금을 너무 많이 내고 있다.	64	46	61	73	68	70
가사일이 어느 정도 희생되더라도 주부가 직업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45	49	42	40	37
맞벌이를 하더라도 집안일은 주부의 책임이다.	29	21	18	27	34	43
아들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47	21	35	47	59	74
어떤 경우라도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50	34	37	52	59	67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42	27	27	44	54	59
자녀의 성공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65	-	45	64	74	78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53	55	53	44	54	60
부모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	28	20	20	26	34	38
밥을 먹어야 제대로 식사한 느낌이 든다.	72	48	63	76	83	91
커피보다 전통차를 즐겨 마신다.	26	15	20	23	31	40
아름다워질 수 있다면 성형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다.	19	23	23	19	17	11
유행에 민감하지 않은 옷을 주로 산다.	65	43	61	71	75	74
디자인이 좋은 옷보다는 활동하기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	65	48	61	69	72	73
온돌보다는 침대가 좋다.	37	64	49	39	23	12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에 살고 싶다.	53	46	45	48	58	69
나는 문제가 생기면 혼자 해결한다.	43	30	43	46	48	49
주말이나 휴일은 주로 집 밖에서 즐긴다.	34	38	47	33	27	23
지금까지 휴가는 주로 가족과 함께 보냈다.	53	39	31	74	67	53
가족끼리 외식을 자주 한다.	16	15	14	24	16	9
직장동료와 회사 밖에서도 자주 어울리는 편이다.	41	-	42	41	46	35
가능한 한 시간 외 근무는 하지 않는다.	37	-	40	29	40	40
몸이 아파도 일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56	-	51	58	60	55
TV를 보는 것은 시간 낭비다.	11	10	11	13	13	8
세상에 대한 정보를 주로 TV를 통해 얻는다.	58	57	53	55	59	68
마땅히 볼 프로그램이 없어도 습관적으로 TV를 켜놓는다.	47	51	49	43	43	50
나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47	61	51	46	44	35
건강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다.	39	32	34	38	43	50
건강을 위해 음식을 가려 먹는다.	22	12	13	21	25	38
건강식품을 애용한다.	17	11	10	15	22	29
건강을 위해 영양제나 보약을 먹는다.	19	12	9	17	24	34

<표 24> 50대의 라이프 스타일

8) 60대 남성 이후[148]

---

[148]Ibid., 242.

60대 이상의 남성은 노후문제, 물가고, 세금, 등산, 불안, 집, 접힌 세대, 고독, 자식들과의 불화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인생의 시기이다. 특징으로는 60대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살아 온 고단한 세대이며, 노후에 대한 아무런 대칙 없이 자식들에게만 희생해 온 세대다. 이들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은 돈으로 15년 이상을 고단하게 살아가야 하는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평안이다.

4. 멀티미디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문자 이후 시대를 넘어 우리는 멀티미디어 문화, 영상 매체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대 새로운 환경의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멀티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결국 멀티미디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 멀티미디어의 정의

멀티미디어(Multi-media)란 multi(복합 다양함)와 media(매체)의 합성어로 다중 매체 또는 복합 매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멀티미디어의 개념은 너무나 다양하여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넓은 의미에서 멀티미디어란 인간의 의사 소통의 여러 수단, 즉 음성, 영상, 그림, 문자 등을 통합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음성이나 영상, 그림, 문자 등의 여러 가지 미디어를 모아서 하나로 통합한 것이 멀티미

디어이다. 반면에 좁은 의미의 멀티미디어란 음성, 영상, 문자 등의 다양한 미디어를 컴퓨터라는 하나의 매체에 통합하여 상호 작용성, 즉 대화성 등의 총체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의한다.[149]

2) 멀티미디어 시대 청중의 특징

리차드 젠센(Richard Jensen) 교수는 우리는 문자 이후 시대에 살고 있으며, 영상매체가 '읽는 문화(reading culture)' 를 대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는 변화된 회중의 상태를 인식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1990년대의 회중은 변화되었는데 설교자들은 회중들이 아직도 읽는 문화에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메시지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젠센(Jensen)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회 안의 위기는 신속하게 다가오는 전자통신(Electronic Communications)의 세계를 인식하고 적응하지 못한데 있다. 사람들은 미디어에 의하여 변화되었다. 변화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교회는 변화된 방법으로 말씀을 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늦게 교회에 들어오고 있다 …… 사람들이 미디어에 의하여 변화되었으므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설교는 중대한 변화를 거쳐야할 것이다.[150]

마이클 로그네스(Michael Rogness)는 영상매체 시대의 회중들의 특성을 몇 가지로 말하고 있다.[151]

첫째,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시각적인 세대(Visual Generation)' 이다.

---

[149]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173~4.

[150]Richard Jensen, *Thinking in Story* (Lima, Ohio: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3), 45~6.

[151]Michael Rogness, *Preaching to a TV Generatin* (Lima, Ohio: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4), 23~32. 참조.

둘째,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정보를 바이트(Bytes)나 인상(Impression)에 의하여 받는다. 청중들은 메시지를 바이트와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에 의하여 받아들인다.

셋째, 멀티미디어 시대의 회중은 즐겁게 되기를 원한다.

월터 브르거만 교수(Walter Brueggeman)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기에 그들의 귀에 단조롭게만 들리는 공허한 내용이 되었다고 말한다. 설교가 갱신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산문의 세계에서 벗어나 시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월터 브르거만(Walter Brueggeman) 교수는 설교 갱신의 가능성을 다른 형태의 설교를 개발하는 것, 즉 극적이며, 상상력과 은유가 풍요롭고 다채로운 언어와 회중을 초청하여 참여케 하는 스토리 세계의 언어로 개발하는 것에 두고 있다.[152]

리차드 젠센(Richard Jensen) 교수도 인쇄매체 시대의 특징인 아이디어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은유와 이미지, 스토리로 생각하는 틀로 바꾸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를 주장하고 있다.[153]

---

[152]Walter Brueggemann, *Finally Comes the Poet* (Philadelphia: Fortress, 1989), 1~3.

[153]Richard Jensen, *Thinking in Story,* 10.

V. 연구 조사 질문(Research Questions)

1. 성서적 접근

1) 들려지지 않는 설교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 설교와 설교자, 청중에 대한 이해를 통해 그 중요성과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성경적, 복음적 설교의 부재를 들 수가 있다.

금세기 설교신학의 최고 이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자 데이비드 버트릭(David Buttrick)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위임하신 복음전파 명령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중하고 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책은 그의 저서, *"A Captive Voice: The Liveration of Preaching"*에서 설교와 성경의 관계 속에서 성경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어지며 받아들여져야 할지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식하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또한, 그는 '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에 대한 회상을 가능케 하는 이야기를 탐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154]

그러면서 그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임을 강조한다.[155]

---

[154]David Buttrick, *A Captive Voice: The Liveration of Preaching,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 김운용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50.

[155]Ibid., 68.

따라서 성경과 설교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그 가치와 진위가 결정된다. 설교나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만약 설교가 복음적이지 못하고, 성경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아닌 것이다.

2) 성경적, 복음적 설교의 부재

본 회퍼(D. Bonhoeffer)가 들려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면 보다 더 오늘의 시대 속에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본 회퍼는 은혜를 귀중한 은혜(costly grace)와 값싼 은혜(cheap grace)로 대비한다. 여기서 값싼 은혜는 물건을 싸구려로 팔아 버리듯이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쉽게 넘겨 버리는 은혜를 말한다. 이 값싼 은혜는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으니 교회가 이 은혜를 값없이 무한정 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다.[156]

본 회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한다.

>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값싸게 대하는 교회와 목사, 혹은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목사로서 철저한 회개 없는 죄 사함을 설교하는 것, 죄의 고백 없이 베푸는 성만찬, 십자가 없는 은혜의 선포, 합당하지 않은 축복은 모두 은혜를 값싸게 만든다. 교인들로서는 자신의 삶의 변화와 회개함과 죄책에 대한 고백 없이 은혜와 축복만을 요구한다면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된다.[157]

결국 이러한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

---

[156]김동건, *현대 신학의 흐름: 계시와 응답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49.

[157]Ibid., 350.

들에게 허락하신 값비싼 은총이었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와 회개함과 직책에 대한 고백 없이 은혜와 축복만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오늘 우리 시대의 설교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복음적이지 못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보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앙과 문화 사이의 긴장 관계는 항상 존재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관계 속에서 설교는 믿음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박형용 교수는 그의 책, "성경해석의 원리" 에서 성서적 관점 안에서의 성경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고대의 문서든 현대의 문서든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도 마땅히 해석되어야 한다. 성경 해석의 필요성은 성경 자체의 계시로서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즉,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성경 해석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경 계시는 무엇인가? 성경 계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일, 지금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밝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성경 해석의 필요성이 있다.[158]

그의 견해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3) 성경적, 복음적 설교의 시도

[158]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9), 27.

에드윈 다간(Edwin C. Dargan)그의 명저, *설교의 역사(A History of Preaching)*에서 "설교는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적인(Essential) 부분이며, 가장 두드러진(Distinguished) 특징"이고, '가장 독특한 제도' 라고 했다. 또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위대한 부흥은 언제나 힘 있는 말씀의 강단에서부터 비롯" 되었으며, 여러 가지 면에서 암흑기를 경험한 것도 역시 "생명력 없고, 형식적이며, 열매 없는 설교로부터 나왔다." 라고 주장한다.[159]

지리적으로, 수적으로 기독교가 널리 펼쳐진 것은 설교 사역을 통해서였다. 말씀 선포가 강력하게 진행되는 곳에는 말씀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이 뒤따랐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설교는 기독교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사역이었으며,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고, 사역을 힘 있게 하는 교회 부흥의 동인이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설교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확실성(Authenticity)을 보장하는 가장 필요한 부분을 잃어버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본질에 있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 (A Religion of the Word of God)이기 때문이다.[160]

성경적인 설교의 시도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있어서 성경적인 설교인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성경적인 설교란 '성경이 설교에 얼마나 많이 사용되었고 인용되었는냐' 가 아니다. 또는 설교자가 '얼마나 성경에 관하여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의 문제도 아니다. 성경적인 설교란 본문의 내용과 기능이 설교에 잘 반영되는 설교이다. 예일대학의 리더 캑크(Leader

---

[159]Edwin C. Dargan, *A History of Preaching: From the Apostolic Fathers to the Great Reformers,* AD 70-1572, vol. 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8), 12~3, 552.

[160]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100.

Keck) 교수는 성경적 설교란 “성경이 설교의 내용을 지배(Govern)하고 설교의 기능이 본문의 기능과 유사한(Analogous) 설교”[161]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속에서 성경적인 설교에 주목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설교이다. 성경적인 설교는 그 내용(Content)에서 인본주의적이 아니고 신본주의적(Theocentric)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관심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과 사건이 실려 있지만, 성경의 중심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의 목적은 인간의 이야기를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를 말하고자 함이다. 구약의 족장들의 이야기(Narrative)에서도 족장들의 삶 자체가 성경의 중요 관심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이 성경의 중요 관심사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신학과 설교는 항상 신학-인류학(Theo-anthropology)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162] 신학은 물론 설교도 하나님과 인간을 말해야 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말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목적이 인간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말하려는 것이기에 우리의 설교도 신본주의적인 설교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이다.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란 하나님 중심의 설교가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강조되는 설교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사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성취를 증거하는 책이다. 따라서 구약의 본문은 구약의 지평(Horizon) 안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넓은 지평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설교되어져야 한다.[163]

---

[161]Leader R. Keck, *The Bible in the Pulpit* (Nashville: Abingdon, 1981), 106.

[162]Karl Barth,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3), 12.

[163]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43.

셋째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는 관점이다. 성경적 설교자는 언제나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성경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64] 많은 설교자들이 구약을 외면한 채 신약만을 설교의 본문(Text)으로 택하는 경향은 모두 말씀의 전체성을 외면한 행위라고 하겠다. 성경을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늘날 설교의 원천으로서 똑같은 비중과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설교의 본문(Text)으로 택해야 한다.[165]

넷째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서의 설교이다. 성경적인 설교란 내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Good news)이 되어야 한다. 스위스 바젤 대학의 하인리히 오트(Heinrich Ott) 교수에 의하면 성경적 설교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한다. 먼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즉, 죄로 인한 절망과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되는 요소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설교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66]

설교에서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멸망과 심판만을 강조하여 회중으로 하여금 더욱 더 절망만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 즉, 구원의 기쁜 소식의 삶의 상황(Context) 안에서 죄가 지적되고 회개가 요청되어야 성경적인 설교라고 오트 교수는 말한다.

다섯째는 현재적 의미를 부여하는 설교이다. 성경적 설교의 메시지는 현재적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말씀의 생명력은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의 새로운 결단의 발생을 항상 추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있는 과거로부터 오늘의

---

[164]John Knox, *The Integrity of Preach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42.

[165]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103.

[166]Heinrich Ott, *Theology and Preaching*, 53.

활기찬 응답을 촉구하는 현재적 사건으로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과거의 사건을 전달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현재성에 초점을 두어 말씀을 전달해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실감하게 되어야 한다.[167]

여섯째는 목양적인(Pastoral) 면과 예언자적인(Prophetic) 요소가 통합된 설교이다. 우리는 흔히 예언자적인 사역과 목양적인 사역을 분리하여 생각할 때가 많다. 예언자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은 사회, 경제, 정치제도의 개혁에 대한 관심이 깊다. 그래서 개인의 영혼구원에 더 관심을 가진 목회자를 의식화되지 못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목회자로 속단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목양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은 예언자적인 목회를 하는 분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 버린다. 하지만 목양적 사역과 예언자적 사역을 구분된 두 영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목회사역 안에서 하나의 통합된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

월터 브르거만(Walter Brueggemann) 교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Trouble makers)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한 비전에 비추어 이스라엘의 역사적 유산과 모세의 신앙전통을 지키며 보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예언자들의 임무는 불의와 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양육하고, 배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바로의 전제제도 하에서 억압을 당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자유의 세계를 그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 세계에 대한 비전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켰다는 것이다.[168] 이와 같이 성경적인 설교는 목양적인 설교와 예언자적인 설교가 이원화 되는 것이 아니라 목양적인 요소와 예언자적인 요소가 통합된 설교이어야 한다.

복음적인 설교의 시도

---

[167]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103.

[168]Walter Brueggemann,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78), 13.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이다. 존 로빈슨(John A. T. Robinson)은 그의 책 *“신에게 솔직히”* 라는 책에서 디트리히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의 말을 인용하여 점점 더 증대되고 있는 세속화의 과정과 인간이 신 없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169]라는 질문을 재차 던져 주었다. 이러한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전하느냐’ 하는 문제는 늘 변하는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핵심 주제로 떠올랐다.

워렌 위어스비(Warren W. Wiersbe)는 그의 책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상상이 담긴 설교)”* 에서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모든 설교는 복음적이어야 한다. 설교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설교의 목적과 의도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설교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이다. 본문과 주제가 어떤 것이든,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170]

위어스비는 복음적인 설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다. 사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 시대 복음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복음의 능력을 많이 상실한 시대이기도 하다. 디트리히 본 회퍼(Dietrich Bonhoeffer)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메시지를 남겼다.

>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 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

[169]John A. T. Robinson, *신에게 솔직히,* 현영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97.

[170]Warren W. Wiersbe,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3), 243.

> 우리의 싸움은 은혜를 귀하게 얻으려는 싸움이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로 팔아 버리는 상품과 같은 것으로 억지로 내맡기는 죄의 사유요 위로요 성만찬이다. 무진장한 식료품 창고에서 물품을 내오듯이 생각 없이 교회에서 털어 내는 은혜를 뜻한다. 값도 대가도 없는 은혜이다. 이것을 은혜의 본질이라고 한다. 은혜의 대가는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공짜라는 것이다.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를 생각해서라도 무엇이나 거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불된 대가는 무한하기 때문에 소비와 낭비도 무한한 것이다. 공짜가 아니라면 무엇이 은혜라는 말인가? 값싼 은혜라 함은 교훈과 원리를 체계 같은 은혜를 말한다. 죄의 사유는 보편적 진리라 했다. 이것이 사실임을 시인하는 자는 이미 죄의 사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은혜론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는 은혜의 흡족한 옳은 교회라 하였다. 세상은 죄를 뉘우칠 필요도, 죄에서 해방되기를 애걸할 필요도 없다. 이 은혜의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덮어 감출 뚜껑을 얼마든지 싸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값싼 은혜는 하나님의 산 말씀의 부정이며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에 대한 부정이다.[171]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성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학이나 사상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서가 증언하는 복음을 전달하기 위하여 강단에 선다. 설교가 복음의 선포가 아닌 목회자의 지시 전달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선포이다. 여기서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다.[172] 전통적 설교학은 설교에 대한 정의 방법, 형태에 관한 연구에 전념하면서 설교의 내용을 신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종교 개혁자들의 유산인 칭의론을 설교의 내용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천당 간다.'를 복음의 내용으로 선포하였다. 물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주제이다.

둘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이다. 복음의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예수가 선포한 복음은 구별되어야 한다. 예수는 자기 자신에 관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171]Dietrich Bonhoeffer, *나를 따르라,* 허 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24.

[172]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72.

이다(막 1:14~15).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설교), 이를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으며(교육), 병든 사람들을 고침으로(치유)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 주었다(마 4:23). 그의 설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목표로 하였다(마 9:36). 그리고 예수는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교하라고 명령하였고, 그들에게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임하였다(마 10:5~8).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행 2:22~24)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음을(벧후 3:12~13), 바울은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고전 15:20~25, 행 19:8), 요한은 천년왕국을(계 20:1~6) 강조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파루시아와 함께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론적 희망으로 살아야 한다." 고 선포하였다.[173]

그러나 현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설교의 핵심이 아니라 장식품으로 만들었다. 313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 기독교가 국가 종교로 공인되면서 설교의 핵심이 예수가 선포한 복음에서 예수에 관한 복음으로 변질되었다. 현실에 안주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 역동성을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세기의 암흑기를 지나면서 설교는 그 생명력을 상실했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 교회의 의식에 치우친 예배를 갱신하여 말씀과 성례전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였지만, 설교의 내용을 칭의론에 한정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 나라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복음은 소종파들(토마스 뮌쳐와 재세례파)의 전유물이 되었다. 종교 개혁자들은 "설교의 바른 정신과 그 방향을 정립" 하였다기보다는[174] 설교의 내용을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예수에 관한 복음으로 변질시켰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부록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설교의 전형이 되어 현대 설교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한국교회의 설교의 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종말론적

---

[173]Ibid., 73.

[174]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57.

설교보다는 칭의론에 근거한 ‘구원의 길과 영생’에 치중되어 있다.[175]

그러므로 설교의 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위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다시 설교의 내용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초기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를 ‘새 하늘과 새 땅’의 희망으로 수용했으며, 그들의 메시지는 종말 신앙에 근거한 회개와 희망이었다. 길선주 목사는 종말신앙을 강조했고, 김익두 목사는 신유를 통하여 종말신앙을 사건화했으며, 이성봉 목사는 사중복음을 통해서 종말신앙을 체계화했다. 이런 한국교회의 설교 전통은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 설교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 나라이다. 종말론적 설교는 설교의 위기를 극복한다.[176]

2. 신학적 접근

1) 변화되지 않는 청중

어느 유명한 컬럼니스트는 한 일간지에서 ‘국민성을 바꾸라’고 대통령에게 주문했다. 그는 우리 민족의 국민성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유료 쓰레기 봉투 값을 아끼느라 쓰레기를 자기 집 앞 골목이나 큰길에 내버리는 이들이 있다. 공공 화장실에 두루마리 휴지를 걸어 놓으면 이용자들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휴지가 남아나지 않는다. 심지어는 공원에 심어 놓은 예쁜 꽃나무를 뽑아 가서 자기 집 마당에 심는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다. 이런 비사회적이고 이기적인 국민들로서는 건전한 공동체나 시민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직 자신과 자기 가정만 생각할 뿐,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고려할 능력이 없는 민족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으므로 국민성이 개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지

---

[175]Ibid., 92~3. 참조.

[176]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74.

였다.[177]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에는 현재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가 약 5만 개가 넘는다. 그리고 수만 명의 설교자들이 있다. 그 많은 설교자들이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한국인들의 국민성은 변화되지 않는가? 한국처럼 설교가 자주 행해지는 나라는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그처럼 많은 설교가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 경제 ·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 부정부패와 낮은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영성신학자인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그의 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In the Name of Jesus)"* 에서 목회자들의 고민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고통은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됩니다.[178]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아주 바쁘게 보내지만 그들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별성과가 없는 듯 보입니다. 출석 교인들은 점점 줄어드는 현실이며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 가정 생활 상담자나 의사들이 목회자 자신들보다 더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을 자주 보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게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들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목사나 신부가 되거나 그런 신분에 있다는 것은 더 이상 생명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칭찬의 소리는 거의 없고, 비판의 소리만 가득 차 있는데 그 누가 의기 소침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179]

---

[177]양낙홍,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한국 신학교육의 개혁,* 35.

[178]Henri J. M.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두란도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22.

이러한 사실은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목회자, 설교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계속 성직에 남아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회의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2) 균형잡히지 못한 설교 내용과 신학적 설교의 부재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설교학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감동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균형잡히지 못한 설교 내용과 신학적 설교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양낙흥 교수는 변화되지 않는 청중의 문제를 설교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말은 한국의 설교자들이 이단 교리를 전한다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듯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주로 복음의 일부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복음의 전모를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설교자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은 하나님의 복, 선하심, 사랑, 능력과 같은 소위 은혜의 측면들이다. 반면 한국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과 같은 소위 율법의 측면들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만이 아니라 율법으로도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강단은 은혜만을 강조하고 윤리는 간과하고 있다.[180]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

---

[179]Ibid., 22~3.

[180]양낙흥,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한국 신학교육의 개혁,* 42.

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 두 부분 사이에서의 균형 잡힌 설교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전자만 설교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설교자들은 죄에 대해서 설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대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 설교하기를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한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 설교자들은 죄, 특히 사회적 죄에 관한 설교 대신 사랑, 은혜, 용서에 대해서만 설교한다. 죄로 인해 아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복음의 설교자로서 합당한 일인가? 본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죄로 인해 아파하거나 고통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찰스 피니(Charles G. Finney)는 그의 저서 *"Principles of Victory"* [181]라는 책에서 설교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인기 위주의 설교임을 역설하고 있다.

첫째, 당신의 지상의 동기가 구원보다는 인기가 되게 하라.

둘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교인들을 즐겁게 하고 좋은 평을 듣기 위해 연구하라.

셋째, 대중을 끄는 인기 있고, 선정적인 주제를 택하고, 구원의 본질적 교리들은 피하라.

넷째, 죄를 추상적으로 비난하고 당신의 교인들 사이에 만연된 죄들은 가볍게 넘어가라.

다섯째, 덕의 사랑스러움과 천국의 영광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죄의 죄됨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

여섯째, 결석한 자의 죄들만 책망하고 출석한 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만족하게 해서 그들이 설교를 즐기고 절대 감정이 상한 채로 돌아가지 않게 하라.

---

[181]Charles G. Finney, *Principles of Victory,* Compiled & Edited by L. G. Parkharst. Jr. (Bethany House Publishers), 13.

일곱째, 세상적인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설사 지옥이 있다 더라도 아무도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주라.

여덟째, 하나님의 우주적 아버지 되심과 인간의 형제 됨을 설교해서 그들에게 어떤 중생도 필요치 않음을 보여 주라.

3) 균형 잡힌 설교의 시도와 신학적 성찰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한다. 이것은 청중이 듣기 좋아 한다고 해서 복음의 어느 한 부분만을 전하지 말고, 교리와 윤리, 은혜와 율법, 하나님의 권능(주권)과 인간의 책임 등 양자 모두를 가르쳐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청중들이 좋아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만을 전하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영혼들에게 해가 될 것이고, 변화되지 못하는 청중의 양산과 더불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 없는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우리의 사회는 심각한 도덕성의 상실과 빈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헨리 나우웬(Henri J. M. Nouwen)은 신학적 성찰에 대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진정한 신학은 거의 가르치지 않고 심리학이나 사회학과 같은 행동 과학이 지배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성경적 용어로 포장된 심리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질문들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진정한 신학적 사고, 즉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온 사고는 실제 사역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음을 꼬집는 말이다. 그리고 견고한 신학적 성찰이 없이는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 사업가의 아류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에서 일하시는지,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공동체적, 국가적, 세계적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부활로 인도되는 방법들에 더욱 더 민감해질 수 있는지 순간순간 분별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 미래의 기독교 지도자의 과제는 자신들이 처한 시대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그만 기여를 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광야를 거쳐 자유의 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방법들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개인적 투쟁, 가족 간의 갈등, 국가적 재난, 국제 관계의 긴장 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재적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답변해야 한다는 힘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운명론, 패배주의, 우연론, 혹은 통계학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고 믿게끔 만드는 자연 발생론 등에 대해서 반드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인생을 순전히 행운이냐 악운이냐로 보는 모든 형태의 절망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고난, 죽음 등과 같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때 사람들은 체념이나 냉정한 무관심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어떤 감상적인 시도에 대해서도 반드시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세속적인 세계를 향하여 반드시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모든 만물을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이 인류 역사의 가장 작은 일까지도 카이로스(Kairos)로, 즉 그리스도의 가슴속으로 우리를 깊숙이 인도해 주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한 목소리로 선포해야 합니다.[182]

결국 신학적으로 성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고통과 기쁨의 현실들을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의식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인도하심을 아는 데까지 끌어올려 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3. 심리적 접근

1) 고독한 청중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고독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계적인 상담심리학자인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는 그의 책

---

[182]Henri J. M. Nouwen,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65~6.

"*Escape from Loneliness(고독)*" 이라는 책에서 고독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에 대해서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고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고독이라는 감정이 신경질적이고 위축된 사람에게만 생긴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고독감은 특별한 개인적 사건이 될 뿐이다. 고독감은 만연되어 있으며 그것은 우리 시대의 정신이 낳은 결과인데도 말이다.[183]

트루니에의 관점을 빌린다면, 고독이라는 것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시대의 정신이 낳은 결과물임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은 현대의 사회는 도시 문화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의 삶은 더욱 편리함과 삶의 질을 위해 농어촌에서 도시로 몰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치열한 생존경쟁과 철저한 이윤 중심의 사회는 사람들을 한 쪽 귀퉁이로 몰고 간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트루니에의 관점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현대인의 고독감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 예민한 사람, 신경과민인 사람들만의 증세라고만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도자나 엘리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독감에 몸부림치며 또 그것을 이겨내려고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며 살고 있다.

빅터 E. 플랭클(Victor E. Flankle)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에서 그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로고테라피(Logotheraphy), 즉, 의미 요법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바뀌어질 수 없는 운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조차도 삶에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인간의 잠재 능력을 최고의 상태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한 개인의 비극을 승리로 바꾸고, 한 사람의 곤경

---

[183]Paul Tournier, *Escape from Loneliness, 고독,* 윤경남 역 (서울: IVP, 1998), 21.

을 인간적인 성취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수술이 불가능한 암 같은 불치병을 생각해 보자-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키려 한다.[184]

이 말은 인간 삶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이러한 현상 속에서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관점이다. 매우 의미 있는 주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과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된다.

데이빗 A. 씨멘스(David A. Seamands) 같은 경우도 그의 책 "*Healing for Damaged Emotions(상한 감정의 치유)*"[185]에서 현대인들의 상처 난 감정들을 잘 다루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낮은 자존감, 압박감, 불안, 분노, 연약함, 우울증 등 정서적인 상처들과 감정적인 문제들, 내적 갈등의 양상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2) 청중의 상황 심리 이해 부족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연적 교회 성장' 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그의 책에서 교회 공동체의 질적 성장을 위한 조사를 했다. 그 조사에서 그는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들은 정체해 있거나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사랑 지수' 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석과도 같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입으로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전도 프로그램에 비해 훨씬 효

---

[184]Victor E. Flankle,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소민 역 (서울: 제일출판사, 1996), 139.

[185]David A. Seamands,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2010), 24.

과적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는지 경험하기를 원한다. 교회가 방법 지향적이 되면 될수록,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는 더 어려워진다. 방법 지향적 사고방식은 믿는 자의 삶을 일차적으로 교회와 도덕 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186]

즉, 교회 공동체는 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과 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비 콕스(H. Cox)는 그의 책 *"세속 도시"* 에서 교회의 봉사적 기능을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 이라고 한다. 그는 '디아코니아' 를 단지 '봉사' 라는 말로 번역하기를 싫어한다. 오히려 콕스는 '디아코니아' 라는 말은 병을 치유하거나 분열과 갈등을 화해시키고 상처를 꿰매고, 갈라진 것을 합치게 하여 유기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교회의 봉사적 기능을 말해주는 성서적 근거로,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를 들고 있다. 하비 콕스는 도시의 상처를 중심도시 대 교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민족과 인종간의 갈등, 각 정당간의 경쟁 등이라고 진단한다. 교회란 이 같은 도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종으로서, 치유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187]

디아코니아가 '도시의 상처를 치유한다' 는 콕스의 시각으로 우리 주위를 보면, 치유 받아야 할 대상이 너무 많다. 상처투성인 개인과 집단과 우리 사회와 민족 현실이 있다. 생의 위기에 처한 인간, 즉 가난과 질병, 배척과 사별로 인한 슬픔,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생의 낭패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 도시와 농어산촌간의 심한 격차, 교회의 분열과 갈등, 노사간의 갈등, 청소년의 범죄, 노인들의 문제, 공해 문제, 교통 지옥 등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상처이며 아픔이

---

[186]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36.

[187]Harvey. Cox, *세속 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53~166. 참조.

다. 여기에 교회가 봉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설교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현실, 특별히 고독한 청중들의 삶의 환경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을 통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의 삶에 항상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한 복음적 위로는 오늘날의 청중들로 하여금 회복과 치유함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3) 치유적인 설교의 시도

롤로 메이(Rollo May)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어려운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아무도 어쩔 수 없는 무거운 문제가 되었다. 종교는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사람들은 정박할 곳 없는 배처럼 표류하고 있다. 개인 정체를 획득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고 심각하다."[188] 롤로 메이의 관점대로라면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인으로 인식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모른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회복과 치유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폴 틸리히(Paul Tillich)의 "*문화의 신학(Theology of Culture)*"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는 인간의 곤경을 이해하는 인간의 메시지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불안, 갈등, 죄의식의 구조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우리 안에 있다. 이러한 구조들은 우리의 존재를 반영해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것이다. 우리의 입장이 옳다면, 그 구조는 다른 사람들 속에도 있다.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그들에게 제시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들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을 치켜드는 것과 같을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무도 모른

[188]Howard J. Clinebell, *Pastor and Parish: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U.S.A: Fortress Press, 1981), 19.

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모험이다.[189]

폴 틸리히는 인간의 환경적이고도 상황적인 한계를 놓치지 않았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쩌면 고통받고 상처받으며 고독한 오늘의 청중들을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회복, 치유함을 경험시키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회의 사명적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대위임, 마28:18~20)" 과 제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계명(대계명, 마22:37~40)" 의 말씀, 즉 교회의 사명을 허락하셨다.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요약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190]

>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191]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192]

---

[189]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문화의 신학,* 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09~10.

[190]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회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118.

[191]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52~3.

[192]Ibid., 38.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에서 세 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전도/선교(가서 제자를 삼고), 교제/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됨(세례를 주고), 제자훈련/양육(가르쳐 지키게 하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에서는 두 가지의 교회의 사명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예배(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와 봉사/섬김(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과 대계명의 말씀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예배이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분을 예배함으로써 표현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즉,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며 그 분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삶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다. 둘째는 봉사와 섬김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는 섬김을 위해 존재한다. 셋째는, 선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넷째는, 교제이다. 세례는 구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을 시각적으로 공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세례는 하나님의 가족의 교제를 상징한다.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위대한 명령의 말씀은 교회의 사명이 교제에 있음을 말해 준다. 다섯째는, 제자훈련과 양육이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그들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교육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한다.[193]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에 대한 교회의 활동은 사도행전에서 발견된다.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교회사역의 전형적인 활동들이 되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케리그마

[193]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120~124. 참조.

(kerygma), 가르치는 활동인 디다케(didache),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예수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전(leiturgia), 공동체성(교제)을 지닌 코이노니아(koinonia),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디아코니아(diakonia)가 그것이다.[194]

결국 교회의 사명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치유적 설교의 시도는 교회의 다섯 가지 사명의 큰 틀 안에서 철저히 청중의 상황으로 말씀이 연결되어야 한다.

임정석 목사는 그의 논문에서 교육 목회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프락시스(Praxis)에 대해서 설명한다. 즉, 그리스도의 프락시스를 치유와 소망의 관점에서 그는 설명한다.

> 그리스도 프락시스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허물과 단점을 치유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치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하여 사단으로 말미암은 죄와 허물을 치유하며, 나아가 원죄로 말미암은 인간의 단점을 치유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195]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프락시스는 죄사함과 자유, 해방과 능력부여로 인간에게 다가오셨음을 강조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한 남성에서, 한 유대인으로 존재하였지만,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만에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모든 제한에서 온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유대인이 아니며, 한 남성이 아니다. 그동안 이 세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차별이었다. 여기에는 인종간의 차별,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지식인과 비지식인의 차별, 등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셨고, 이 회복과 치유함

---

[194]Maria Harris,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21.

[195]임정석, *교육목회 방안에 대한 연구*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1999), 83~84. 참조.

과 해방의 소식은 복음의 주제가 될 수 있다.[196]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그리스도의 프락시스를 이해하고 우리의 환경(Context)은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Text)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성도의 공동생활"* 이라는 책에서도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 그는 공동생활 가운데 신자의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삶을 사는 동시에 육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197] 그래서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한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198]

계속해서 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의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구원과 의를 스스로 얻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고 죽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됩니다." [199]

본회퍼(Bonhoeffer)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구체적이고도 소중한 은혜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이 말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는 방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196]Ibid., 85~6. 참조.

[197]Dietrich. Bonhoeffer,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2.

[198]Ibid., 24.

[199]Ibid., 24~25.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추상적(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는 여기서 '현실' 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이상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형제의 사귐은 심적 현실이 아니고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200]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에 있어서도 현대를 살아가는 청중들에게 그것은 구체적인 사건으로서, 현존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치유적인 설교의 시도는 결국 청중의 '현실' 적 상황을 이해하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실은 불완전하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청중들의 삶을 지배할 때, 참된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있다.

4. 문화사회적 접근

1) 설교자와 청중간의 소통의 단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는 '소통(Communication)' 이라는 단어이다. 이 단어는 교회뿐만 아니라 각 개인과 가정, 사회 모든 공동체에서 요구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소통' 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으로 정의하고 있다.[201]

그렇다면, 문화사회적 접근에 있어서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바로 설교자와 청중간의 소통의 단절 문제이다.

---

[200]Ibid., 31.

[201]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22293000&query1=A022293000#A022293000

헬무트 틸리케(Helmut Thielicke)는 1965년 저술한 책,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Leiden an der Kirche. Ein pers□nliches Wort)”* 에서 현대 서구의 설교 현장을 위기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실로 설교 그 자체가 시들어가고 붕괴되고 있으며, 사멸의 단계에 와 있다.” [202]라고 말했다.

또한 하비 콕스(Harvey Cox)도 그의 책 *“세속 도시(Secular City)”* 에서 “오늘날의 설교는 힘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현실과 맞부딪치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부르는 어조가 듣고서 달려가고 싶은 간절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교의 쇠퇴와 위기를 지적하고 있다.[203]

뿐만 아니라 일찍이 *“텅빈 강당(The Empty Pulpit)”* 이라는 책에서 설교의 위기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 클라이드 라이드(Clyde Leid)는 설교 현장에 가해지는 이러한 비판을 정리하여 일곱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설교자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말이나 고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는 오늘의 설교는 대게 싫증이 나고 지루하며 재미가 없다.

셋째는 오늘의 설교는 대부분 듣는 사람의 형편과 무관하다.

넷째는 요즈음의 설교는 과감한 설교가 못 된다. 급변하는 오늘의 세상에 적용되는 메시지를 주려면 그 메시지가 때로는 고무적이고 위로의 성격을 띄기도 해야겠지만, 때로는 도전적이고 심령을 뒤엎는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다섯째는 오늘의 설교는 상호 전달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설교자가 전하려는 내용이 아주 빈약하게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오늘의 설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설교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이 되게 하는 독특한 힘이 없다는 것이다.

---

[202]Helmut Thielicke,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9.

[203]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404.

일곱째 이제까지 설교가 너무 강조되어 왔다.[204]

이러한 사실은 동시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 우리 시대 목회의 현장 역시 과거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변화 되고 다원화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사실들은 설교의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에 있어서 큰 도전을 던져 주고 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늘의 설교가 현대의 청중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의 이해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2)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해 부족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커뮤니케이션은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205]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현대에 와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그 연구 영역과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 내려지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의 어원은 본래 '공통' 또는 '공유하다' 혹은 '나누어 갖는다.' 는 의미를 지닌 라틴어 "Communicare" 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단어는 성찬(Lord' Supper)과 어떤 행위나 상황을 공유한다는 두 가지를 지칭하는 크리스천적 의미에의 이중성을 지닌 "Communion" 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206]

---

[204]Clyde Reid, *The Empty Pulpit,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0~29. 참조.

[205]최창섭,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과 신학교육* (서울: 전국신학대학협의회, 1991), 1~2. 참조.

[206]최창섭,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78), 30.

그런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 감정, 경험 등을 공유 또는 나누어 갖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곧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의 동물이며, 의사소통을 위해서 매체를 사용했고, 그 매체를 끊임없이 개발해 온 존재이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배적인 미디어가 있기 마련인데,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대략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문자 이전 시대(Preliterate oral age)' 와 인쇄술의 발달과 시작된 '문자 시대(Literate or print age)', 전자매체의 발달과 함께 시작된 '전자 시대(Ppstliterate age)' 혹은 '멀티미디어 시대' 가 그것이다. 손짓 발짓이 중요한 미디어로 작용하던 문자 이전 시대는 구두 언어 미디어 시대였고, 그 후 문자가 발명되고 그것이 활자화되면서 언어 및 문자 미디어 시대로 바뀌었다면, 영상 매체의 발전으로 이미지와 영상, 멀티미디어가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207]

조직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1959년에 *"문화와 신학(Theology of Culture)"* 을 집필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20세기의 실존적인 질문 등을 신학적으로 대답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있던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는 차원 높은 신학을 담은 설교를 많이 했었다. 하지만 그의 설교가 때로는 회중에게 싫증과 졸음을 주었고, 전달되어지지 않는 채 독백으로 끝날 때가 있었다. 그러한 아픈 경험이 그로 하여금 *문화와 신학(Theology of Culture)*이라는 책을 엮어내게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책 마지막 장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는 결론을 내렸다.[208]

---

[207]김운용, *새롭게 설교하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설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71.

3) 다양한 설교의 시도(전통적, 새로운 설교 형태)

전통적으로 설교는 제목설교(Topical), 본문설교(Textual) 그리고 강해설교(Expository)로 분류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인 설교의 형태들은 나름대로 시대와 역사 속에서 귀한 말씀의 방법으로 시도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변화의 중심에 서 있고, 생각의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화와 환경뿐만 아니라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설교는 이제 전통적인 설교의 형태를 넘어서 다양한 설교의 시도가 필요하다. 설교학자들이 제시하는 많은 새로운 설교학 운동의 패턴들이 있지만, 본 연구자는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조금만 관심과 주목을 하면, 시도해 볼 만한 좋은 유형 다섯 가지를 전통적인 설교들과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1) 제목 설교(Topical Preaching)

설교학자인 엘리자베스 액트마이어(Elizabeth Achtemeier) 교수는 “오늘날 선포되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주제설교”라고 말한다. 주제설교(Thematic sermon)는 그 이름대로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를 추출하여 그 주제를 전개시키는 설교이며, 이것은 강해설교나 제목설교가 될 수 있다. 주제를 설명하고, 증명, 전개하는 대지(Major points)가 본문에서 나오면 강해설교가 된다. 그러나 주제를 전개시키는 대지가 특정한 본문과 연관 없이 작성되는 설교는 제목설교가 된다.[209] 강해설교는 본문에서 출

---

[208]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402~3.

[209]Elizabeth Achtemeier, *The Artful Dialogue,* Interpretation 35 (Jan. 1981), 22.

발하여 회중의 상황을 향하여 가지만, 제목설교는 회중의 상황에서 출발하여 본문을 향하여 간다고 말할 수 있다.[210]

제목설교는 비성서적인 설교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 설교가 본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설교자가 자유롭게 설교를 전개시키기 때문에, 많은 제목설교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나 시사 이야기,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의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회중의 아픔과 문제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기보다는 최신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으로 대답을 주어왔던 것이다.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는 설교자는 항상 강해설교를 해야 하며, 혹시나 2~3년 안에 제목설교를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설교 후에 곧 회개하여야 한다고까지 말한다.[211]

영국의 성서학자이며 유명한 설교자이기 한 제임스 스트워트(James Stewart)는 "하나님의 배고픈 양들은 살아 있는 말씀의 초창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최신 시사뉴스의 주제나 논설이 제목설교를 통해 먹여지는 것을 바라볼 때 매우 애처롭다."라고 말하고 있다.[212]

그러나 모든 제목설교가 비성서적인 설교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모든 강해설교가 다 성서적인 설교가 아닌 것과 같다. 제목설교도 설교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의 성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복음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설교를 전개한다면 좋은 성서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또한 기독교 설교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많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설교 10개 중 대부분이 제목설교이며, 역사적으로 명설교가로 인정받은 설교자들의 대부분은 제목설교자들임을 우리는 기

---

[210]Ronald J. Allen, *Preaching the Topical Serm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1~18. 참조.

[211]Walter C. Kaiser, Jr., *Toward and Exege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1).

[212]James S. Stewart, *Preaching* (London: The English Uni, 1955), 11.

억해야 한다.

제목설교가 성서적인 설교가 되기 위하여 설교의 모든 대지가 특정한 본문에서 나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의 여러 책에 있는 본문에 근거되어야 한다. 제목설교도 설교자 개인의 사상이나 학문을 말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가 되어야 성서적인 설교가 될 것이다. 흔히 제목설교는 설교자가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설교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제목설교도 강해설교에 못지않게, 어떠한 의미에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예로 크리스천 관점에서 본 동성연애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설교자가 동성연애에 관한 상당한 서적을 읽고, 연구하지 않고서는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213]

그리고 목회현장에서 제목설교가 필요할 때도 있다.[214]

첫째는 계절의 필요이다. 교회력에 의한 대강절, 크리스마스, 사순절, 부활주일, 오순절 절기, 그리고 1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해방기념주일, 교회창립주일, 추수감사주일 등 특별한 절기나 주일에는 제목설교가 필요하다.

둘째는 교회, 사회, 국가적으로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이다. 계엄령 선포, 전쟁위기, 정권의 쿠데타 등의 특수한 상황이 생겨 온 교우들의 관심이 그 문제에 집중되어 있을 때에는 설교자가 제목설교를 하여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셋째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핵전쟁, 인공수정, 인간복제, 낙태, 환경문제, 과소비, 동성연애, 사형제도, 남북통일문제, 경제공황 등의 문제는 성경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수가 없다. 성경으로부터 여러 개의 필요한 본문을 사용하여 제목설교를 하게 된다.

---

[213]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71.

[214]Ibid., 71~2. 참조.

넷째는 교리적인 문제이다. 교리설교도 성경 전체로부터 필요한 본문을 사용하여 제목설교를 하게 된다.

계지영 목사는 제목설교를 위한 별도의 지침을 제시[215]하였다.

첫째, 제목에 관한 많은 현대적 자료를 수집하고 읽는다.

둘째, 그 제목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교회와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를 연구한다.

셋째, 설교자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복음을 선포한다. 설교자는 복음의 빛으로 제목을 조명하며,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논쟁을 일으킬 만한 제목은 귀납법적인 접근이 더 효과적이다.

(2) 본문 설교(Textual Preaching)

설교의 기본적인 틀은 언제나 본문(Text)과 주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는 설교로서의 성립이 어렵다. 즉, 무슨 말씀(Text)으로 무엇(Topic, Subject)에 대하여 설교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서는 어떤 경우도 설교로서의 출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초적인 설교의 상식이다. 이때 본문 설교는 결정되어진 본문의 접근에 있어서 그 심도가 어느 설교보다 진지하다.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과 성격에 있어서 본문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엄격한 제한을 둔다.

먼저, 본문의 길이를 3~4절 이내로 짧게 정한다.

둘째, 설교의 주제를 비롯한 주안점들이 모두 본문에서만 유출되도록 하여 설교자와 회중의 시각이 본문 이외의 곳에 가지 않도록 한다.

셋째, 본문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의 발굴에 집중하여 본문의 핵심과 쉽게 만

---

[215]Ibid., 72.

나게 한다.

넷째, 본문의 정황(context)을 비롯하여 중심된 단어들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석의를 시도하여 본문의 깊은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한다.[216]

(3) 강해 설교(Expository Preaching)

한국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형태의 설교이다. 일반 평신도들까지도 강해설교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강해설교가 보편화되었다. 강해설교는 설교가 상황으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본문에서부터 출발하며, 설교의 대지도 본문에서 나오므로 제목설교보다 더 성서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 설교자가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성서본문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영어의 강해(exposition)라는 말은 라틴어의 "expositio" 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설명하다' , '접근할 수 있게 한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강해설교란 성서로부터 신실하게 메시지를 운반함으로 현대의 회중들이 그 메시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설교인 것이다. 해돈 로빈슨(Haddon Robinson) 교수는 강해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강해설교는 어떤 성경구절을 문맥에 비추어 역사적, 문법적, 문학적으로 연구함으로 얻어진 성서적 개념(concept)을 전달하는 것이다. 성령님은 그 성서적 개념을 먼저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시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적용시키신다.[217]

대부분의 설교학자들은 강해설교의 본문은 성경구절이 적어도 2~3절 이상이

---

[216]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158~9.

[217]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20.

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월터 카이저(Walter Kaiser) 교수는 본문이 적어도 성경의 한 문단(paragraph)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18] 왜냐하면 성경구절이 그 정도는 되어야 본문에서 중심사상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해설교는 우선적으로 본문과 본문의 문맥에 관심을 집중한다. 그래서 강해설교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설교자의 사상이 아닌 성경 본문이 설교를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강해 설교자는 단어나 구절이 아닌 하나의 개념을 전달한다.

셋째로 개념은 본문에서 나오므로 강해자는 본문을 연구하고 회중은 본문에 집중해야 한다.

넷째로 얻어진 개념을 강해자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나아가 회중의 삶에 적용시킨다.[219]

여기에 대해서는 페리스 휫트셀(Farris Whitesell)의 견해를 참조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강해설교의 7가지 기본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강해설교는 성경본문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

둘째, 강해설교는 본문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의미를 찾는다.

셋째, 강해설교는 본문의 근본적인 의미를 문맥에 연관시킨다.

넷째, 강해설교는 본문의 근본적인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진리를 발견한다.

다섯째, 강해설교는 이 보편적인 진리를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여섯째, 강해설교는 본문의 진리를 회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수사학적인 요소인 설명, 논증, 예화, 적용을 사용한다.

---

218 Walter C. Kaiser, Jr. *The Crisis in Expository Preaching, Preaching* 11 (September-October, 1995), 4.

219 김운용,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749.

일곱째, 강해설교는 회중들로 하여금 본문의 진리를 순종하도록 설득한다.[220]

결국 강해설교는 설교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더 깊게 연구하게 하며, 본문을 묵상하고, 말씀과 씨름하게끔 한다.

(4) 귀납적 설교(Inductive Preaching)

귀납적 설교는 청중들에게 아주 익숙하게 들리는 경험의 자세한 내용들로부터 일반적인 진리나 결론으로 움직인다. 즉 특수한 상황에서부터 일반적인 진리로 움직인다. 시작으로부터 결론으로 나아가는 움직임(movement)을 중요시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이야기의 플롯(plot)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귀납적 설교 방법을 "문제해결식 설교"라고 평가한다.[221]

귀납법 설교는 상상력을 중요시한다. 설교자는 청중들을 이해하고 설교를 작성하기 위하여 공감적인 상상력을 요구한다. 귀납법 설교의 성패는 설교의 구성에 있어서 통일성에 달려 있는데 단일 개념을 따라 움직임을 통해 전개되어 갈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귀납법의 특성을 설교에 도입하여 신학화한 사람은 프레드 크래독(Fred B. Craddock)이었다. 그의 기념비적인 책, *권위 없는 자처럼(As One without Authority)*이 출판되면서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되고 대중화되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에 있어서 독특한 "움직임" 혹은 "전개"이다. 크래독(Fred B. Craddock)에 의하면 귀납적 설교의 구조는 언제나 이 움직임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22] 움직임을 통해 제시되는 말씀의 나눔은 청중들로 하여금

---

[220]Farris D. Whitsell, *Power in Expository Preaching* (Old Tappan, N. J.: Rebell, 1963), 15.

[221]Thomas G. Long, *증언으로서의 설교,* 정장복 역 (서울: 쿰란출판사, 1998), 203~4.

[222]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15.

공동체적인 경험을 갖게 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가진다. 즉, 말씀의 움직임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며 참여하게 하고 말씀에 대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된다.

무엇보다도 귀납적인 설교는 청중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자신의 느낌을 느끼며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진다. 그렇게 하여 청중들 자신이 메시지의 소유권을 갖도록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데 있어서 피동적인 위치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을 가진다.

귀납적 전개는 회중이 있는 곳에서 회중의 참여적 요소, 즉 이야기, 대화, 유추, 질문, 비유, 구체적 경험과 함께 시작되어 일반적 결론에 도달하는 형태를 취한다. 귀납적 설교 구성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중들의 참여와 경험이다.

랄프 루이스(Ralph L. Lewis)는 귀납적 설교를 '소용돌이' 와 '거미줄' 그리고 '물줄기의 흐름' 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즉 '특수 상황에서 보편적인 진리로(Specifics-to-the-general)', '다양하게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으로 나아가는(Evidence-leading-to-conclusion)' 움직임을 가지며, 설교는 언제나 회중들이 살고 있는 삶의 공동기반으로부터 시작하여 말씀으로 들어가며 성경의 진리로 나아가는 형태를 취한다고 한다.[223]

이러한 귀납적 설교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언제나 개인적이고 특별한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귀납적인 전개는 청중들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결론을 향한 움직임을 따라 진행되어 간다는 점에서 청중들의 몰입과 참여가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설교자와 청중들이 함께 말씀을 찾아가는 여행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귀납적으로 움직이는 설교는 권고적이기보다는 설명적이며, 명령적이기보다는 확인

[223]김운용, *청중이 듣도록 돕는 설교 형태* (서울: 기독교사상, 2002. 7월호), 115.

해 나가는 과정으로 특징 지울 수 있다. 그러므로 귀납적 설교의 전개에 있어서 설교자는 주로 산파(midwife)와 같은 역할을 한다.

셋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발전되기 때문에 설교 한 편이 완전한 일체성과 움직임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224]

귀납적 설교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본문 연구지침이 요구된다.

첫째, 본문에 관한 사전이나 주석서로 먼저 가기보다는 본문 그 자체와 직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둘째, 설교자는 본문에 대한 활발한 참여가 있어야 한다. 본문의 상황에 몰입해 들어가면서 제기되는 의문 사항들을 질문하고 점검하면서 본문을 접근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주의하여 경청하라.

넷째, 본문에 대한 청취이다. 이것은 직접적인 청취가 아니라 우연히 듣는 것을 포함한다. 설교자가 이러한 우연히 듣기(Overhearing)의 경험을 갖는 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원 독자들과 나누었던 관계와 형편에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역사적인 동참과 재건을 가능하게 하면서 본문의 메시지를 바로 듣게 한다.

다섯째, 설교자가 일단 본문을 선택하였다면 그 본문의 상황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서야 한다. 이것은 오래 전에 형성된 본문을 오늘의 시대 속에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여섯째, 청중들과 연결되어 있는 목회 생활 전부를 설교 준비의 시간으로 삼으라. 삶과 괴리되지 않는 성경연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225]

(5) 이야기(체) 설교(Storytelling Preaching)

---

[224]Ibid., 91~4.

[225]Fred B. Craddock, *As One without Authority*, 106~112. 참조.

설교학에서 이야기에 대한 관심은 1958년 그래디 데이비스(H. Grady Davis)의 *"Design for Preaching"* 의 출간 이후 60~70년대를 지나면서 북미의 설교학계에서 중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유진 라우리(Eugene Lowry)가 "*The Homiletic Plot*" 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이야기식 설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유진 라우리(Eugene Lowry)는 전통적인 설교 형태가 가지는 약점을 비판하면서 이야기와 같은 구성 혹은 줄거리(Plot)를 가진 설교 형태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야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인간들의 삶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며,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게 된다.

둘째, 이야기는 이야기 그 자체 이상의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그 장소와 사건 속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서 그것들을 함께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동일시를 갖게 한다.

셋째,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세계관과 생활 방식을 형성하고 변혁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야기는 보다 넓은 자아 인식과 사회 인식을 갖도록 하며 상상력을 자극하여 상상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쉽게 전달되지 않는 실재들을 볼 수 있게 하며, 문화적 가치들과 행동 양식들이 이야기를 통해 형성되고 변혁된다.

넷째, 이야기는 예수님의 방식이었다. 아모스 와일더(Amos Wilder)는 복음의 본질은 이야기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한다.[226] 크래독(Fred B. Creddock)은 "메시지의 본질적인 구조는 언제나 이야기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고

---

[226]Amos N. Wilder, *Early Christian Rhetoric: The Language of the Gosp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71.

주장한다.[227]

다섯째,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경험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말하고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험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이야기 설교자인 전 달라스 빛내리교회 이연길 목사는 뉴저지 필그림교회에서 진행된 한 세미나에서 이야기 설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228]

> 한국에 있다가 방학이 되면 집이 있는 달라스로 온다. 지난 여름에 달라스에 잘되는 식당이 있었는데 이번에 오니 문을 닫을 상태이다. 반면 다른 식당이 번창하고 있었다. 저는 음식점이지만 왜 이집이 문을 닫고 왜 저 집이 번창하는지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식당하고 교회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번창한 음식점이 문을 닫는 이유는 이전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맛이 변질되었다. 맛을 아는 방법은 표현은 못하지만 혀끝은 안다. 또 하나는 고객들의 마음을 못 읽고, 시대의 트렌드를 못 읽었다. 그래서 시대에 뒤떨어져 식당이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그는 전통적인 설교의 위기와 한계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한마디로 전통적인 설교는 파산위기에 있다. 이제 그것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미국에서는 70년 후반에 설교자와 청중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었다고 했지만, 한국은 이제야 그것을 실감한다. 목사가 설교를 해 보면 이전보다 하기 어렵다고 느낄 것이다.
>
> 또 하나는 교인들은 설교는 들어도 딴 생각을 한다. 그런데도 설교자는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내가 설교를 잘하는지 알고 있다. 은퇴를 하고 한국가서 유명한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를 방문하여 청중의 입장에서 설교를 듣는다. 설교도 듣지만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에 민감하게 본다. 교인들은 찬양할 때 열심히 박수를 치다가도 설교가 시작되고 5분이 지나면 눈을 감고 잔다. 그러다가

---

[227]Fred B. Craddock, *Overhearing the Gospel: preaching and teaching the Faith to Persons who Have Heard It All Befo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8), 139.

[228]http://www.usaamen.net/March 1. 2011.

도 설교자가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또 잔다. 교인들은 설교를 안 듣고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것이 전통적인 설교가 직면한 위기이다.[229]

이연길 목사는 계속해서 전통적인 설교의 위기와 한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다.

> 그러면 왜 전통적인 설교가 파산위기에 있느냐. 왜 더 이상 먹혀 들어가지 않는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청중들이 변했다. 하지만 목회자는 청중이 변한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이란 이전과 다른 시대이다. 쉽게 말하면 강요하는 것을 싫어한다. 가르치려는 것을, 논리적인 것을 싫어한다. 목사들도 집에서 자녀들을 설득하려면 어렵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포스트모더니즘이다. 주변의 문화는 전부 포스트모더니즘인데 설교자는 모던식으로 설교한다. 교인들이 말은 안하지만 그런 설교를 거부하고 있다. 또 한 가지, 전통적인 사고는 논리적이다. 논문을 쓰듯이 하는 설교 연설 강의는 좋아하지 않으며 현대청중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로빈슨 교수도 아이디어와 이미지를 말했는데 지금은 이미지 시대이다. 청중들은 논리적인 것을 안 받아들인다.[230]

설교 형태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설교 형태는 이야기 설교(Story Sermon)와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이야기 설교는 먼저 마이클 윌리암스(Michael Williams)를 중심으로 "storytelling"을 이야기체 설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설교를 하나의 스토리 또는 설교 안에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유진 라우리(Eugene Lowry)를 중심으로 설교를 줄거리로 엮어 전개시키는 형태를 이야기체 설교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story"보다는 "narrat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231] 라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체 설교 안에는 한 마디의 이야기가 들어 있지

---

[229]Ibid.

[230]Ibid.

[231]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126~7.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교의 형태가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야기체 설교는 70년대부터 신학계의 이야기 신학, 성서학 분야의 문학적 비평, 상담 분야의 이야기체 상담, 기독교교육학 분야의 이야기체 교육 등 여러 분야의 활발한 연구와 발달을 배경으로 하고 등장하게 되었다.

라우리는 설교란 공간이 아니라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곧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면서 구성의 다섯 가지 기본적인 연속 단계를 제안한다.

이 다섯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형을 뒤집어라. 둘째, 모순을 분석하라. 셋째, 해결의 실마리를 드러내라. 넷째, 복음을 경험하라. 다섯째, 결과를 예견하라.[232]

이야기 설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설교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는 본문 선정과 연구이다. 설교자는 먼저 가능한 설교 자료를 발굴하려고 하기 전에 단순히 본문으로부터 듣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적용이다. 직접적인 적용보다는 간접적인 적용의 형태를 따른다.

셋째는 언어 사용이다. 청중들에게 듣게 하고, 보게 하며, 맛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서술적이고 사실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시적이고,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상상력이나 이미지, 메타포 등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넷째는 설교의 구성이다. 설교자는 본문의 특성,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구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다섯째는 청중 이해이다. 청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여행을 떠나는 동반자이다. 설교자는 청중을 말씀의 여행에로 초청해야 하며, 설교의 모든 흐름은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함께 나서도록 청중들을 인도하는 초청적

---

[232]Eugene Lowry, *The Homiletic Plot, 이야기식 설교 구성,* 이연길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6), 37. 또한 이 구성요소는 약자를 가지고도 설명한다.

① Oops(미국인들이 놀랄 때 하는 소리):아이구 저런! ② Ugh(두려워서 놀랄 때 하는 소리):악!
③ Aha(무언가를 알았을 때):아하! ④ Whee(기쁘거나 흥분할 때):와아!
⑤ Yeah(환호를 지를 때):예에!

인 것이어야 한다.[233]

(6)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Phenomenological Preaching)

이 설교 방법은 데이빗 버트릭(David Buttrick)이 제시한 방법으로 버트릭은 설교 형태와 청취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학적인 관계성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설교 과정 속에서 청중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관련해 설교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버트릭은 300여 년 가까이 설교학계를 지배해 왔던 논리적인 설교는 급속하게 변화되어 가는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식 방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역동적인 방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설교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이기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설교자의 임무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동되고 있는 새로운 인간 의식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버트릭의 전개식 설교 방법은 청중들이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분명한 영상으로 의식 속에 자리 잡도록 하는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설교는 청중들이 어떤 틀을 통해 어떤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설교가 개별적인 개념이나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순서에 따라 설명해 가기 위해서 배열된 언어의 움직임을 버트릭은 “움직임” 혹은 “장면” 이라고 부른다.

버트릭의 관심은 설교의 능력의 회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의 중요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듣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중들로 하여금 듣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의 설교 방법론이 추구하는 중심 내용이다.

버트릭에게 있어서 설교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형성케

[233]김운용, *이야기를 통한 설교 방법* (서울: 기독교사상, 2002. 4월호), 122~7.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 주어 그들의 의식 속에 믿음의 세계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힘이다.[234] 이것은 설교가 구속하시고 해방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의미한다.

설교의 현상학적인 특성은 "사람들의 목소리와 사람들의 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설교에 있어서 삶의 자리를 보게 하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을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도록 방법을 자리 잡는다.[235]

버트릭은 설교 형태와 청취 과정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학적인 관계성을 염두에 두고 설교 과정 속에서 청중들의 의식 속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관련하여 설교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버트릭에게 중요한 개념은 "의식" 과 "언어" 이다. "의식" 은 생생한 경험과 관계된 말로 단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의 착상이 아니라 다양한 세상으로부터 세계를 형성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의식은 "삶의 목적을 제시하시는 분에 의해서 형성되는 종합적인 통일성" 이다. 그러므로 의식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마음의 생각이나 일시적인 기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경험하는 세계를 세우는 "계획된 행동" 이다.[236]

"언어" 는 설교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움직임" 의 모듈을 형성하며, 설교의 가장 기본 요소가 된다. 설교의 언어는 궁극적으로 존재의 언어이며,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노출의 언어이다. 이처럼 설교의 언어는 상징과 메타포를 통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의식의 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언어를 통해 말씀이 전달될 때 기억을 환기시키고 무엇인가를 끌어내게 한다. 버트릭은 설교의 언어를 "함축적인 언어" 라고 하면서 하나의 "예술" 이라기보다는 "기교" 이며, "깊은 숙

---

[234]David Buttrick, *Homiletic: Move and Structures* (Philadephia: Fortress Press, 1987), 20.

[235]Mary E. Mullino Moore,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장대현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140~5. 참조.

[236]Erazim Kohak, *Idea and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53.

고를 통해 이룩되는 기교" 라고 한다.[237]

버트릭은 설교는 정적인 장으로서가 아니라 가상과 사건의 움직임이 있는 동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교는 정물 사진으로가 아니라 활동사진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하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서술들이 에피소드들로 연결되어 이야기기와 같이 움직임이 있고 하나의 관념에서 다른 관념으로 움직여 가면서 생생한 대화를 나누는 방식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한다.

버트릭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은 카메라와 같이 작동하는데 어떤 장면이 전개될 때마다 그것을 카메라가 필름에 그것을 형상으로 담듯이 청중들은 장면으로 전개되는 움직임을 통해 그들의 의식 속에 말씀의 상을 담는다고 하면서 설교자는 사진작가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전개식 설교 방법은 청중들이 어떻게 듣느냐에 관심을 기울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6개 정도의 '움직임' 을 가질 수 있다. 하나의 움직임은 청중들이 무엇에 집중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각 움직임들을 4~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청한다. 버트릭에 의하면 '움직임' 은 '여는 말' , '전개' , '닫는 말' 등으로 구성된다. 버트릭의 방법은 우리가 설교할 때 청중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또 일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 주는 특성을 가진다고 언급한다.

(7) 축전 설교(Celebration Preaching)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는 축제 분위기의 설교와 수사학적 설교라는 독특한 스타일의 설교를 만들어냈다. 헨리 미첼(Henry Michell)은 "설교의 경험과 축전" 이라는 책에서 설교자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큰 실수는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기쁜 소

[237]David Buttrick, *Homiletic: Move and Structures,* 184.

식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238] 축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최상의 생각을 비축해 두었다가 강단에서 마지막 순간에 최고의 시적 언어로 풀어내라고 미첼은 강조한다.[239]

미첼은 설교의 결말 부분에서부터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외치는 대신 위로의 말, 은혜의 말, 그리고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주는 말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충고한다.[240]

제임스 해리스는 “흑인들의 설교는 정말 실감나고 감동적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슬프고 회상적이다. 그들의 설교는 인생의 굴곡마냥 성령도 흐른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 자유와 억압, 정의와 불의가 교차하는 놀이극 같다.” 라고 말한다.[241]

이에 대해 미첼은 자신은 설교자가 슬픔이나 불의에서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결론은 정죄가 아닌 은혜의 말로 감싸주는 것이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론한다. 설교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우리 모든 설교자들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8) 4 페이지 설교(The Four Pages of the Sermon)

폴 스캇 윌슨(Paul Scott Wilson)은 네 부분, 또는 네 쪽으로 확연히 나누어진 것으로서의 설교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네 쪽짜리 설교” 라고 이름 붙인 설교학을 제창했다. 각 장면에는 신학적ㆍ설교적 과제를 담아낸다.[242]

---

[239]Henry Mitchell, *Celebration and the Experien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0), 69.

[240]Ibid., 64.

[241]James Harris, *Preaching Liber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0~1.

[242]Ronald J. Allen, *Patterns of Preaching,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135.

윌슨은 네 장면으로 이어지는 설교의 작성 과정을 마치 영화 제작 과정과 연결시키려는 듯하다. 각각의 설교가 하나의 두드러진 영상이라면, 각 장면은 그 장면의 신학적 과제를 그려내는 필름 클립이라 하겠다. 설교자는 각 장면의 중심 역할의 필름에 담아낸다.

첫째 장면은 성경 본문이나 제목에 초점을 맞춘다(Trouble in the Bible). 이 장면은 본문에서 제기되는 신학적 문제를 부각시키는 장면이다. 설교자는 성경의 관점에서 죄에 대한 해석을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설명한다. 흔히 설교자는 본문을 요약해 주고, 성경 본문이나 주제의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컨텍스트의 단면들을 청중에게 알게 하는데, 이것은 설교를 이해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이다. 설교자는 본문의 상황이 생겨나게 된 문제를 논의하는데 덧붙여 이 문제를 영상화하게 한다.

둘째 장면은 성경의 세계에서 우리의 세계로 무대를 옮긴다(Trouble in the World). 이 페이지에서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성경 본문의 세계에서 표현된 문제들을 연상하게 하여, 그것을 그들의 문제로 생각하도록 도와준다. 어찌하여 우리도 성경에서 제기된 죄 문제의 공범이 되는가? 성경에 나오는 공동체 사람들이 경험했던 파국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설교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영상화한다.

셋째 장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함께하신다는 복음의 주제로 국면을 변환한다(God's Action in the Bible). 설교에 있어서 이 부분이 가지는 신학적인 목표는 첫째 장면과 둘째 장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해결해 주시는지 깨닫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이 장면은 성경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밝히게 된다. 설교자는 본문의 중심에 나오는 복음을 끄집어낸다. 이 장면은 성경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은혜의 사건을 그린 필름 클립이다.

넷째 장면은 다시 현 시대로 돌아온다(God's Action in the World). 설교자는 청중으로 하여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며 그에 응답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의 상황에서 활동하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와 유사한 우리의 상황에서

는 어떻게 활동하시는가?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상화한다.[243]

결국 윌슨의 네 페이지 설교의 패턴(Patterns of preaching)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페이지는 성경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페이지는 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성경 속에 있는 은혜 즉,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발견하는 것이고, 네 번째 페이지에서는 우리의 세계 속에 있는 은혜 즉,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일을 다루게 된다.[244]

윌슨은 새로운 형식을 갖춘 설교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사회학적인 이유이다. 현대교회와 사회는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급속히 변하고 있고, 이는 결국 사역의 본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모던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으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설교의 경우도 이전의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는 신학적인 이유이다. 오늘의 설교에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과 설교에서 복음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 설교가 변화하는 세상에 적절하게 선포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삶의 중심에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이런 면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윌슨은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더 이상 기쁨과 희망으로 회중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는 말하기를 설교자들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다면 그 설교는

---

[243]Ronald J. Allen, *Patterns of Preaching,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135~6. 참조.

[244]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네 페이지 설교,*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26.

당연히 회중에게 기쁨으로 다가설 수 없을 것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은혜를 설교하고 회중들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한 새로운 설교학 형태의 하나로 "네 쪽짜리 설교"를 제시한다.[245]

네 쪽짜리 설교의 각 부분은 구체적인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성경본문에서는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본문과 관련된 이 세상에서의 갈등은 어떤 것인가? 본문에서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그 본문과 관련된 이 세상에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인가? 각 페이지는 설교 구성에서 독특한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연계성이 있다.

윌슨은 "연계성을 지닌 네 쪽은 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준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창의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부드럽게 방향을 잡아 준다. 일단 우리가 이 네 쪽을 다 알고 나면 설교에서 어디쯤에 최고의 효과를 넣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246]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현대 설교학의 새로운 설교학 운동(The New Homiletics)에 있어 가장 새로운 형태로 볼 수 있는 네 페이지 설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설교자들에게는 청중들과 이해하기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설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245]주승중, *새로운 설교형태의 연구-네 페이지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2) 장신논단 18집, 449~50.

[246]Paul Scott Wilson,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Nashville: Abingdon, 1999), 48.

VI. 프로젝트의 실행(Project Execution)

“세속 도시(The Secular City)” 의 저자인 하비 콕스(Harvey Cox)는 *“영성 · 음악 · 여성(Fire from Heaven)”* 이라는 책에서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즉, 그는 목회자들이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 교인의 영적 성장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구원을 향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교회의 외면적 구조가 아니라, 그 구조를 지탱하는 교회의 본질적 바탕에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의 본질적 바탕을 다름 아닌 교인들의 영적 체험이라 해석한다. 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 건물이나 제도적 구조가 아니다.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각성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도덕적 성숙을 요구하는 영적 체험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하여 교인들이 제각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체험의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247]

그런 의미에서 뉴욕좋은이웃교회 역시 교인들을 위한 다양한 말씀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특별히 설교가 청중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부인할 수 없기에 좋은이웃교회에서는 김운용 교수(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설교학 교수)와 최일도 목사(다일공동체 대표)를 모시고 말씀의 잔치를 열었다. 김운용 교수는 신학자이고, 최일도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삶의 경험이 풍부한 목회자이다. 두 분 다 설교적 색깔은 다르지만, 들려주는 말씀의 내용들은 교인들을 위해서 매우 풍성한 은혜의 잔치였다.

1. 설교의 실제적 경청

1) 좋은 이웃 비전축제(강사: 김운용 교수)[248]

---

[247]Harvey Cox, *Fire from Heaven, 영성 · 음악 · 여성,* 유지황 역 (서울: 도서출판 동연, 1998), 10.

[248]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cg&id=186523

2009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믿음, 그 가슴 떨리는 세계를 향하여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주제로 김운용 목사(장로회신학대학교 예배학/설교학 교수)를 모시고 ‘좋은이웃 비전축제 2009’ 를 개최했다.

<그림 4> 비전축제 포스터

초청된 강사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249]

김운용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Th. M.)
미국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Th. M.)
미국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PSCE (Ph. D.)
서울 서광교회, 월돌프 갈보리한인장로교회, 여의도제일교회 등에서 담임목회
미국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교환교수 역임
현,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예배학/설교학 교수, 경건교육처장

주제: ‘믿음, 그 가슴 떨리는 세계를 향하여 –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1) 잊혀 질 수 없는 이름(사 43:14~21)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의 일이었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나라는 망하고 성은 불탔다. 비운의 왕 시드기야는 자기 눈으로 왕자들의 죽음을 지켜보아야 했고, 자신도 두 눈을 뽑히운 채 포로로 잡혀가야 했다. 유다의 귀족들과 지도자급 인물들은 모조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나라는 철저히 망해 버렸다. 그렇게 나라가 멸망한 시점부터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꿈을 가졌지만 그 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

[249] http://www.usaamen.net/news/board.php?board=adad&command=body&no=679

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실상 이전에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하다. 주님이 이전 선조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행할 일들은 그것과 다른 일들이라는 것이다.

즉, 주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비전을 품을 것인가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분이시다. 그의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구원을 베푸셨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잊혀 질 수밖에 없는 이름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불러주시고 회복해 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다시 한 번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길 원하고 계신다. 기억하라!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신다.

(2)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마 8:23~27)

마태복음은 특히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이 특히 강조된다. 유대인의 비극은 무엇인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못한다는데 있었다.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좇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동일한 기록인 막 4:35에서도 그 항해는 예수님이 지시하신 여행길이었음을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큰 놀이 일어난 것이다.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왔고, 부르심을 받고 제자의 길로 나섰다. 그런데 나아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

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감격해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삶 속에서 주님도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다. 이 풍랑이 웬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왜 주님이 지시하신 길을 걷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제자들은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풍랑 이는 바다 위로 내모는 것인가?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주님의 백서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 주님은 이 풍랑을 통해 강인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기대하신다. 때로 고난은 사람을 강하게 한다.

풍랑이는 바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제자들은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 역부족이다.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만 주무시고 계시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인생길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참 많이 있다. 거기에서 인간의 한계와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면 모든 것은 가능해진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우는 일이 중요하기에 주님을 깨운다. 단잠에서 일어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겁에 질린 제자들을 꾸짖으신다. 무엇을 꾸짖으셨는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다.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풍랑이 아니다. 성경이 관심을 두는 것은 찰싹거리는 풍랑, 우리 삶을 흔들어 놓은 풍랑이 아니라 흔들거리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문제였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어떤 풍랑 가운데 서 있는가?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 답답한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배워야 했다. 믿음, 신뢰하면서 사는 삶!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 끝까지 신뢰하는 것.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를 몰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분명한 한 가지는 주님은 그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풍랑을 통해 제자들을 영적 거인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어도 그냥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3)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삼하 23:13~17)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에 따라서 삶의 내용과 질이 결정된다. 좋은 만남은 그들의 삶을 복된 삶이 되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만남은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일찍이 출세하고 성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젊은 날의 대부분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기가 막히는 것은 그의 장인이 군대까지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힘든 삶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장래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 그러한 곤고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한 가지 축복을 주셨다. 만남의 축복이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미래가 없어 보이는 삶이었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스승이기도 한, Columbia 신학대학원의 유명한 구약학 교수인 Walter Brueggemann박사는 그의 "사무엘서 Interpretation 주석" 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렇게 묘사한다. "그들은 용기와 충성심의 모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They are "the model of courage and loyalty")." 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충성심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다. 주님을 섬길 때,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렇게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도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이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썩어져 없어질 인생과 그

향락을 추구하는 일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의 준비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이 있는 곳에 교회는 살아난다. 교회는 힘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논리 정연한 '머리꾼' 이 아니다. 교회의 행정을 잘 알고, 교회 정치를 잘 아는 '이론가' 가 아니다. 목사의 설교는 어떻고, 교회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정확한 논리와 판단력으로 잣대질하는 '비평가' 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교회에 필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들' 이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손해 앞에서도, 어떤 여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뛰어가는 "헌신된 믿음의 용사들" 이 필요하다.

(4) 한 밤 중에 불렀던 노래(합 3:16~19)

인생을 살다보면 멀리까지 환히 내다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한낮이 있는가 하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도 있다. 살다보면 앞뒤 좌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한밤중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든 이런 고난의 문제는 동일하게 주어진다.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왜 어려움의 문제가 오는지에 대해 성경은 상황마다에 대해서 상세한 답을 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고난의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롬 5:8).

주전 7세기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그런 사람이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그는 살고 있었다. 피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으나,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험,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앗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여 하박국은 탄식한다. "무화과나무가 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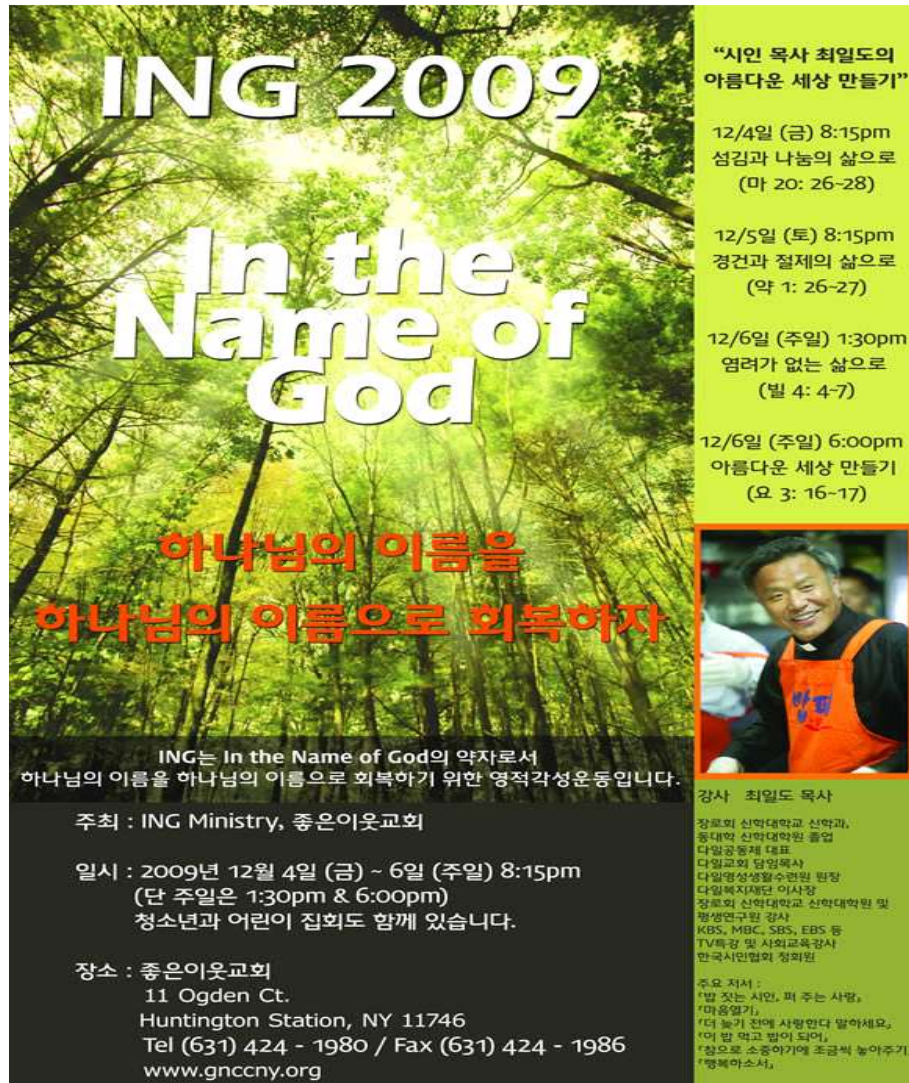
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도 없도다." 짧은 한 절 속에 없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암담하고 절망적이다.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소생 불가능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완전히 망한 상황이었다. 하박국은 그렇게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박국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한밤 중에 노래를 올려드리고 있다.

그렇다. 한밤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서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 하박국이 드린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의 감사였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감사, 주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감사,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기에 감사, 미래의 영광 때문에 감사,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드린 감사였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깨달았기에 어려움의 한복판에도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 평가 내용

그는 한국교회의 예배가 거의 설교중심이다 보니 교인들의 예배에 대한 인식이 잘못 형성된 면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 '설교가 은혜가 되었다.' 하면 '예배가 은혜스럽다.' 하고, 설교가 자신의 마음에 시원치 않았다면, '예배가 은혜스럽지 않았다.' 고 한다.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개신교 개혁교회들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보니 예배에서 설교의 역할이 너무 오버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설교자

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는 관점을 가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설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피력한다.

> 설교는 '이중의 청취' 를 통해 이루어진다. 좋은 설교가 무엇인가를 규정하기가 다양한 요소가 작용된다. 먼저 설교를 통해 교인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텃치하시는 손길을 맛보게 하는 것이 좋은 설교이다. 더 나아가 좋은 설교는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과정에서 '이중의 청취' 를 말하는 것은, 먼저 설교자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어야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청취' 는 먼저 하나님으로 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리 중요한 메세지가 전해져도 오늘의 시대 속에 들려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씀이 보석이라고 해도 전달이 좋아야 메세지를 받은 사람이 보석인줄 안다. 두 번째 청취는 청중에게 들어야 한다. 청중들의 삶의 아픔, 고민, 그리고 영적인 혼돈과 방황에 대해 들어야 한다. 그리고 청중의 영적인 갈급함을 설교자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250]

즉, 청중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청중들이 몸담고 살아온 문화와 사회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운용 교수는 한국에서 현직 교수로 사역하고 있는 예배설교학자이다. 그의 설교는 매우 호소력이 있으면서 파토스(열정)가 있었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집회기간 동안 대체적으로 교훈적이면서도 치유적인 설교에 가까운 말씀을 선포하였다. 어쩌면 소수의 민족으로 이민 사회를 살아가고, 이민목회의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다. 4일간의 비전 축제 기간 동안 그가 강조한 것은 '믿음' 이었다. 즉,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

[250]http://www.usaamen.net/May 7, 2011.

2) ING 말씀집회(강사: 최일도 목사)

2009년 12월 4일(금)부터 6일(주일)까지 3일간 최일도 목사(다일교회 담임목사, 다일공동체 대표)를 초청하여 ING 2009 집회를 가졌다.

<그림 5> 최일도 목사 초청 ING 2009 집회 포스터

최일도 목사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과,동대학 신학대학원 졸업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교회 담임목사

다일영성생활수련원 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평생연구원 강사

KBS, MBC, SBS, EBS 등 TV특강 및 사회교육강사

한국시인협회 정회원

• 주요 저서 : 「밥 짓는 시인, 퍼 주는 사랑」,「마음열기」,「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 말하세요」,「이 밥 먹고 밥이 되어」,「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행복하소서」등.

주제: 시인 목사 최일도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251]

(1) 섬김과 나눔의 삶으로(마 20:26~28)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시인 목사인 최일도 목사가 자주 사용하는 멘트이다. 이번 좋은이웃교회 집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ING: In the Name of God)으로 진행하고 있는 ING 운동의 연장선이다.

[251]http://usaamen.net/news/board.php?board=adad&command=body&no=991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이름을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만 찬송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섬김 받는데 익숙한 자세를 섬기는 자세로 바꾸어야 한다.

오늘의 주제는 섬김이다. 본문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섬김과 나눔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세상과 교회에 온 목적도 주님같이 참된 섬김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삶이되기를 바란다.

섬김은 무엇인가? '누가 섬김을 잘하느냐?' 고 묻는 것은 우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다. 세상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 오직 하나님으로 부터 잘했다고 칭찬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라.

섬김을 이야기 할 때마다 한 선배 목사가 생각난다. 지난주 뉴저지 프린스톤에서 집회를 했다. 프린스톤 신학교 도서관에 사진이 걸린 아시안 2분 중 한 분인 한경직 목사이다. 한경직 목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분이 세운 대광고등학교 강당을 다일교회가 10년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 강당입구에 한경직 목사의 흉상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옆을 지날 때마다 별세한 목사님이 생각나면 말을 건내곤 했다. 하지만 처음에는 달랐다. 장로회신학교를 다닐 때는 한경직 목사를 싫어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이었다. 카톨릭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은 정부가 이러면 안된다고 시국에 대해 한마디씩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래서 개신교 지도자인 한경직 목사의 한 말씀을 기대했다. 하지만 한 목사님은 말하지 않았으며, 나는 그런 한경직 목사님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강원룡, 문익환, 한경직 목사는 저마다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런데도 한경직 목사가 그들처럼 안한다고 불평했다. 한경직 목사를 만난 계기가 있다. 한경직 목사가 종교인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면 한 소감이 내 가슴을 두들겼다. 한경직 목사는 "나는 상

을 받을 자격이 없다.” 고 자신을 부인했다. 사실 안 해도 될 말이었다.

한 목사는 이어 “나는 역사 앞에 죄인이다. 일제 시대 동료 가운데에는 신사참배를 거절하다 죽어간 사람이 있는데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다. 하나님이 아시는 나의 허물과 과실이 많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칭찬하고 상을 줄때 마다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세상의 상을 많이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을텐데 걱정이다. 마지못해 받지만 한경직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에 인정하는 의미의 상이다.” 고 말했다.

수상소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한경직 목사가 새롭게 보였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대(大)목사를 한순간 내 생각으로 평가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가 조용히 말년을 보내고 있는 남한산성(영락신학원)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다.” 고 했다.

한경직 목사는 “아닙네다.” 라고 답하며 은퇴하고 힘없는 목사를 왜 찾아왔느냐 했다. 손자 같은 나에게 말씀을 높이고 깍듯한 경의를 표했다. 그분은 흉내 내는 겸손이 아니라 일생을 겸손하게 사셔서 몸에 밴 겸손이었다.

이번 뉴저지집회에는 프린스톤 신학교 도서관에 걸린 한경직 목사 초상화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한경직 목사가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현장을 찾았다. 동상을 보거나 초상화를 볼 때 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다. 영성의 세계는 보이는 현상을 좇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의 영성과 내면을 이번 방문에서 가져올 수 있었다. 만남을 통해 한경직 목사는 나에게 한마디를 해주었다. 나는 그 말을 유언처럼 가슴에 담고 있다. 섬김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듣기 쉽도록 두 마디를 해 주셨다. 칭찬 받을 때는 “아닙네다.” 라고 하고, 비난할 때는 “당연하디요.” 라고 하라는 충고였다.

한경직 목사는 “첫째, 최 목사처럼 어려운 빈민선교 하는 분이 귀하다. 그러면 인정하는 분이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아닙네다. 무익한 종이 하는 일’ 이라고 답할 때 참된 섬김이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다. 해야 할일을 했을 뿐이라는 자세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귀한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시기 질투 비난 박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당연하디요' 라고 답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여호와를 진정 높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라. "아닙네다." 라고 말하라. 누군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높여 줄때 마다 "아닙네다." 하라. 단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무익한 종이라고 하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 받을 때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았다. 억울할 때도 '당연하디요.' 고 할 때 섬김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한경직 목사의 조언이 깊이 내면을 찌른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섬김을 실천하는 자리로 한걸음 더 내려가라. 천번 만번 떠드는 것보다 한번 실천하는 것이 복음전도에 도움이 된다. 해외의 아이들을 도울 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지만 거듭난다. 도움을 준 환자 중 1100명이 세례를 받았다. 그중에는 스님도 있으며 무슬림도 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고 말로만 떠들면 저질집단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 삶이 말을 따라가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한다. 불신자에게 백 마디 하는 것 보다 모두가 알아듣는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한걸음만 더 내려가 섬기면 문이 열린다.

섬김의 이야기 할 때마다 손양원 선배가 생각난다. 하지만 그분은 얼굴을 본적이 없다. 손양원 목사는 경상도 출생으로 전라도에서 목회를 했다. 여순반란사건이 일어나 두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 아들들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공산폭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자 아들이 일어나 야단을 쳤다. 죽이겠다고 뒷산으로 끌고 가자 둘째아들이 형을 살려 달라고 쫓아갔다. 그런데 그들은 둘을 모두 죽였다.

그 비보를 접한 손양원 목사는 아들이 죽은 것을 억울하다고 원망한 적이 없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를 돌렸다. 선교사가 아들을 미국 유학 보내

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 하루에 두 아들이 순교자 됨을 감사, 한 가문에 두 순교사가 남을 감사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이다. 손양원 목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까지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120년 한국 기독교의 많은 신앙의 위인 중 가장 예수 닮은 분을 한분 말하라면 주저 없이 손양원 목사를 말할 것이다.

손양원 목사는 애양원에서 나병환자를 섬겼다. 당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도 버렸다. 그렇게 버림받은 나병환자의 고름을 빨며 예수사랑을 실천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이다. 걸어야 할 섬김의 길을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다. 하나님 이름을 온몸으로 증거한 분이다.

모두가 예수님처럼 제자의 섬김의 길처럼 가지 못해도, 그들이 걸었던 길과 가는 방향은 같아야 한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세속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가 교회에 난무하여 가야할 방향을 왜곡시킨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바른 삶을 결단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일부터,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사람들은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시간이 나면 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일어난다.

“섬기다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통받을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다.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 억울하다 마시고, 섬기다가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섬김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언급한다.

(2)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약 1:26~27)

최일도 목사는 “참된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

다.” 라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다양한 계층의 소외계층이 있다. 외로움에 지친 노인들이 참으로 많다. 여전히 이 땅에 고아들도 많고 소년소녀가장들이 힘들고 버거운 삶을 헤쳐 나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이 모든 소외계층들,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며 곧 경건생활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빠진 껍데기 경건은 참된 경건이 아니며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더러운 경건일 것” 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사람은 대개 외모를 보고 판단하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한 최 목사는 “주님은 오늘도 경건한 사람을 찾고 있다.” 라며 “주님과의 수직적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이웃사랑을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 그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함이 없는 경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경건생활로 이 땅의 비틀리고 거짓된 것을 바꾸겠다는 신앙의 몸부림 없이 어떻게 이 땅을 고쳐나갈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근검절약한다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 대지진과 해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으며 지금도 울고 있다. 이 지구촌에는 일 초에 몇 명씩 그렇게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다. 아주 멀리 볼 것 없이 38선 넘어서 북녘 동포들이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북녘 땅의 아이들이 발육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저들의 고통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면 그들의 고통소리가 쟁쟁히 들리는데, 우리는 쉽게 그 상한 마음으로 고통스럽게 울고 지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다.” 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길바닥에 라면박스와 스티로폼을 깔고 몸을 떨면서 한 밤을 지내봐야 방한 칸이 없는 노숙자들의 아픔이 전달되며 그렇게 흉내라도 내지 않으면 어느새 그분의 한숨소리를 쟁쟁하게 듣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떠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 며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돈이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이 세대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답게 경건생활 할 것을 더욱 뜨겁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고 교우들을 촉구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눈치 체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경건생활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섬기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며 “코람데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게 경건의 출발이다.” 라고 말해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의 가슴에 부흥의 불길을 지폈다.

(3) 염려가 없는 삶으로(빌 4:4~7)

최일도 목사는 본 설교에서 피난민 2세임을 강조하였다. 부모님이 갖은 고생을 하고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당시 사진을 보면 어머니는 카메라 초점을 보지 않고 먼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왜 그런가 물으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한다. 전쟁 직후 처참한 삶 속에 바라볼 대상이 주님밖에 없어서 날마다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며 살았다고 한다.

그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던 어머니의 삶에 한숨과 눈물이 찾아왔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찬송이 사라지고 기도를 해도 눈물만 나왔다. 어느 날 새벽예배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빌4:4)’ 는 말씀을 듣던 어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요?” 라는 질문을 던졌다. 과부로 세 아이를 키워야하는 처지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는 어머니의 질문에 목사님은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고 대답해주셨다.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고 돌아온 그날 최일도 목사는 가출을 했는데 “일도야, 잘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 나는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겠다.” 고 하셨다. 전에는 ‘네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만이 집안을 살리는 길이다.' 라고 하시던 어머니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완전히 달라지신 것이다. 최 목사가 병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전도사로 섬기던 어머니는 병원에 찾아오는 것보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면서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의 병이 회복되었음을 그는 고백하였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뢸 때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망하지 않는 것을 그는 고백하였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내 책임을 남에게 미루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려를 내려놓는 사람은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최선을 다했기에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결과도 감사함으로 받게 된다. 청량리 급식소를 찾던 분 중에 '글페(글피)' 할머니가 계신다. 젊어서 사랑했던 남자가 '글피에 돌아온다.' 고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는 오늘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모레, 글피를 염려하면서 살았다. 10년 동안 밥을 드시고 가시면서 "내일도 밥 줘유?, 모레도 밥 줘유?, 글페(글피)도 밥 줘유?" 하고 물으셨다.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과거의 상처로 눈물과 한숨만 되씹다가 염려로 인생을 마쳤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선포하신다. 한 날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는 것이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빌4:7). 내 마음을 내가 수양하고 닦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셔야 한다. 나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아래 풀어 놓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염려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4)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요 3:16~17)

최일도 목사는 유학을 포기하고 청량리에 들어가서 빈민활동을 시작하였다. 대단한 각오였다. 그런데 5년 만에 탈진하고 영혼이 고갈되어 한숨과 눈물만 나왔다. 청량리 초창기에는 한사람이 와도 괜찮다고 말했는데 이제는 한사람도 무거워지고 반겨지지가 않은 상태가 되었다.

전도사 출신의 어머니도 반대하고, 직장을 다니며 가정을 책임지던 아내에게서 이혼요구를 받는다. 아내는 아프리카 선교지에는 가겠지만 청량리는 싫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당시 불리었던 자신의 호칭으로 그때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마등거사(마누라 등쳐먹는 인간)와 마포백수(마누라도 포기한 백수)가 되었다.

탈진하고 교회가 노숙자로 난장판이 된 것을 보고 청량리를 무조건 떠나려고 기차를 탔는데 경춘선으로 잘못 타게 된다. 돈이 없어서 차장은 경기도 용문역에서 강제로 하차시켰다.

계곡에서 3일간을 굶으며 애타게 울부짖으며 기도한다. 4일째 되는 날 밥 냄새를 맡고 찾아갔다. 노인은 밥을 주며 "밥 먹고 싶으면 공짜 밥주는 청량리 최일도에게 가라."는 말을 하였다. 할아버지는 한약재를 팔려고 경동시장에 나갔다고 최일도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최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

다시 청량리에 돌아가기 위해 역에 나온 최일도 목사는 역의 직원이 TV에 몇 번 나온 최 목사를 알아보고 김밥과 사이다까지 사주며 "목사님 밥먹고 힘을 내서 좋은 일을 계속하세요!" 라고 말한다. 최일도 목사는 하나님이 역직원의 입을 통해 격려하신 말로 받아들인다.

최일도 목사에게 돌아온 청량리가 새롭게 보였다. 노숙자들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깨워준 작은 예수로 보였던 것이다.

최일도 목사는 설교전반에 걸쳐 신학교시절 가슴에 담았던 한 미국 신학자의 글을 소개한다. 이 메세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에게 지혜를 주는 메시지였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변화시킬수 있는 것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변화시킬 수 없

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 둘을 식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람들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손해 본다. 나도 분간을 못해 혼란스러웠다.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생각 안한다.' 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자기느낌이다. 자기느낌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여기기도 한다.

머리로는 깨닫지만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신학교에 갔다. 목사가 되고서도 마찬가지였다. 5년간 청량리 쓰레기 덩어리에서 본문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졌다. 우리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만 행동이나 습관은 쉽게 안 변한다. 그러나 생각은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내가 변해야만 상황이 달라진다.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생각 내 느낌을 변화하여 행동과 습관까지 바꾸어야 한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달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온전한 삶의 변화는 없다.

나는 이때까지 51개국을 다녔다. 나의 목표는 나이 수 만큼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다. 나는 미국, 캄보디아 등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가 아름답다. 지금 있는 곳이 싫으면 다른 곳에 가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지금 여기서 부터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 신학교 재학 시 교수팀과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스위스를 방문하고 아름다움에 취한 나를 보고 외국목사가 "호수와 스위스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과 눈빛이 아름답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 목사가 된 후 한참 뒤에야 그 뜻을 알았다.

장애인 그림대회에서 금상은 푸른 하늘에 잔잔한 호수를 그린 그림이었다. 하지만 대상은 검은 하늘에 비가 오고 큰 바위가 가운데 있는 그림이었다. 그 바위 사이에는 비를 피하는 작은 새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머리로만 이해를 했는데 한참 뒤에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기까지의 여행은 참 길었다.

평화는 환경에 관계없이 주어진다. 주님이 주신 평화만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화이다. 이 세상의 평화는 임시평화이며 주님이 주신 평화만이 전쟁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이다.

케네디 대통령과 링컨 대통령은 둘 다 암살로 죽은 공통점이 있지만 케네디는 어려움을 모르고 지낸 사람이었지만, 링컨은 가난하게 자라 인간의 고뇌를 아는 사람이다. 작곡가 멘델스존도 고생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었지만, 베토벤은 작곡한 곳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청각장애가 있었다. 고통이 깊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잘 전달할 수가 있다.

최일도 목사가 모든 집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마지막 멘트는 다음과 같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 평가 내용

최일도 목사는 한국에서 유명한 목회자이다. ‘밥퍼 목사’ 라는 별칭으로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최일도 목사는 서울 도심 한복판 빈민촌에서 시작된 나눔 공동체 ‘다일공동체’ 를 설립하였다. 나눔의 영성과 세계 빈민층을 돕고 있는 다양한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다일 공동체는 현재 한국 내 밥퍼 사역을 비롯 제 3세계인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서 배곯는 아이들을 섬기는 밥상공동체로 사역을 넓혀왔다. 다일천사병원을 운영, 전액무료, 전원 봉사 체제 또한, 다일평화의마을(다일공동체 본원)과 설곡산다일공동체(영성수련원)을 통해 경건생활과 영성훈련을 돕고 있다. 최일도 목사는 1988년 서울 청량리 역에서 나흘을 굶어 쓰러진 노인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참고로, 다일이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 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다.

> 다양한 사람들이 교파와 교리와 이념을 초월한 영성생활과 봉사생활을 함으로써 나사렛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일에는 '일치 안에서 다양성(Diversity in Unity)' 이 빛나고, '다양성 안에서 일치(Unity in Diversity)' 의 정신이 어우러지는 삶이 있습니다.[252]

최일도 목사의 설교는 일단 설득력이 있었다. 삶의 경험과 실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간증이 있고, 사역의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목회자나 설교자들보다는 가슴 깊게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다. 좋은이웃교회 대부분의 교인들도 이점을 깊게 보고 감동을 받았다. 또는 그는 수많은 집회를 통해 스피치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장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머러스했고, 청중과 깊이 소통하는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쉽게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그로서는 삶의 경험이 있는 설교는 당연히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중들로 하여금 결단하는 마음까지 갖게 하였다. 실제 집회 후, 다일공동체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한 후원자가 전체 교인의 절반 이상이 물질로, 기도로 후원을 약속하였다. 최일도 목사의 설교를 모니터링한 연구반원은 그의 설교를 한 마디로 치유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의 삶의 경험을 통한 설교를 통해 숨가쁜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깊은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힘들수록 더불어 함께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는 삶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것이 ING 말씀 집회를 통해 깨우친 커다란 교훈이었다.

3) 주일설교(2010년 12월~2011년 6월)

김기석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평가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7개월)의 설교 내용을 참고로 했다. 설교 분석 평가는 크게 두 부분인데 내용적 부분

---

[252] http://www.dail.org/dail

과 전달적 부분이다. 아래와 같이 질문들이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담임목사를 제외한 연구반원 3명이 각자 나누어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로 하여 평가에 참여해 주었다. 강조점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 좋은 설교자로서 세워져 가기 위한 실천적 노력임을 강조했다.

설교 일정표

일시	성경본문	제목
2010. 12. 5	잠 25:13	신실한 일군
2010. 12. 12	롬 12:14~18	우리가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2010. 12. 19	사 9:6~7	여호와의 열심
2010. 12. 26	삼상 7:12	에벤에셀의 하나님
2011. 1. 2	눅 15:3~7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2011. 1. 9	사 43:1~7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2011. 1. 16	고후 12:9	희망이 있습니다
2011. 1. 23	빌 1:3~11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2011. 1. 30	마 25:14~30	거룩한 부담감
2011. 2. 6	히 11:17~19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2011. 2. 13	벧전 4:7~8	사랑이 필요합니다
2011. 2. 20	엡 1:15~17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2011. 2. 27	막 5:25~34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2011. 3. 6	골 1:24~29	교회를 사랑합니다
2011. 3. 20	사 40:1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11. 3. 27	스 8:3~8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1

2011. 4. 3	요 10:14~15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2
2011. 4. 10	수 1:10~18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3
2011. 4. 17	요 12:12~19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 4
2011. 4. 24	딤후 2:8	기억하십시오
2011. 5. 1	창 18:19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2011. 5. 8	엡 6:2~3	언약의 백성
2011. 5. 22	막 8:1~10	왜 걱정하십니까
2011. 5. 29	행 11:19~26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6. 5	출 17:8~16	영적 전쟁의 원리
2011. 6. 12	살전 5:16~18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2011. 6. 19	전 3:11	생명의 진리를 알려 주십시오
2011. 6. 26	행 19:1~7	이 땅에서 끝은 없습니다

<표 25> 주일설교 일정표

(1)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내용적 부분)

A. 서론

(1) 주의를 모으는가?

(2)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어떤 필요를 보여주는가?

(3) 당신을 주제에로 이끌어 주는가? 아니면 중심 관념으로 인도하는가? 또는 대지에로 인도하는가?

(4) 길이는 적당한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B. 구조

(1) 발전은 분명히 되었는가? 전체적인 구조는 분명한가?

(2) 설교는“중심관념(Central Idea)”이 있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3) 전이는 분명한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가?

(4) 대지 간에는 논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연관이 있는가?

(5) 주요 요점들은 중심관념과 관련되어 있는가?

(6) 소지들은 대지들과 분명하게 관련되고 있는가?

C. 결론

(1) 설교는 절정에까지 이르렀는가?

(2) 관념들을 적당하게 요약하였는가?

(3) 효과적인 마지막 호소나 제안이 있었는가?

D. 내용

(1) 이 주제는 의미 깊은 것인가? 그것은 적절한가?

(2) 이 설교는 “확고한 주석”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3) 설교자는 자신의 본문의 어느 부분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4) 주제의 분석은 철저한가? 논리적인가?

(5) 설교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가?

(6) 내용은 창의성이 있는가?

E. 보조 자료

(1) 보조 자료는 “논리적으로” 요점과 관련되고 있는가? 그것은 흥미로운가? 변화가 있는가? 특수성이 있는가? 충분한가?

(2)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전달적 부분)

A. 어체

(1) 설교자는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가?
(2) 그의 어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가? 변화가 있는가?
(3) 단어들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4) 설교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B. 지적 직접성

(1) 설교자는 그 설교가 들려지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민(機敏)한가?
(2) 당신은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3) 그는 친절한가?
(4) 그 설교는 살아 있는 대화처럼 들리는가?
(5)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가?

C. 입을 통한 전달

(1) 목소리는 듣기에 쉬운가? 발음은 분명한가?

(2) 음성의 변화는 있는가? 음성의 고저의 변화가 있는가?

(3) 전하는 힘의 변화는 있는가? 속도의 변화는 충분한가?

(4) 설교자는 휴지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5) 설교자의 열정은 살아있는가?

D. 몸을 통한 전달

(1) 그의 온 몸이 설교하는 데 연루되는가?

(2) 그는 제스처를 쓰고 있는가?

(3) 제스처는 즉흥성이 있는가? 폭은 넓은가? 분명한가?

(4) 싫증을 주는 버릇은 없는가?

(5) 자세는 양호한가? 설교자는 기민(機敏)해 보이는가?

(6) 훌륭한 얼굴 표정은 있는가?

E. 청중의 수용성

(1) 설교는 흥미를 끌었는가? 당신의 태도에 적용되는 것이었는가?

(2) 그 설교는 당신의 지식과 관련되고 있는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가?

(3) 설교자는 당신과 눈을 마주쳤는가?

(4) 당신은 그가 청중의 반응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가?

□ 평가 내용

설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는 늘 설교에 있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좋은 설교자를 향한 노력을 넘어 청중들이 원하는 설교의 방향이 너무나도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목회자라면 어느 누구라도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 바램만큼 쉽지 않는 것이 설교이다. 그래서 늘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노력할 뿐이다. 여기에 대해 한세완 목사는 그의 책, *"평신도가 갈망하는 설교"* 에서 목회자들의 설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청중들이 느끼는 설교의 최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분석은 많은데 답변이 적습니다." "지나치게 비인격적이고, 지나치게 명제적입니다." "설교들이 나의 삶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253]이러한 답변 속에는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이 외치고 있는 그 답답함의 실체가 모두 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기석 목사의 설교는 일단 이해하기 쉽고, 성경말씀을 잔잔하게 풀어가는 능력이 있다. 김 목사의 장점은 초기 서론 부분인데 귀납법적으로 서론 부분을 도입하기 때문에 청중들이 쉽게 마음의 문을 연다. 설교학에서는 흔히 설교 시작 5분까지를 청중들의 마음을 얻는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 보는데, 김 목사는 중심 주제로 이끌기 위해 적절한 실제적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 한 예로, 2011년 6월 12일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살전 5:16~18)" 말씀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교회 교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김 목사는 특별히 아버지 주일(Father's Day)을 맞이하며 서론적 부분에서 자신의 가정의 가훈을 언급하면서 아버지의 가치관과 관점,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언급하면서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서 성경의

---

[253]한세완, *평신도가 갈망하는 설교*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9), 21.

본문의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 간다. 그리고 2011년 5월 22일 주일 설교에서는 마가복음 8장 1~10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말씀의 첫 부분에서 오늘날 청중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영적인 침체'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면서 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소개한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한다. 청중의 심리적 부분을 이해하면서 본문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김 목사는 대체적으로 주제, 본문, 강해 설교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설교의 목적으로는 치유적인 설교도 자주 시도[254]하고 있고, 교훈적인 설교의 시도[255]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기석 목사는 전달력과 표현력도 뛰어난데, 원고는 거의 외우고 있다. 원고를 거의 외우고 설교를 진행하다 보니, 제스처라든지, 음성의 고저 등이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렇다 보니, 위의 설교 분석 평가서 내용들 가운데 입을 통한 전달과 몸을 통한 전달 부분에서는 분석에 참여한 3명의 연구반원의 평가가 대체적으로 탁월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4) 다양한 설교의 시도와 평가(설교자: 정용권 목사)[256]

(1) 제목 설교(한나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삼상 1:1~18)[257]

■ **설교유형: 제목 설교**

---

[254] "희망이 있습니다(고후 12:9)", "왜 걱정하십니까(막 8:1~10)",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같은 설교는 이민교회 교인들에게 회복을 위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다.

[255] "신실한 일군(잠 25:13)",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히 11:17~19)",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행 11:19~26)" 같은 설교는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교훈적인 설교에 속한다.

[256]이 부분에서는 본인의 설교원고와 동영상을 바탕으로 연구반원들이 평가하였다.

[257]서울영등포교회 주일저녁찬양예배설교 한나여전도회 헌신예배(2011년 5월 8일)

■ **주　　제: 기도**

■ **성경말씀: 개역개정**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나가 부르는 구원의 노래라고 정했습니다만, 한나가 부르는 노래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은 소유하신다'는 뜻의 이름을 가진 레위 지파로 고핫 자손이었으며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막일에 직접 참여하는 특수한 제사직을 감당하는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함께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을 찾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로 인해 남편이 브닌나를 통해 자녀를 낳도록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사회문화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다른 이를 취해서 대를 잇는 풍습이 있었던 것이지요!

주목할 부분은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드린 후에는 제물을 나누었는데, 브닌나와 자녀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배(갑절)로 줍니다. 차이가 있지요! 아마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5절** 말씀에서 주목할 수 있는데, '그를 사랑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과 동시에 연민의 정도 가지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아마 질투와 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식구도 많지만, 혼자인 한나가 분깃이 더 많다. 뿐만 아니라 동정심으로 인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여성의 질투와 시기심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올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남편 분들이 아내에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여러분의 밥상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무튼 시기, 질투 뿐 아니라 브닌나 같은 경우는 교만한 마음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엘가나로부터 사랑을 덜 받는 대신 자신이 자녀가 있음에 어떤 우월감이라고 할까요? 아이가 없는 한나를 매일 약올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 시기, 질투보다 교만한 사람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 그러면서 야이야이~야들아~!"

아마 이러한 부분이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실 한나는 매우 신앙적인 사람임을 성경은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 없음을 남편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의 핍박에도 맞서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다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신의 불행을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해결 받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나의 이름을 해석하면 '은혜롭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한나가 처한 상황이 우여곡절이 많은 삶이었지만, 한나는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 강한 이끄심을 받기 위해 그녀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배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세 가지 관점에서 주목해 봅니다.

1.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한나의 경우처럼 고통 속에서 눈물과 함께 시작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늘 비바람이 그치지 않고, 흔들리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한나의 기도는 아픔에 의해 유발된 것이었지만 그 아픔에 제한을 받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의 기도는 서원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11절**). 다함께 1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1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의 형태로 기도를 드림으로써 한나는 자기 기도에 책임 있게, 아니 희생적으로 동참한 것입니다. 구하면서 동시에 드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또한 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나의 기도는 받음과 드림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즉석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행하는 어떤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구함과 동시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서원 덕분에 젖을 떼자마자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역사와 민족 앞에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로 세워주셨습니다. 어떤 서원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서원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2.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한나는 홀로 앉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실로 성소를 관장하는 제사장 엘리가 현관의 감독 자리에 앉아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러한 현상은 기도하는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그 당시 행해지던 일반적인 기도 형태에서 크게 벗어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성경말씀 가운데 한나 말고도 오해를 받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날 기도하면서 그와 유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은 이유도 유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절히 기도함에 있어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짖는 기도이고, 하나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있어서 삼중적 방법을 제시하시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가 생각한 정상적인 기도 방법은 제사장이 주장하는 공동체의 모임에서 의식과 분향, 동물 제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제물도 없이 나타나 제사장에게 지시를 구하지도 않고 그 시대의 제반 예배에서 행하는 의식적 관습을 무시하며 교회의 승인도 없이 곧장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중개자 없이 자기 목소리로 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대에 랍비들은 한나의 이 기도를 진정한 기도의 모델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소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과 백성의 종교 생활을 보호하고 지도할 권한이 있었던 엘리는 한나를 떠돌이 여성,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으로 보고 그녀를 꾸짖으며 신성한 예배 처소 안의 예절을 어긴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권위에 기가 죽거나 관례에 얽매일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교권 제도보다 그녀 자신의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한나는 엘리의 책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자기 삶의 아픔을 토로함으로써 자기 방식대로 기도할 권리가 있음을 단언합니다.

우리는 한나의 이 전례 없는 대담한 태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견상 평범한 이 여성, 마음 속의 깊은 갈망 외에 무언가 특이한 점이 없던 이 여인은 어떤 대본 없이 사적으로 조용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한나는 당대의 제사와 예배 의식 체제를 초월해 성소 안에 자리를 잡고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조용하지만 내면의 부르짖은 최초의 여성, 아마도 최초의 "보통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와 침묵의 기도 사이에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3.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기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엘리는 한나의 내적인 침묵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인식하며 그녀를 축복하고 그녀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빕니다. 그의 제사장적 축복은 개인적인 성격이 아주 강한 한나의 기도

를 그 이전과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한나도 방금 전에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렸던 엘리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곳을 떠난 후 이제는 만사가 다 해결되었고 기도가 이미 응답된 듯이 행동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순간에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진실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에게도 중요한 기도의 원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 금식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가식이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접속(Plug-in)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의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영등포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중심에 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총동원 전도주일부터 성전건축까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바라옵기는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말씀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중직들,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함께 하기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도 좋습니다. 침묵의 언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는 어느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기도가 아니라 통전적이며 균형잡힌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영등포교회는 공적인 기도 가운데는 침묵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공적인 기도 모임 가운데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시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싶으신 분은 교회 기도실을 찾아주시거나 개인적 기도 장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처럼 간절함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우리 한나여전도회와 영등포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 본문 설교(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에스더 4:13~17)[258]

---

[258]서울영등포교회 에스더여전도회 헌신예배설교(2011년 6월 12일)

❑ **설교유형: 본문 설교**

❑ **설교주제: 하나님의 구원**

❑ **성경말씀: 개역개정**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서는 구약성경 중에서 가장 독특한 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는 다른 성경 말씀에서처럼 흔하게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선덕여왕이라든지 장희빈 같은 여성들의 활동 무대가 돋보이는 한 편의 사극 드라마와 같은 구조 속에서 내용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에스더서의 바로 그런 점이 오늘날의 현대인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역사하심'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게 보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다른 성경 부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토지가 극대화되고 너무 방대하여 전국을 127행정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과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무튼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3년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가 얼마나 성대했는가 하면 잔치기간이 180일 동안 진행됩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 후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잔치가 끝난 뒤 국빈들은 모두 돌려보내고 나머지 수고했던 수산성의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가 1주일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규모가 그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기분 좋게 잔치를 진행하며 마음껏 취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 왕후가 잔치자리에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치자리에 왕후가 얼굴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전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도 나름대로 여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는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후 와스디가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때 왕의 반응은 '왕이 여러 사람 앞에서 아내에게 무시당한 것으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진노가 끌어 올라서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받았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가정사로 쉽게 설명하면 남편 손님들이 왔는데, 아내가 얼굴 내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열 받는 남편들이 많겠지요!

그런데 주목할 부분은 사람은 술을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대로 반응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자, 오늘날 왕후 와스디가 겁도 없이 대 페르시아 황제의 명을 거역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곁에 있는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도 술이 취한 상태니까 판단이 흐려지게 되지요! 좀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왕의 왕비가 남편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유행이 되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남성들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왕후부터 혼을 내서 남성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아내나 여성들

에게 무시당하게 되면 참을 수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술 먹은 기분에 옥신각신 하다가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겠다는 결론까지 감정이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해할 부분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술은 많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술과 관련된 환경과 상황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한 잔 술이 두 잔 되고 두 잔 술이 석잔 되고 하다 보면 주님 '주(主)'짜는 보이지 않고 '술 주(酒)'자가 보이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결국 왕후 와스디는 폐위가 되었습니다. 술김에 한 말들은 술이 깨고 나면 후회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왕이 한 번 뱉은 말을 취소할 수는 없고, 이 일로 인하여 왕의 마음이 많이 상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찾아와서 왕후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간청을 하게 되고 전국에서 왕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요즘 같은 표현으로 하면 미스코리아나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회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 듯합니다. 이러한 왕비 선발은 장기간 치장을 하고 피부를 관리하게 됩니다. 수많은 도전자들 가운데 특별히 준비하는 유대인 처녀가 있었는데 부모가 없어서 사촌인 모르드개의 집에 사는 에스더라는 처녀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외모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전국의 모든 미녀들을 제치고 영예의 1위를 차지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2장 17~18절** 말씀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7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18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여기까지만 보면 누가 봐도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민족의 여성들보다도 유대인인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오라버니인 모르드개의 성품은 강직하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유대인의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왕이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모두 위에 두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에 3:1)**.

그가 성문에 출입할 때 마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개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어 보니까 모르드개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알리게 됩니다. 이러한 표현은 결국 하만이 모르드개만 미워하고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 전체에게까지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우리는 '왜 모르드개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왕궁의 문지기입니다. 그 시대에 페르시아의 제 이인자인 총리대신 하만이란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하만과 모르드개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만의 위세에 눌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그러나 유독 문지기인 모르드개만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하지 않는 이유를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모르드개가 왜 절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모르드개는 유대인으로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입니다. 아각은 아말렉의 왕족을 가리킵니다. 아말렉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족속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시켜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르드개는 이 일을 기억하면서 그에게 절할 수 없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르드개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든지 절할 수 없는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의 이러한 행동은 유대 민족에게 상당한 위기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만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분노는 유대인 말살 정책을 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개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쓴 채 대성통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결국 왕후 에스더에게 들리게 되어 오라버니 모르드개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르드개가 에스더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에스더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 당시 그 나라 풍속은 왕이 부르지 않았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고, 에스더는 왕이 이미 자신을 한 달도 넘게 부르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나갔다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그때 모르드개가 하는 말이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4장 13~14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3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으므로 혼자 안전하다고 생각지 말아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할 것이지만, 너와 네 집은 망할 줄 알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지! 너 혼자 살기를 원하면 한 마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엄포입니다. 생각해 보면, 혈육지간에 너무 잔인한 표현입니다.

어떠한 이유였든지 간에 사고는 모르드개 자신이 쳐 놓고, 에스더에게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설득하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1장의 내용들에 주목해 보면, 모르드개가 유독 에스더를 굉장히 준비 아닌 준비를 시키는 대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말을 듣고 결국 '내가 나의 민족과 오라버니를 위해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 보겠다'고 일사각오를 합니다. 그 내용이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왕이 그 당시 정치적으로 골몰하고 피곤해 있었던가 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쉬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마침 그 시기에 에스더 왕후가 아름답게 꾸미고 왕 앞에 나타나니까 의외로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나온 것을 짐작하고 에스더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빈말은 아닌 것 같은데, 통이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와스디 왕후 사건을 예로 보아도 말이 많이 앞서는 스타일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당장 소원을 말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겠으니 잔치자리에 하만과 함께 나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과 함께 기분 좋은 잔치자리에 참여하여 역시 소원을 말하라고 하지만 다시 잔치에 나와 달라고 뜸을 들입니다.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나를 어여삐 보시면 내일 또 잔치에 나오소서!"하고 에스더가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합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이 오늘은 정말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비로소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나의 민족을 나에게 주옵소서!" '차라리 우리 민족이 종으로 팔려간다면 내가 감히 왕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흉계를 꾸미느냐"고 하면서 왕이 화를 냅니다. 결국 이런 일을 꾸몄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고 하만은 그 동안 모르드개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준비하였는데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리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간략히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눈다면,

1. 목숨만 건다고 일이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되 아주 지혜롭게 상황에 대처해 갔습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이 '별'입니다. 영어로는 '스타(Star)'인데 오늘 말하는 소위 스타처럼 품위유지도 잘 하면서 지혜롭게 상황을 풀어나갔습니다. 결코 가볍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결심만 하면 일이 되는 줄 압니다. 한 번 목숨 걸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물론 목숨을 걸만한 결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단력만큼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자신의 상황을 잘 살피며 풀어가는 능력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 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대처할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나누어서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에 모든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과정이 좋으면 결과가 좋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도 아름다운 법입니다. 문제는 과정이 없이 결과만 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에스더에게 있어서 오랜 시간 나누어서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고로, 에스더 **5장 2~3절**의 말씀에 주목하여 보면,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호의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쏟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제가 열 좀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이야기했겠지요! 그렇게 되면 자칫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계획을 실행해 나갔습니다. 이것은 에스더의 엄청난 침착함을 보여 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에스더의 심리적인 깊은 내면을 들어가 보면, 본인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울까요? 빨리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침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고난이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고난과 함께 살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세상을 더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자세가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가 평생토록 문제 하나만을 해결해 나가며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요,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을 때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꼭 우리가 지녀야 할 삶의 자세는 문제들 속에서 한 순간 한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으며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에스더여전도회와 교우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2. 철저하게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목숨 걸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는 밤낮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함과 동시에 육적으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열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인간은 목숨을 걸어야 할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분노와 의협심으로만 가득 차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분노와 의협심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일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감정과 의지만으로 일하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기도의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이 아울러 있어야 합니다.

냉철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계속해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기초적인 일은 열심만 가지고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준비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으면, 누가 쓰겠습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자기 수준의 맡은 일로 도태되어 버립니다. 철저한 준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백성을 구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목숨을 건 행동을 하기 이전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으로 두려움이 그녀를 감쌀 때 그녀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렸습니다**(에 4:15~16)**.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라는 부와 권력을 지닌 자리에서도 자신의 안일만을 꾀하지 않고 위급함을 당한 민족을 생각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였습니다**(에 4:15~5:4)**.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준비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아무도 희망을 보지 못할 때, 희망을 말할 수 있고, 비록 세상에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공의와 진리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한 사람이,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이, 에스더여전도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교우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3) 강해 설교(불가능의 강을 건너서-수 3:1~17)[259]

■ **설교유형: 강해 설교**
■ **주　　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 **성경말씀: 개역개정**

현실적인 문제와 믿음과의 관계

---

[259]대구영락교회 주일찬양예배설교(2011년 1월 23일)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을 때의 그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충격이요, 감격입니다. 그 기쁨 때문에 때로는 생각만 해도 찬송이 나오고 마치 실 없는 사람처럼 웃기도 합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현실 앞에 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와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갈등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러나 입구에서 그들은 엄청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넘실대는 요단강 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도 4~5월경입니다. 4~5월경이라는 말은 팔레스틴 지방에 봄비가 많이 내리고 또한 북쪽 레바논 산의 눈이 녹기 때문에 강의 물이 가장 많은 때를 가리킵니다. 실제 요단강이 그리 큰 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결코 쉽지 않는 장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던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큰 불가능의 문제들 앞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고 불평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아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요단강 앞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불가능의 강이 그들 앞을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불가능의 강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을 친히 들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불가능의 강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속한 미래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발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1절**에 나타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침 일찍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일찍이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22장에 주목하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22장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사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식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바쳐야만 했던 그 시험이 얼마나 아버지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야 했을까요?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주장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아침 일찍이 시작하는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지금부터 너희의 눈은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부탁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장년 외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와의 간격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질러도 안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절** 말씀에서 언약궤와 백성들의 상거, 즉 거리를 이천 규빗이라고 표현했는데, **'규빗'**은 구약 시대 길이 측정 단위입니다. **1규빗**은 **약** 45. 6cm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하면 **약** 0.912km(912m)정도가 됩니다. 아무튼 온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찬송도 도무지 귀에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침착하게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를 복종시켜야 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떠나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사건 뒤에는 언제나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 가운데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지는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현재의 중요성

계속해서 **8~9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작은 일은 시시해서 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큰일은 불가능해서 할 수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녕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 앞에 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요단강, 이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우리 가운데 사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알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나의 계획만으로 어떤 일을 꿈꾸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은 불완전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물을 향해서 걸음을 내 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깊이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광야와 가나안 사이를 흐르는 요단강 물을 믿음으로 내 딛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문제들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를 가로질러 흐르는 불가능해 보이는 강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의 강물이 서서히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믿음의 일을 위하여 앞장 선 그들의 눈에 마른땅이 보여 졌을 때 강으로 들어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학적 사고를 넘어설 때도 있습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눈에는 푸른 강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강으로 다가섰습니다. 강물은 계속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변까지 다가섰을 때도 강물은 그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5~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번 크게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비아의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이 말씀에 근거하면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마치 큰 손으로 밀어내

기라고 하듯이 강물이 뒤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보여집니다. 또한, 10절 말씀에서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즉 대구영락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교인들이 부요해지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46~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언제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었을 때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할 때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을 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가로놓인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 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사람은 누구나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처음엔 잘못해도 어쩌다 한 번쯤은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 나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었습니까?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변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비전이 혹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변질이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경청해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온 이스라엘이 다 지나기까지 강바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강

둑에 올라가 쉬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굳어져 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미 다 지나 가 버렸다는데 있습니다.

아마도 강바닥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면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강바닥에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구영락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면 다른 사람이 이 믿음의 길을 또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로 요단강 물이 언덕을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도 그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모두들 두려워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 죽음의 강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듯이 오늘 이 땅과 영원한 천국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모든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불가능의 강을 넘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4) 귀납적 설교(친밀한 교제의 완성–마 7:7~8)[260]

- **설교유형: 귀납적 설교**
- **설교주제: 기도**
- **성경말씀: 개역개정**

제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교회 반주자로,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계신 재원으로, 매우 뛰어난 열정과 섬김의 모습으로 저에게는 기억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였는데, 어느 날 천청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장파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왜 하필 그녀인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분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계셨고, 저는 위로 후 그 선생님의 방을 조용히 찾았습니다. 주인 없는 방 안에 물건들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때 책상 벽 쪽에서 저의 눈에 들어온 글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

---

[260]서울영등포교회 수요예배설교(2011년 9월 21일)

예배로,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회로!"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분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금 느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글귀가 저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때로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삶 속에서 아파하고 갈등합니다. 때로는 긍정적으로 때로는 부정적으로 늘 우리의 모습은 야누스의 두 얼굴과도 같이, 두 얼굴의 사나이의 '헐크'와도 같이 몇 번씩 바뀌는지 모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과 악마가 싸우고 있다. 그 싸움터야 말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 하루에도 나의 모습은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또한, 알 수 없는 인생 앞에서 고독한 단독자로 서 있는 것이 우리네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주목해 봅니다. 영성 신학에 깊은 안목이 있는 리처드 포스트는 그의 저서 "기도"라는 책에서 "사랑할수록 기도는 깊어진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매우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 다윗, 느헤미야, 예수님께서도 그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 자신의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권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World Trade Center(세계무역센터) 건물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으로 무너져 내렸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올해로 10주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함과 충격과 아픔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어떤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진실한 기도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그야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이고, 그 포위된 성 안에서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혹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패역한 왕 시드기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통로인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그러나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는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이젠 그럴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려고 그 으슥한 옥에까지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

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 33:3) 예레미야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성취시키는 분이십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방에서 절망을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있어서 참으로 불안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하루를 멀다하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소식들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까지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문제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취해야 할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겠습니다. 현대의 언어로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敬聽)하십시오.

7: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8: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삼중적 기도법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삼중적 간구는 동일한 목적을 지닌 것이지만, 내용상으로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조되고 적극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구하라'는 첫 번째 간구는 단순히 마음속의 간절한 기원을, 그 다음 '찾으라'는 그 기원이 행동화된 실천적 간구를, 마지막으로 '두드리라'는 좀 더 역동적인 간청으로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전제로 한 열정적인 간구를 각각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유형의 간구는 궁극적으로 기도할 때 최선의 노력과 인내로 간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간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불변하시고, 순결하며, 신실한 속성을 지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궁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예로,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부모님은 기꺼이 자녀의 도움을 들어줍니다. 어느 부모치고 자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데 때린다거나 귀찮아할 부모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있긴 있더라구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의 요청을 따뜻하게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할 테니까, 부모님은 저에게서 마음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그러면 더 불안해 집니다. 또, 분명 이 아이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도, 자기가 할 것이라고 우기는 아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찾으십시오

기도는 마치 숨은 보물찾기와도 같습니다. 예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에 보물찾기의 추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보물을 찾을까 숨죽이며, 빨리 선생님께서 '다 됐다'는 신호를 마음조리며 기다립니다. 학생들의 마음처럼, 선생님 역시 아이들이 보물을 찾아 기뻐할 모습을 떠올리며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나뭇잎 밑에 찔러 넣기도 합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아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보물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을 두드려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등포교회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다가 심령이 변화되고, 아픔과 상처와 갈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구하십시오! 구해야 받습니다. 찾으십시오! 찾아야 찾아집니다.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을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바라옵기는 기도를 통하여 천국의 문

을 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주목하시겠습니다. 첫째, 너무 성급하지 마십시오. 하박국의 인내처럼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솥뚜껑처럼 기도했다 식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기도한 대로 모두 응답될 것이다 믿고 결과를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응답을 받았다고 속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영역 중 하나가 기도응답을 단기적인 시야로 보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 주시듯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단지 그 시기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분의 생각은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8~9절**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동기가 불순하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불순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하려 하거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사람을 이용하면 금식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다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 가식이 없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접속하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완성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또한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시작입니다. 모든 시작을 기도로 출발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삶이 어려울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비록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할 힘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로, 때로는 침묵의 언어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대화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 소원하는 바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5) 이야기(체) 설교(어디를 보는가-삿 14:1~20)

■ **설교유형: 이야기(체) 설교**
■ **중심주제: 구원과 순종**
■ **성경말씀: 개역개정**

(Stagy 1) 평형 관계 깨트리기

블레셋 땅 ‘딤나’라는 동네에 예사롭지 않는 한 낯선 사람이 서성거립니다.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 갈급하면서도 애정 어린 눈빛으로 가득합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을 소유한 괴력의 사나이요.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사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음~! 저 여자.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마음속에 담아둔 연정을 가진 채 총총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온통 흥분된 마음과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혹시 반대하시더라도 그냥 감정에 충실해버려?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는데...” 많은 생각의 교차를 뒤로 하고 드디어 그는 소라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삼손이 어떤 방식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서 나타난 삼손의 말은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한 번 보실까요?

2: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온통 내 마음은 호수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요? 블레셋 땅 딤나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강하면서도 직설적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블레셋 땅 딤나에 갔었는데 거기서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반응은 “오~ 그래? 드디어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나이가 되었구나! 축하한다.”는 식이 아니라 곧바로 직격탄을 날립니다. 역시 3절 말씀을 함께 더 주목하시겠습니다.

(Stagy 2) 갈등 심화

3: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굳이 이 상황을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뭐야! 많고 많은 여자들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여자와 결혼한다고... 디질라고 작정했냐! 니가 어떤 놈인데..." 간혹 결혼을 앞둔 청춘남녀 가운데도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하는 커플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의 반대로 인하여 갈등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때, 보통 삼손처럼 밀어붙이기식의 표현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삼손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한 번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하지만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Stagy 3) 모순 분석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그는 거룩히 구별된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3~16장**까지에 나타난 전반적인 삼손의 모습은 순종적이기보다는 자기중심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왜 삼손이 자기중심의 사람이 되어야만 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어린 시절을 한 번 떠 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는 어려서부터 나실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삼손 역시 이러한 상황이 행복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날 교역자의 자녀들처럼 주목받고 기대 받는 사람으로서의 부담감도 적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이러한 주목에 대해서 착실하게 성장했기 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으로 성장했지 않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삼손의 모습 가운데 여러 곳에서 그의 여성 편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곳저곳에서 주로 이방 지역에서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딤나에서는 첫 번째 여자를, **16장** 가사에서는 창녀를, 소렉 골짜기에서는 데릴라를 찾았습니다. 이 여자들은 모두 삼손에게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괘념치 않고 쉽게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의 여자들은 모두 삼손과 진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삼손의 문제점은 바로 바라보는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지금 무엇을 봅니까?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삼손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의지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만을 바라볼 뿐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과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사회, 다원화, 정보화 그리고 오락화 및 감각 사회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본 회퍼의 말처럼,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략'시켜 버렸습니다. 삼손 역시 하나님

의 그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략시켜 버린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어느 누가 삼손에게서 사사로서의 모습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즉,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언급하였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주목할 때, 우리는 약간의 모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에 대한 설명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야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실인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그였는데 지금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삼손의 모습은 나실인으로서의 합격점에는 분명히 이르는 모습은 아닙니다. 삼손은 지금 모든 생각과 행동의 주도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예로 삼손은 **8~9절** 말씀에서 자신이 죽인 사자로부터 꿀을 취하여 먹고 나머지를 부모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삼손은 부모님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주목하면, 삼손은 결국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을 흥분시킬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통에 따라 신부의 집에서 결혼식을 가지고 또한 신랑이 신부의 하객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만약 문제를 풀면, 신랑이 신부를 빼앗기고 하객들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하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삼손의 도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결국 수수께끼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 후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은 자신의 기질과 통제되지 않는 자기중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만약 삼손 같은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큰 일을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Stagy 4) 해결의 실마리 제시

삼손의 관점이 당시의 여자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는 분명 더 큰일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가운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시면 삼손의 불순종의 모습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대변하는 모습입니다. **13장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십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자아상(自我象)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서글픈 자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

서는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대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 이루어 주십니다.

(Stagy 5) 복음 제시 및 결과 기대

사실은 삼손 개인의 감정이나 상처로서의 행위 등의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실수의 사람들을 아시면서도 이해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수많은 자기중심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러한 단점을 마지막에는 장점으로 바꾸어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신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변하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에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6)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욘 4:1~11)[261]

■ **설교유형: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
■ **중심주제: 구원과 순종**
■ **성경말씀: 개역개정**

Move 1: 거대한 사명 앞에서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지 못했고, 교회학교 생활도 엉망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도 잘 몰라서 요한복음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침을 묻혀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또한, 성경학교 입학도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 미흡하고 학교생활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소위 ‘왕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너처럼 희망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네가 우리의 친구라는 것이 부끄럽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무디(Moody)였습니다. 친구들은 무디를 향하여 항상 놀려댔고, 무디는 항상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독할수록 그 시간들을 하

[261]부산안락교회 새생명 큰잔치 발대식설교(2006년 10월 1일)

나님께 드렸습니다. 무디는 미약했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결국 무디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미미한 것을 놀랍게 사용하셨던 것이지요! 사람들의 눈에는 무디가 어리석은 존재로 비쳐졌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무디가 바로 '희망과 가능성의 재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참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잣대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좌절과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희망과 가능성과 구원을 던져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잣대를 가진 또 한 사람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입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사명 아래 서 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거대한 사명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고쳐먹어도 내키지가 않습니다. 지금 거대한 사명이 내 앞에 주어졌는데,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마음이었습니다. 적어도 요나에게는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적어도 멸망되어 버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아야 할 만한 나라와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이라고 하면, 흥분하는 것과 같습니다.

B. C 750년경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황금기였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요나!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배타적인 선민의식과 편협한 민족의식에 빠져 있는 불순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택했던 방법은 이 거대한 사명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결국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지명한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이러한 사실을 깨eke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이 큰 물고기에 대해서는 고래나 상어로 생각하는 해석학자도 있지만, 그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물고기에 대한 정확한 지칭이 없기에 그냥 사람을 삼킬만한 큰 물고기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곳이 바로 요나에게 제공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살았던 사람은 동화속의 인물 '피노키오'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서 1장의 내용입니다.

Move 2: 기도하는 요나

살아 생전 처음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버린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방법으로 물고기 뱃속을 엉망으로 만든다든지 헛구역질을 하게 하여 다시 토하게 하여 살아남는 방법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장 사흘 밤낮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지냅니다. 어둡고, 냄새나고, 황당해도 이것보다 더 비참하고 암울한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거대한 사명 앞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것도 특별히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자아와 관점과 문제를 서서히 하나님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삽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삽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욘 2:2)."** 그리고 그의 고백의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욘 2:4)."** 결국 이러한 회개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변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을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욘 2:9)."** 이것이 요나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전하고자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 구원하시는 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거대한 위임장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시간인지를…. 새 생명 큰잔치가 선포되는 이 시점부터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요나는 우리의 서글픈 자화상일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복음에 있어서는 변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120여년이 지난 짧은 역사의 변방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분의 사명자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썩었다고 외치면서, 타락했다고 외치면서 진작 그 자리에는 나만은 제외합니다. 화려한 언어는 있지만, 진작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는 세상을 향해 무감각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대한 사명 앞에서 한 걸음씩 물러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Move 3: 전도하는 요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요나는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대한 사명 앞에 또 다시 서게 됩니다. 지금 그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직한 채 떠나야만 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들려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참고로, 우리 말 개역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Then'이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a second time'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나의 관점과 이성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을 이해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간 요나는 40일 후면 도시가 잿더미가 될 것이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친 메시지는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즉 요나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니느웨 성읍에서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관점에서라면 이들이 오히려 말씀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하거나 무시해야 할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그 행악하였던 것을 멈추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왕까지 나서서 자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은 채 회개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요나가 한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처럼 날이 선 검과 같이 생명력이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전하지 말고, 너희의 생각대로 차별해 가면서 전하지 말고,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라!" 우리는 이미 전도가 단순한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거대한 대위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20절**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음'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변방에서 결국 전하는 자가 있었고, 듣는 자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Move 4: 답답한 현실 앞에서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그 사실이 그를 참으로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답답하다 못해 분노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떤 때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아니면 그릇된 일인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번 차곡차곡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인간적인 견지에서 자신이 판단한 것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여 고집하는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즉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이 유보되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그만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습니다.

Move 5: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나야!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읽어라!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사역에 사적인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나 재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진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 세상은 타락했다고, 부정과 불의가 가득하다고 외치면서, '우리끼리만 좋사오니'라고 외치진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세상과 구별시켜 놓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 큰 잔치가 시작되는 이 시점부터 이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단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듣고 난 후에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꿈을 가지고 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외롭게 서 있는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소박한 삶 가운데 소중한 가정을 꾸려가는 한 사람의 가장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린 외롭고도 가난한 소녀 가장인 한 어린이가 떠오릅니다. 또 있습니다. 비록 신체가 부자연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한 가게 집 아주머니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들이 떠오르십니까?

(7) 축전 설교(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시 30:11~12)[262]

❑ **설교유형: 축전 설교**
❑ **설교주제: 기쁨의 감사와 찬송**
❑ **성경말씀: 개역개정**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80개의 근육밖에 없지만, 7.000가지 이상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영혼의 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얼굴만을 보고도 그 사람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또한 얼마나 표현이 자연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쁠 때와 슬플 때 역시 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늘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픔과 상처와 갈등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슬픔과 고통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것은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없고, 삶이 무의미하고, 도무지 희망과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과 아픔 속에서 해매일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감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사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11~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주목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춤을 출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삶은 배신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사울에게 쫓기고, 사랑하는 아들

262서울영등포경찰서 직원예배설교(2011년 7월 20일)

압살롬에게 쫓기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 그리 평탄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매일의 능력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생각 말고 고통을 통과하여 더 깊이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I :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장점은 늘 하나님께 묻고, 부르짖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시편 30편의 상황은 다윗이 과거 걸어온 자신의 고난과 극복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통이 올 때 포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번 만져 주시면 피조물주인 우리의 몸도 마음도 환경도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30편의 다윗의 고백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 12~21절**까지의 내용에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12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벧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13 여호와의 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15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16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17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19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20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21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을 수 있는 기쁨에 지금 그의 몸과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 기쁨을 결코 감추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저 감정대로, 쾌락적으로 기쁨과 웃음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미갈처럼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을 없는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술이나 짜증으로 품을 수 있고, 다른 것을 찾아가지만,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풀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그리고 포기부터 하지 마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Ⅱ: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약성경 시대 이후 '바라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와 악과 고통을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인간의 모든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을 새롭게 바라 볼 수 있습니다. 배반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옷 벗기시고, 못 박히신 주님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모든 죽음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Ⅲ: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Shell We Dance?', '나와 춤을 추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못 자국 난 그 손을 우리에게... 우리가 손을 내어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손을 잡고 춤추십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일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출 수 있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기 전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생에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임을 알고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작은 나의 손을 떨며 내밀 때 손잡아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Ⅳ: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이제 손을 내밀 수 있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앙에서 변절하여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는 처녀들처럼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교회 영광과 회복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뻐 춤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질 때, 복음과 교회가 승리할 때, 우리 영등포교회가 이런 이유로 춤추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국에서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나라들에서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들과 춤추게 될 때까지...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구원자! 우리 삶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어떤 슬픔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막겠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십시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거야

(8) 4 페이지 설교(넘어져도 일어서십시오-삼상 21:1~15)[263]

❑ **설교유형: 4 페이지 설교**
❑ **설교주제: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 **성경말씀: 개역개정**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왜 합한 사람인가는 이미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았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셨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해서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성을 지녔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허물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부족하고,

---

[263]서울영등포구청 신우회예배설교(2011년 11월 30일)

더럽고, 연약하며 몸서리쳐지는 실수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는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실수 많은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은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있습니다.

Page 1: 성경 속의 문제(쫓기는 다윗)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계속 쫓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문제나 어떤 실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쫓겨다녀야만했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친구 요나단을 만나 푸념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관데 그가 내 생명을 이렇게 찾으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단지 사울 왕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의 푸념을 이해할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죽음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표현한 대목이 앞 장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후반 절에 주목하시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하는 말이지만,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 의해 그 목숨이 위태롭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문제였습니다. '만일 사울 왕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자세히 묻거든 거짓말을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내용이 **20장 12~22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죽음 앞에 쫓기면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다윗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여기 그 최초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실수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친구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의 모습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은 라마 나욧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다시 피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숨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은 몹시 걱정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현재 왕인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는 것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찾고 있는 사람을 숨겨 주면 은닉죄가 될 것이고 다윗과 똑같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네게 명한 바 일의 아무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 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또 한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는 물음에 그는 '사울 왕이 비밀한 일을 자기에게 주셨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받들어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죄를 짓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죄는 걷잡을 수 없는 파멸의 자리까지 계속 나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의 말하는 내용을 엿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파송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비밀 경찰 요원 도엑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사울 왕에 의해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다윗을 숨겨준 것 때문에 받은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아히멜렉 제사장 일가와 그의 온 가문이 끔찍한 죽음 앞에 내던져지는 살인극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의 심정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글픈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하므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하려 왔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찾았습니까? 칼과 창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보실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골리앗의 그 무서운 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칼로 무장을 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의 모습이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할 때 그는 무엇으로 무장했었습니까? 물맷돌 다섯 개 밖에는 없었습니다.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다윗은 참으로 당당하게 부딪쳤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다윗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파묻혀 과거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은 현재 잃어버린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 나갔던 다윗! 그러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 다윗은 골리앗의 칼과 갑옷으로 무장하고도 마음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Page 2: 세상 속의 문제(삶의 고통의 문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인생의 여정 앞에서 지금 내가 부딪히는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때로는 물질 때문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부딪히는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양만 다를 뿐 인생길에는 언제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일 뿐,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힘이 듭니다.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삶에 고통의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록 고통과 고난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살든,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시선과 방향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구조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구조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고 속이고 비바람이 끊임없이 그치지 않는 세계! 부족하고 죄인의 사람들이 모였기에 조용하게 선량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문제라든지, 억울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수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Page 3: 성경 속 하나님의 행동(하나님의 각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흔들리 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그에게 놓여 있는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도 너무 힘든 도피의 삶 때문에 지쳐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피곤한 삶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여 오는 삶의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었고 살기 위해 그는 거짓말을 계속하며 다녔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 힘들고 어려웠으면, 아니 두려웠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면해 보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경우 우리도 인간적으

로 다윗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형편이었다 해도 거짓말을 했을지 모릅니다.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과 방향을 생각해 봅니다. 알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저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공부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한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많지 않습니까? 매일 매일 살다보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조금이라도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뭐냐는 식의 불만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린 "에라, 모르겠다. 이젠 내 버전으로 살 거다." 이런 마음이 들곤 합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 성도들의 이러한 욕망 즉,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대본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장 염려했습니다. 당시는 적잖은 박해까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 듯한 하나님의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엔 너무도 지쳐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가십시오. 힘들어도 끝까지 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각본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내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더라도 우린 하나님의 대본을 뒤집지 말고 그대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고난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대본대로 갔기 때문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끝까지 가셨기 때문에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유혹 느끼실 때 많으십니까?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중간에서 함부로 대본을 바꿔 쓰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모습에 주목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하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은 미친 척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장 13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정말이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다윗은 넘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휘청거리며 넘어져 버린 다윗입니다. 이때의 슬픔의 고백이 잘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 줄 아십니까?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면, 비록 미친 체 하여 자신이 바닥까지 비참할 정도로 무너지고 넘어져 버렸지만,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으로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시편 34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넘어졌어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일어났습니다. 말할 수 없이 괴로운 자리, 넘어진 자리, 낮아진 자리, 헤메이는 비참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Page 4: 세상 속 하나님의 행동(신뢰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일어서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버렸다면, 아니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금 알 수 없는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두 손을 잠시 가슴에 얹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취해야 할 끊임없는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럴 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으로 나에게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먹구름이 끼였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관점과 정신 속에서 먹구름을 만들뿐 그것들을 걷어버리면 변함없이 따뜻한 태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온전히 열려지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슴을 감동으로 적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평가 내용

본 연구자는 Ⅴ장에서 전통적 설교와 새로운 설교 형태에 대해서 이론적인 내

용을 소개하였었다. 제목, 본문, 강해, 귀납적, 이야기(체), 현상학적 전개식, 축전, 4 페이지 설교와 같이 총 8가지의 유형을 제시했었다. 물론 다른 많은 설교의 유형들이 있지만, 그래도 본 연구자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시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설교를 작성하여 공적인 설교 시 이를 시도해 보았다. 아쉬운 것은 좋은이웃교회에서 연속적으로 설교하며 청중의 피드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환경적 제한으로 인해 부득불 본인의 설교의 원고와 동영상을 중심으로 연구반원에게 평가를 돌리게 되었다.

먼저, 연구반원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응답은 전통적인 설교에 대한 이해도는 있는 편이었지만, 새로운 설교 형태에 있어서는 생소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배경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연구반원의 평가에 의하면, 역시 강해 설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았고, 제목 설교에 대한 이해도도 상당히 높았다. 원인이 있다면, 강해 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본문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매우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제목 설교 같은 경우는 설교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쉽게 다가갔던 것 같다. 하지만, 현상학적 전개식 설교나 4 페이지 설교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좋은 평가가 있었다. 그냥 동영상으로 들을 때는 잘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원고와 함께 경청할 때 그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느낄 수 있었던 피드백은 만일 설교자가 할 수만 있다면, 다양한 설교의 형태를 이해하고 시도하는 것은 현대의 목회에 있어서 소통을 위한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5) 설교경청법 세미나(2011년 10월~2011년 12월)

설교 경청법 세미나의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교는 말씀의 사역자인 목회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다. 좋은이웃교회에서 이러한 설교 경청법 세미나를 시도하는 것은 청중들인 교인들로 하여금 설교에 대한 이해와

실제적인 설교의 시도를 통해서 설교자인 목회자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설교의 중요성을 깨닫는 시간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 경청법 세미나는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총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두 주간은 실제 교인들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는 실제의 시간을 가진다. 총 두 개의 조로 나누어지는데, 동영상 촬영도 진행된다.

설교경청법 강의내용

일시	주제 및 내용	
2011. 10. 2	오리엔테이션	1주
2011. 10. 9	설교란 무엇인가	2주
2011. 10. 16	설교의 목적	3주
2011. 10. 23	설교의 표현방식	4주
2011. 10. 30	성경적 & 복음적 설교	5주
2011. 11. 6	설교자 이해	6주
2011. 11. 13	청중의 이해	7주
2011. 11. 20	설교의 유형	8주
2011. 11. 27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9주
2011. 12. 4	설교의 기술(전달력)	10주
2011. 12. 11	설교의 실제 1 (1조)	11주
2011. 12. 18	설교의 실제 2 (2조)	12주

<표 26> 설교경청법 강의내용

■ **강의 목적:**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은 매우 급변하고도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포스트모던 사회, 다원화 사회, 정보화 사회, 오락화 및 감각 사회라고 진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도 엄청난 도전과 시대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설교 사역은 더더욱 많은 도전 속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어떻게 하면 들려지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이신가?"라는 두 질문은 매우 중요한 신학과 신앙의 질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본 강의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을 조명할 것이다. 두 번째는 들려지는 설교를 위한 설교자와 청중의 눈높이와 상황을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을 위한 쌍방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이해 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복음과 성경 중심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나아가야 할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별히 유명한 설교자와 신학자의 설교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비평) 청강자가 직접 설교를 작성하여 발표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별지를 참조하면 된다.

■ **강의 내용:** 별지 참조

■ **강의 시간:** 매주일 오후 4시

■ **강의 장소:** St. Peter's Room

Prologue

복음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 구원과 영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으며, 무엇을 .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이러한 이해가운데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추구하는데,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예배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

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파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택하신 종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구원하심과 은총이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진단할 때, 말씀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위한 설교를 위해서는 설교자와 청중의 상황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경청의 자세 등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 설교경청법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에 대한 새로운 관점(viewpoint)과 열정(passion)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 료 증

제 2011-1호

이 름 :

위 사람은 뉴욕좋은이웃교회 성서연구원 설교경청법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맺는 제자로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2월 25일

담임목사 김기석

<표 27> 설교경청법 세미나 수료증

※ 참가자 명단(이름순): 구자익 집사, 김광균 집사, 김미자 집사, 김순화 권사, 김은미 권사, 노신숙 권사, 양영자 집사, 이광순 권사, 이미숙 집사, 이선희 권사, 이정순 집사, 이정애 집사, 이종주 집사, 이진수 집사, 최명화 집사, 최배순 권사, 허영숙 권사, (17명)

□ 강의 내용[264]

[264] 본 논문에서는 분량상 12주간 진행했던 강의 내용들 중 일부분들을 발췌했다. 주로 PPT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화

1. 한국교회 초기 설교자들은 한결같이 설교란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옮겨 전하고 해석하여 삶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2. 오늘의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나 보이지 않은 채 설교자의 모습만 보이고 그의 인간적인 말만 들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3.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어 들리지 않고 하나의 간증, 경험의 발표, 또는 적절한 예화의 나열로만 인식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4.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설교 사역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된다.
5. 세속적인 설교의 형태는 설교의 신성을 파괴한다.
6. 설교의 현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한다.

설교의 목적

선포적 설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생애와 교훈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선포하는 설교

교훈적 설교 성경의 진리와 교리 또는 신학을 담아 가르치는데 목적을 둔 설교

치유적 설교 상처받은 영혼과 삶의 아픔을 싸매 주는 목양을 목적으로 하는 설교

예언적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곁길로 가는 사회와 개인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설교

회중으로부터 비참한 반응

1. 나 자신의 삶과는 무관한 설교
2.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의 전달에서 오는 실망감
3. 너무나 영력이 없는 설교
4. 삶에 지쳐있는 청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보다는 인간의 잡다한 말로 들리는 현상

한국교회 설교, 그 전달의 현장

주안점: 한편의 설교를 100%로 상정할 때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전달이 차지하는 비율이 40%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표 28> 설교경청법 강의 내용(발췌분)

◘ 평가 내용

총 17명이 참여한 설교경청법 세미나는 매주일 오후 4시 김기석 담임목사의 인도로 총 12주간 진행되었다. St. Peter's Room에서 평균 약 1시간 30여분에 걸친 이 모임에는 평소에 평신도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가지고 깊이있게 다루어져 갔다.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설교가 참으로 어렵구나!' 하는 관점이었다. 설교가 그냥 단순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신학에서부터 실제까지 목회자가 담고 가야할 인내의 시간들과 과정들이 있음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교에 대해서 평신도들에게 Open한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교인들이 목회자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도 설교란 것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됨을 인식할 때, 본 설교경청법 세미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설교경청법에 참여한 교인들의 평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된다.

첫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인식.

둘째,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있다.

셋째, 설교에 대한 신학과 형태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설교를 경청한다는 것은 청중에게도 책임이 있다.

다섯째,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에게는 통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설교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중요하다.

일곱째, 소통을 위해서는 설교자와 청중이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함께 노력해야 한다.

2. 설교의 인식도 조사(설교 설문지)[265]

교인들의 설교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별히 이민 사회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들려지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설교자와 청중 모두 설교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 임상 연구 가운데 본 연구자는 설교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설교 인식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25개의 질문이 제공되었다. 설문조사 기간은 4주 동안 진행되고(2011년 10월 2일(주일)~23일(주일)), 이 질문들을 통해 본 연구자는 좋은이웃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하는 설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실제 이민 목회에 있어서 설교자와 청중의 사이의 소통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가 되리라 믿는다.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265]구체적인 설문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귀하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영등포교회 정용권 목사입니다.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NYTS)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에 대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바쁘고 힘드실 줄 아오나 여기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 본 논문이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소망하며 이 설문은 NYTS 목회학 박사과정 연구논문인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성심껏 마음을 다해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일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목사 정용권 (문의: 010-4233-0305)

주소(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37길 1 (7/6) 영등포교회 목양관 301호

작성하시는 분의 인적사항

성별: 남, 여

학력: 국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 대학원졸업이상( )

신앙경력: 세례 받은 후( )년

직분:

※ 아래의 물음에 맞는 것을 (0)표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령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1) 30세 이하(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

6) 70세 이상( )

2. 교회의 성장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1) 설교( ) 2) 기도( ) 3) 심방( ) 4) 행정( ) 5) 전도( )

6)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

7) 기타의 내용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4. 목회자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언제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을 때( )

2)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 )

3) 기도를 많이 하고 들을 때( )

4)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을 때( )

5)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

6) 목사님의 삶이 진실하게 느껴질 때(　)

※ 기타(　　　　　　　　　　　　　　　　　　)

5. 목사님이 바쁠 때 남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6.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1) 30분 이하(　) 2) 30분~1시간(　) 3) 1~2시간(　) 4) 2~3시간(　)

5) 3시간 이상(　)

7.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1) 1장(　) 2) 3~5장(　) 3) 5~10장(　) 4) 10장 이상(　)

5) 읽지 않는다(　)

8. 심방은 설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9.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0.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1. 내세가 있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2.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3. 질병이나 불행한 사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4. 복음적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듣고 마음이 편한 설교( )

2) 축복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는 설교( )

3)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설교( )

4) 예수 그리스도의 삶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 설교( )

5) 울거나 웃게 만드는 감동을 받은 설교( )

15. 율법적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계명을 강요하는 설교( )

2)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 )

3) 지식적이며 비판적인 설교( )

4) 죄를 지적하는 설교( )

5) 기타이 내용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 교회는 복음적 설교를 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7.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8. 잘하는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감동을 주는 설교(　) 2) 진실한 설교(　) 3) 재미있는 설교(　)

4) 말씀 그대로 하는 설교(　) 5) 말씀을 듣는 내가 공감하는 설교(　)

6) 교리적으로 잘못이 없는 설교(　) 7) 복음적 설교(　)

19. 설교가 나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고 생활에서 실천이 됩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20.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1) 모든 것이 잘 될 때(　) 2) 일이 잘 안 될 때(　)

3) 기도와 찬송을 많이 했을 때(　) 4)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

5) 죄의식으로 고민할 때(　) 6) 언제든지(　)

21. 설교가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교인들이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다(　)
5) 설교자와 교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6) 잘 모르겠다(　)

22. 누구에게 듣는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1) 유명한 목사님이면 괜찮다(　)
2) 본 교회 담임목회자 및 부교역자(　)
3) 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는 모두 다(　)
4)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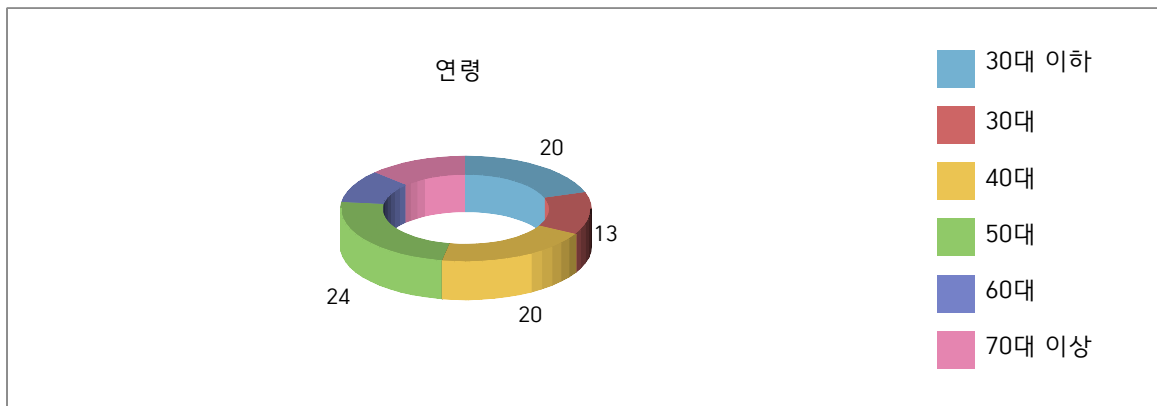
23.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배드리려고(　) 2) 설교들으려고(　) 3) 기도드리려고(　)
4)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 5) 사업상으로(　)
6) 친교상 이유로(　) 7) 기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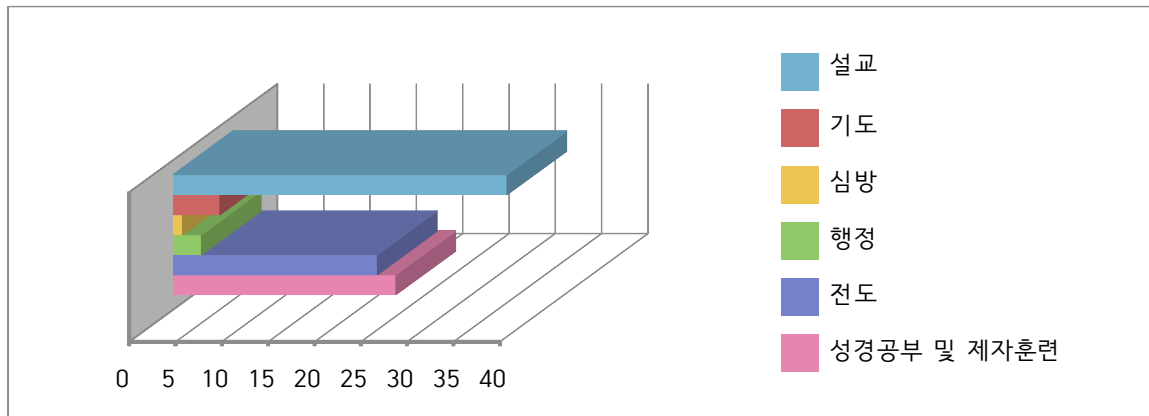
24.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인 수가 많아서(　) 2) 건물이 크니까(　) 3) 목사님이 좋아서(　)
4) 설교내용이 좋아서(　) 5) 집하고 가까워서(　) 6)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
7) 어릴 때부터 다녀서(　) 8) 기타(　　　　　　　　　　)

25.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랑이 많아야 한다(　) 2)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
3)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 4) 설교말씀이 좋으면 된다(　)
5) 심방을 열심히 하면 된다(　) 6) 교회의 위치가 좋아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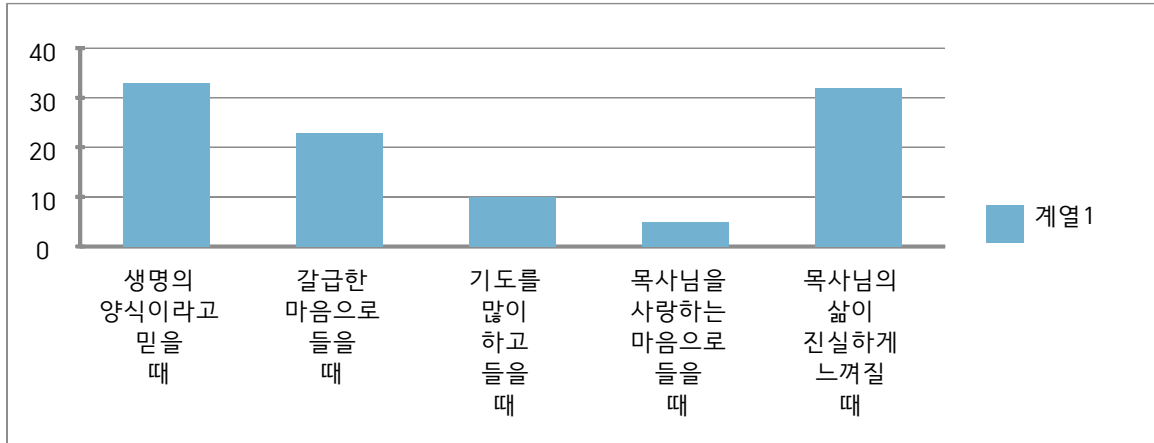
Ⅶ.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Project E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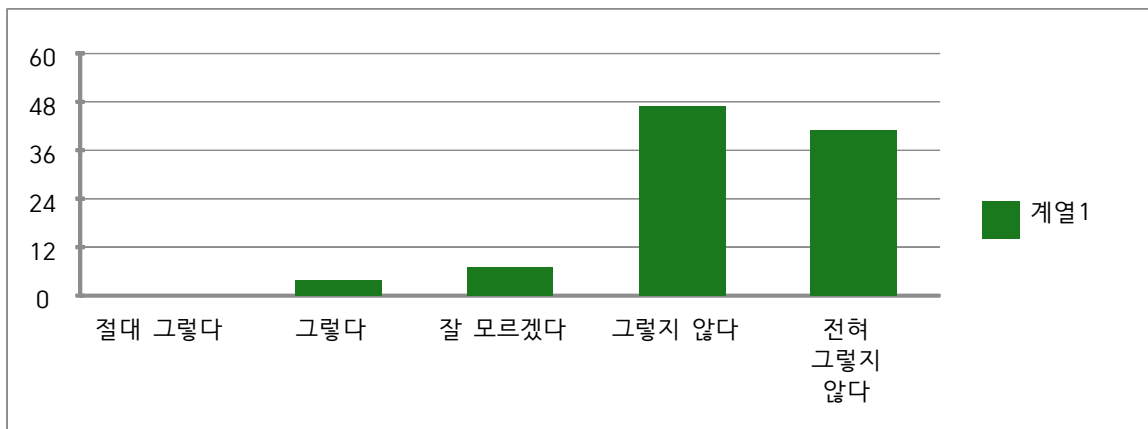
1. 설교의 인식도 분석

1) 조사 연령: 본 설문자료에 참여한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교인 중 100명이 참석하였는데, 30세 이하가 20%, 30대가 13%, 50대가 24%, 60대가 10%, 70세 이상이 13%이다. 좋은이웃교회는 전반적으로 젊은층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가 57%에 해당하고 있다.

<차트 6> 설문조사 참여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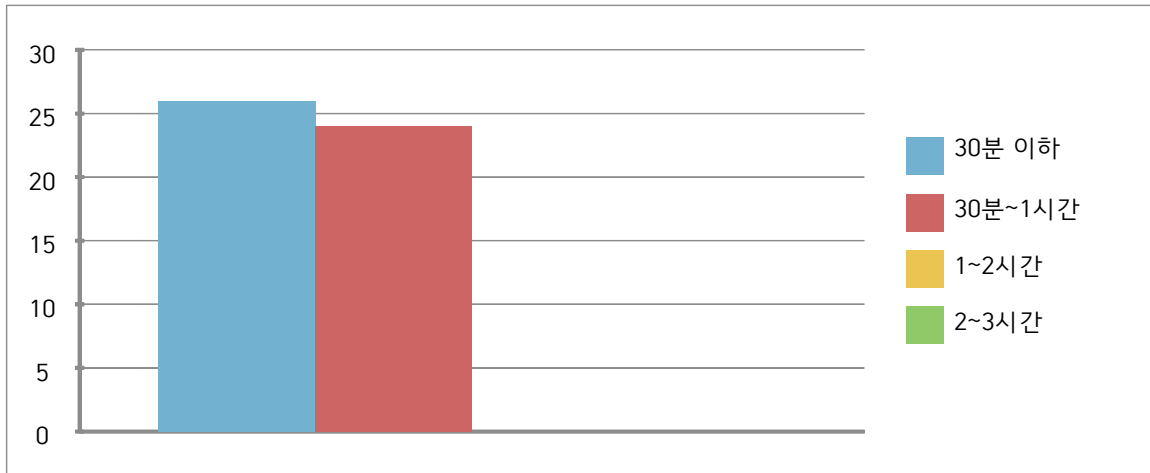
2) 두 번째 질문이었던 교회 성장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설교 36%, 기도 5%, 심방 1%, 행정 3%, 전도 22%,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24%. 이상으로 볼 때,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전도와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에 대한 인식도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다. 특별히 바쁜 이민 사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그런지 상대적으로 기도와 심방이 차지하는 부분은 수치가 낮았다.

<차트 7> 교회성장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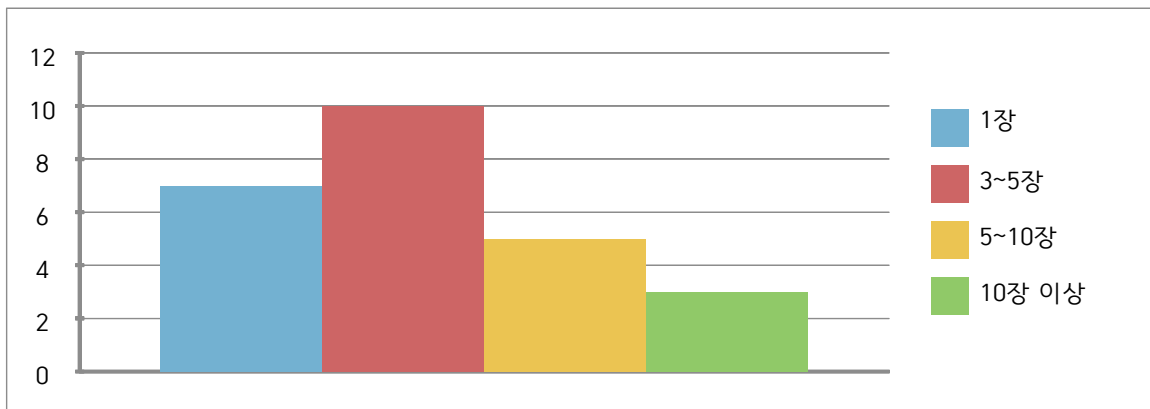
3) 세 번째 질문은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부분인데,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은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4) 네 번째 질문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은혜로운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을 때가 33%,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가 23%, 기도를 많이 하고 들을 때가 10%,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가 5%, 목사님의 삶이 진실하게 느껴질 때가 32%였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들을 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목회자의 삶의 진실성이 의외로 중요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삶이 교인들의 설교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차트 8> 설교 경청 시 은혜로운 순간

5) 다섯 번째 질문은 설교의 도용의 문제였는데, 절대 다수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수치적 통계로 보면 '안된다' 는 입장이 전체 88%를 차지한다. '그렇다' 고 대답한 4%는 아마 목회적 상황을 고려한 입장을 담고 있는 듯 했다.

<차트 9> 설교의 도용 문제

6) 여섯 번째 질문은 교인들의 하루 기도 시간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바쁜 일상 가운데의 삶이지만, 그래도 새벽기도회를 포함한 기도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진다는

응답이 52%나 되었다.

<차트 10> 기도시간

7) 일곱 번째 질문은 성경 읽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에 어느 정도 읽는지 질문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수의 응답자가 참여하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25% 수준에 그쳤다. 이유가 있다면, 역시 바쁜 이민 사회생활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그나마 참여하시는 분은 연령대가 높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아닌가 볼 수 있다.

<차트 11> 성경읽기

8) 여덟 번째 질문은 심방에 대한 질문인데, 심방은 설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지에 관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전체 100%가 중요하게 생각했다. 즉 설교를 위해서 심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심방을 통해서 교인들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때, 설교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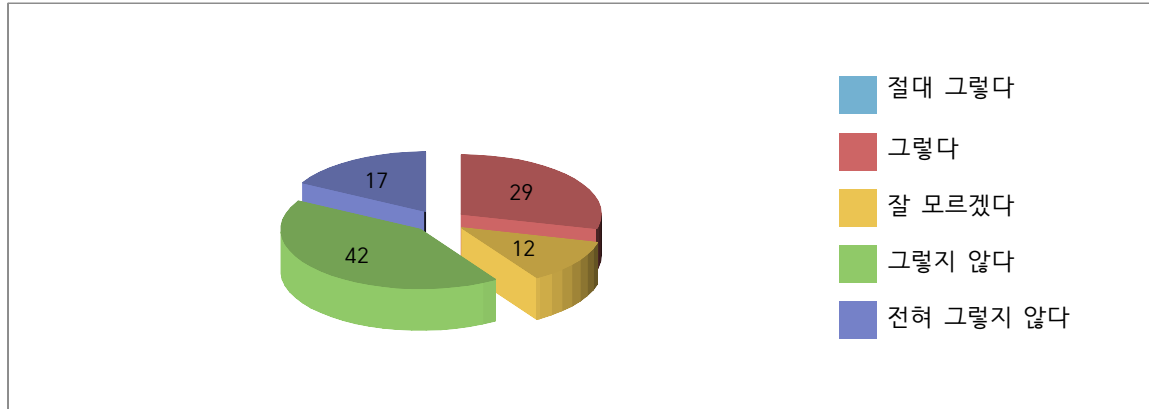
9) 아홉 번째 질문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정의에 대한 입장인데, 교인들 100%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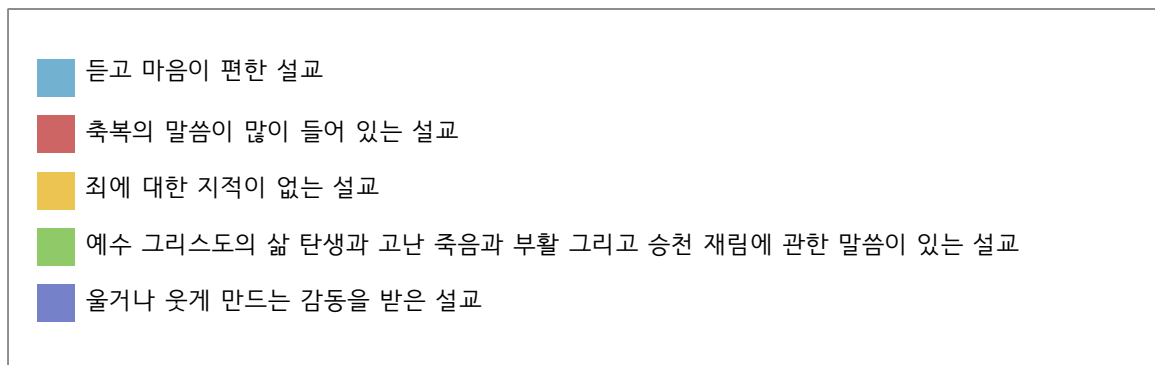
10) 열 번째 질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것인데, 모두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는 10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의 신앙은 보수적이면서도 성경중심적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11) 열 한 번째 질문은 내세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역시 100% 내세가 있음을 믿고 고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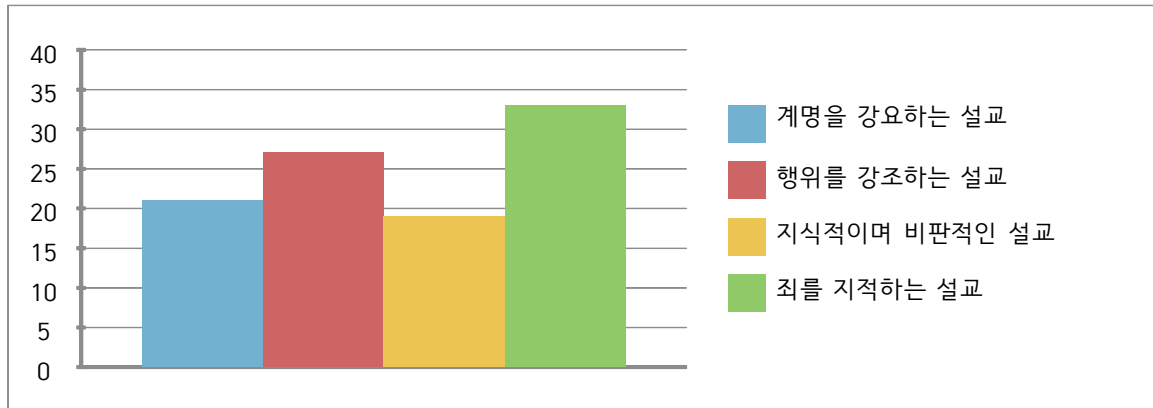
12) 열 두 번째 질문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문제인데, 역시 열 번째 질문의 연장선으로 100%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심을 믿었다.

13) 열 세 번째 질문은 '질병이나 불행한 사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인가' 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고 대답한 응답자가 29%이고, '그렇지 않다' 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9%였다. 나머지 12%는 '잘 모르겠다' 고 대답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학적, 신앙적 배경이 있는 듯하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지만, 모든 질명이나 불행한 사고가 반드시 죄를 지어서 당했다는 개념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즉,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반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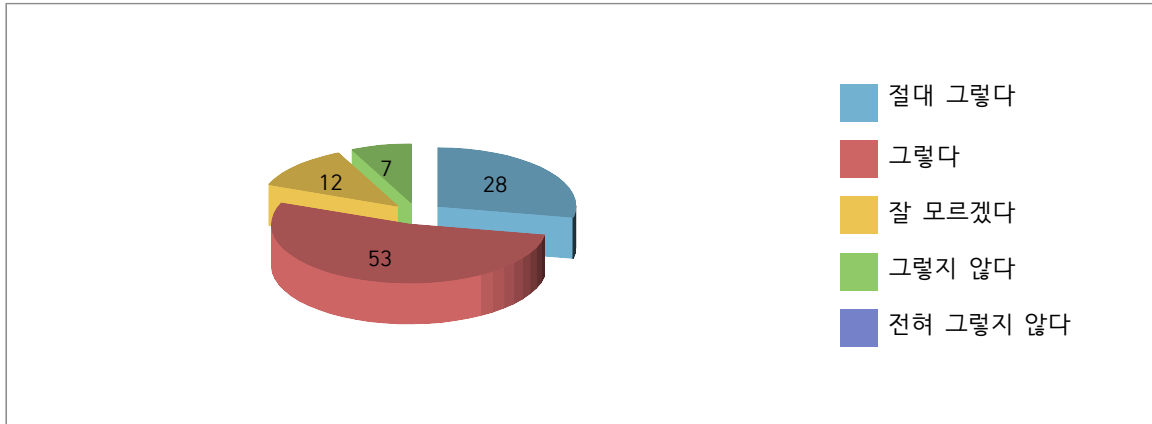
하시기 때문이다.

<차트 12> 질병이나 불행한 사고에 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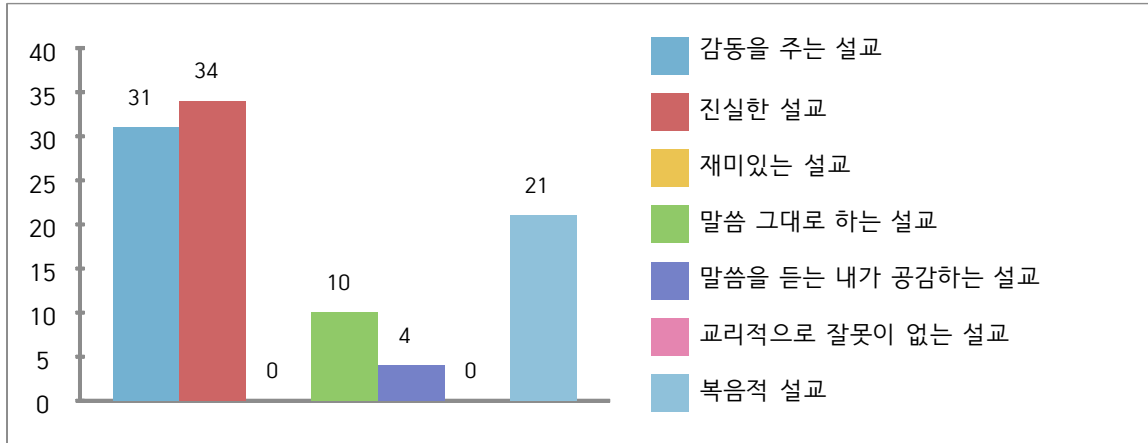
14) 열 네 번째 질문은 복음적 설교에 대한 질문으로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음적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조사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의 통계는 다음과 같았다. 듣고 마음이 편한 설교 12%, 축복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는 설교 1%, 예수 그리스도의 삶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 설교 87%.

<차트 13> 복음적 설교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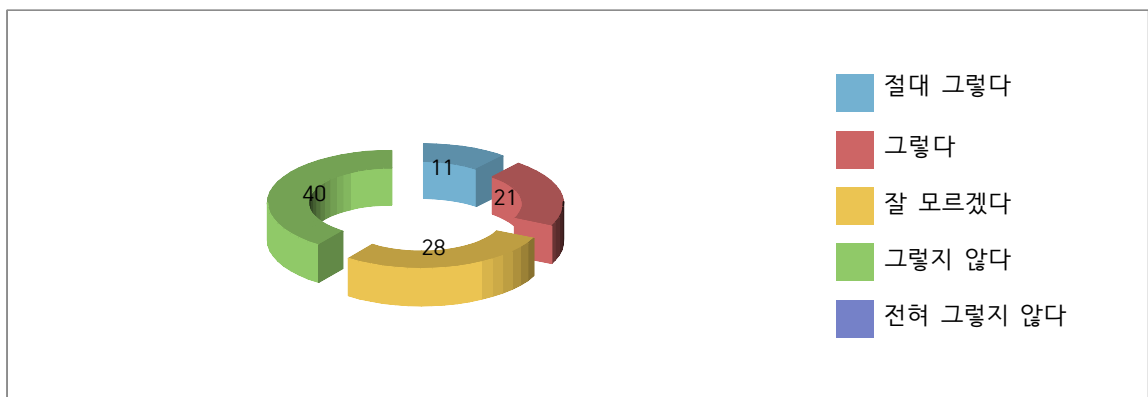
15) 열 다섯 번째 질문은 율법적 설교에 관한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다

음과 같다. 계명을 강요하는 설교 21%,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 27%, 지식적이며 비판적인 설교 19%, 죄를 지적하는 설교 33%.

<차트 14> 율법적인 설교에 대한 이해

16) 열 여섯 번째 질문은 '교회는 복음적 설교를 해야 부흥하는가' 에 관한 질문인데, 100%가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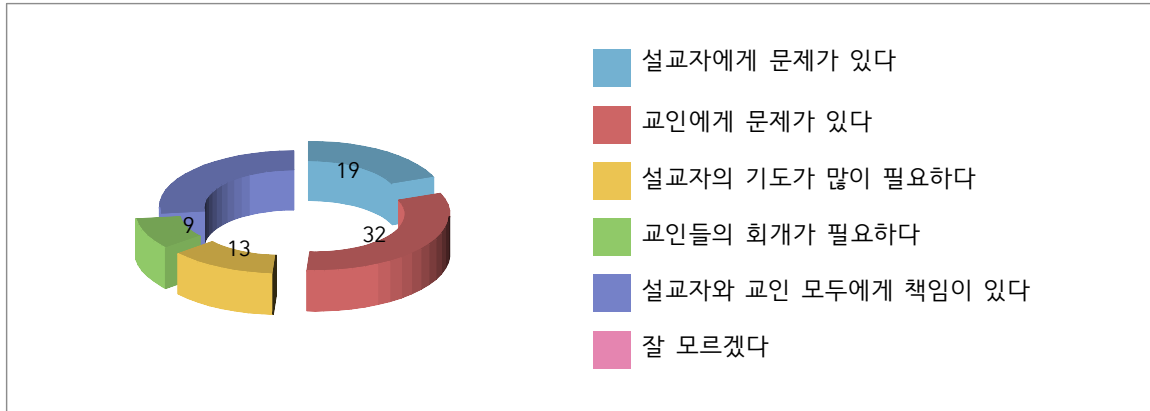
17) 열 일곱 번째 질문은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하는가'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대한 응답은 '그렇다' 는 긍정적인 부분이 81%, 그렇지 않다가 7%, '잘 모르겠다' 가 12%였다. 이것은 설교가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대목이지만, 반드시 설교만이 부흥 요소라고는 볼 수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81%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지만, 설교의 중요성을 인식은 하지만, 19%는 설교뿐만 아니라 부흥의 영향력은 다른 부분에 의해서도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차트 15> 교회의 부흥에 끼치는 설교의 영향력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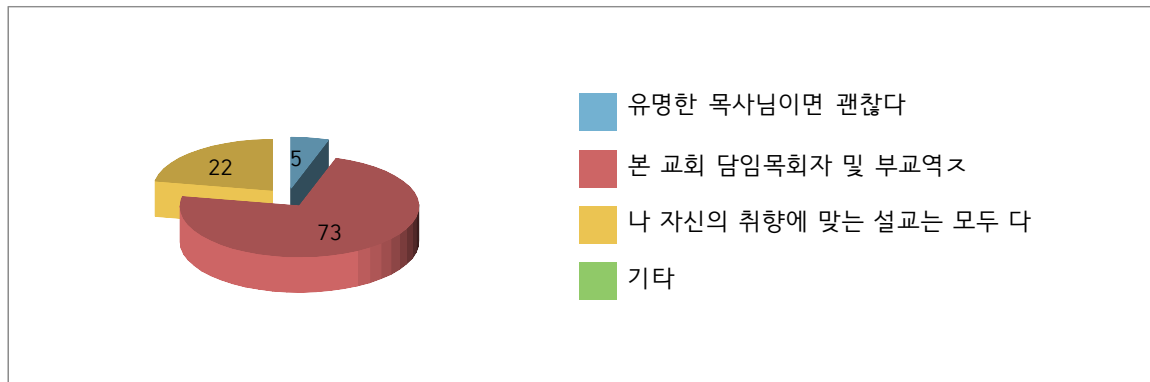
18) 열 여덟 번째 질문은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이 생각하는 잘하는 설교에 대한 이해도이다. 여기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았다. 감동을 주는 설교 31%, 진실한 설교 34%, 말씀 그대로 하는 설교 10%, 말씀을 듣는 내가 공감하는 설교 4%, 복음적 설교 21%. 이 부분에서 인상적인 것은 진실한 설교가 34%로 가장 높은 결과가 나왔다. 여기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에게 참으로 많은 주제를 던져주는 대목인데, 이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전달함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부분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다.

<차트 16> 잘하는 설교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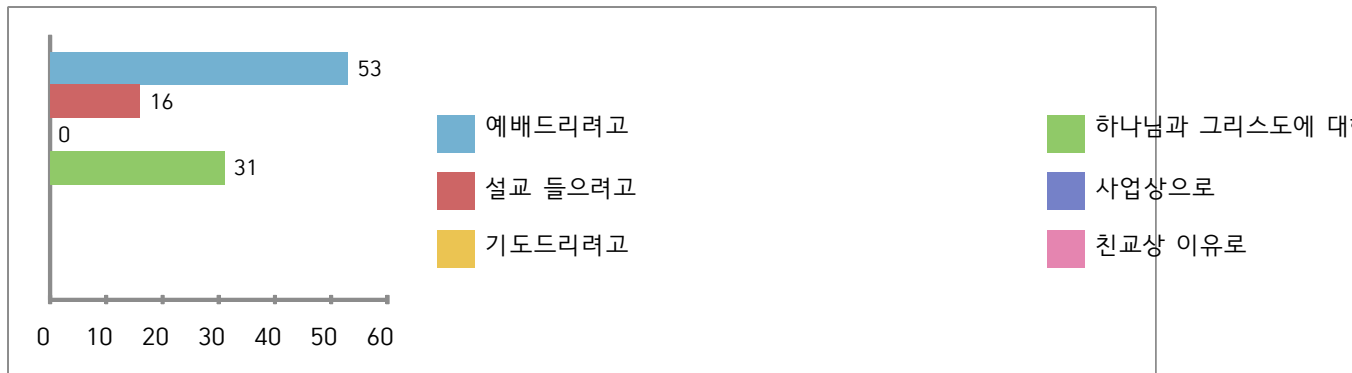
19) 열 아홉 번째 질문은 설교에 대한 삶의 실천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왔다. ‘절대 그렇다’ 가 11%, ‘그렇다’ 가 21%, ‘잘 모르겠다’ 가 28%, ‘그렇지 않다’ 가 40%였다.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설교가 교인들의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생각보다 생활에서 실천하는 부분은 쉽지 않음을 별견할 수 있다. 28%의 ‘잘 모르겠다’ 는 응답자의 수치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잘 증명해 준다.

<차트 17> 설교를 통한 삶의 실천

20) 스무 번째 질문은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될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이다. 여기에 대한 응답자의 수치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9%, 기도와 찬송을 많이 했을 때가 10%,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가 57%, 죄의식으로 고민할 때가 20%, 언제든지가 4%이다.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감사한 마음을 받을 때인데, 결국 청중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고민과 문제가 있을 때에 의외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트 18> 설교 경청 시 은혜를 받는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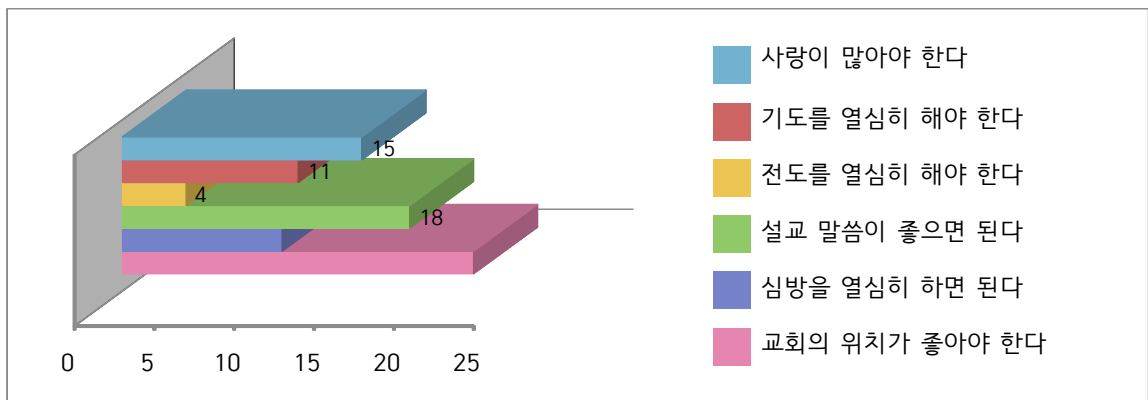
21) 스물 한 번째 질문은 '설교가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이유' 에 관한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계가 나왔다.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 19%,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 32%,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 13%, '교인들이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다' 가 9%, '설교자와 교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가 27%였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설교자나 청중인 교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이 아닌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을 위한 노력인 것이다.

<차트 19> 받아들여지지 않는 설교에 대한 이해

22) 스물 두 번째 질문은 '누구에게 듣는 설교가 은혜가 되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명한 목사님이면 괜찮다' 가 5%, '본 교회 담임목회자 및 부교역자' 가 73%, '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는 모두 다' 가 22%였다. 다행스러운 것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본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가장 좋은 설교자는 본 교회 교인들이 은혜받는 설교이고, 설교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차트 20> 은혜 받는 설교자 대상

23) 스물 세 번째 질문은 '교회에 가는 이유' 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예배드리려고' 가 53%, '설교 들으려고' 가 16%,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가 31%였다. 교회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신앙을 지키려는 부분과 설교 들으려는 부분이 그 뒤를 이었다.

<차트 21> 교회에 가는 이유

24) 스물 네 번째 질문은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인데 '목사님이 좋아서' 가 19%, '설교 내용이 좋아서' 가 58%, '집하고 가까워서' 가 9%,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가 14%였다. 이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목회자와 설교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인상적인 부분은 의외로 이민 교회는 교인 수라든지 교회 건물 규모가 교회 선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다.

<차트 22>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

25) 마지막 질문은 교회의 제일 부흥 요소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사랑이 많아야 한다' 가 15%,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가 11%,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가 24%, '설교 말씀이 좋으면 된다' 가 18%, '심방을 열심히 하면 된다' 가 10%, '교회의 위치가 좋아야 한다' 가 22%로 나왔다. 이 부분에서는 전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교회의 위치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차트 23> 교회의 제일 부흥 요소

2. 말씀에 대한 의식변화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기독교 메시지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 메시지의 초점을 어떻게 현대인에게 맞출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266]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은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기독교의 복음은 결단의 문제이다.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진정한 결단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청중들로 하여금 결단의 길로 인도하게 한다.

뉴욕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 결과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깊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첫 번째로 제공되었던 비전 축제와 ING(In the Name of God) 말씀집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인상적인 말씀의 꼴을 먹이는 계기가 되었다. 설교경청법 세미나는 그 동안 설교자에게만 국한된 사역으로 생각이 되었지만,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의 중요성과 신학적인 훈련의 장이 되었다. 무엇보다 청중이 설교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설교자는 청중의 문화와 삶의 환경 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결국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Text의 세계와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Context의 세계를 연결하는 귀한 도구인 것이다.

3. 목회 구조적 변화

1) 예배의 변화

한스 큉(Hans Küng)은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 신앙을 통해 이루어짐을 강조한

---

[266]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문화의 신학,* 207.

다.[267]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신앙의 공간과 고향이 되고, 공동체의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자극하고, 요청하며, 포용하고, 견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과 교회는 상호 의존적이며,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결국 교회라는 큰 틀에서 생각해 볼 때, 기독교 예전에 있어 거대한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의 기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전의 기둥이다. 예배신학자인 조기연 교수는 예배 안에서 드러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다.

첫째, 예배는 '세례 공동체' 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초대교회에서 세례는 부활절 날 새벽에 거행되었다. 그때 세례 받은 사람들이 맨 처음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였다. 즉 세례를 통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가 한 주간의 첫 날에 거행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예배의 참여자는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사단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것을 확인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와 생명, 부활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268]

둘째, 예배는 '결혼공동체' 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예배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와의 만남이다. 조기연 교수는 예배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로 비유하면서 선물이 오간다고 말한다. 그것은 성례전과 봉헌 안에서 가장 잘 표현되는 부분이다.[269]

셋째, 예배는 '보편적 공동체' 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보편적' 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배로 인해 사람과

---

[267]Hans Küng,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42~4. 참조.

[268]J. J. Von Allmen, *구원의 축제,* 박근원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3), 49~52. 참조.

[269]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273~4. 참조.

사람 사이의 모든 장벽이 철폐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죄를 용서함 받아 회복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서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사도적 공동체' 로서의 교회를 드러낸다. 즉 예배는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한다.[270]

결국 이러한 사실로 인식할 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교우들은 예배에 있어서도 적극적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능력을 키우게 된다.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의 예배의 자세는 프로젝트 실행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이 나타났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심리적 변화

현대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겪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 외로움(고독), 의기소침,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분노, 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재정 문제, 질병, 슬픔, 세대별 가정과 개인 문제 그리고 영적문제 등으로 인해 회복과 치유함을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기독교 상담심리학자인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그의 책 "*크리스천 카운셀링(Christian Counseling)*" 에서 치료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도우셨음을 강조하였다.

> 예수님은 종종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러나 의심 많은 사람들과 논쟁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도전도 하셨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시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삶

[270]Ibid., 274~5. 참조.

> 을 사는 모델도 되셨다. 그분은 사람들과 접촉하실 때, 실생활에서 나온 예화들을 함께 나누시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항상 자극을 주셨다. 대항, 도전, 충고, 혹은 공중 설교를 통해서 배우기 전에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위로하며,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해심 있는 조력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확실히 그분은 믿으셨다.[271]

그러면서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신 것을 모두 가르쳐야 함을 역설한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결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순종, 종족 관계, 여성과 남성의 자유 등에 관해서 가르치셨고, 성, 불안, 두려움, 외로움, 의심, 자만, 죄, 실망 등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에 관해서도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이다.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은 설교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좋은 한 편의 설교를 들었을 때 한 주간을 살아가고 결단하는데 중요한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치유하는 공동체로서 좋은 설교의 환경을 제공할 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외부 강사의 설교들도 좋은 심리적 변화를 제공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김기석 담임목사의 설교를 더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다. 가장 좋은 설교자는 어쩌면 다른 교회에서가 아닌 자신이 속한 교회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설교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명일 것이다.

3) 사역적 삶의 변화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신학적 작업이 실제적 신앙과 사역적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에

---

[271]Gary R. Collins, *Christian Counseling, 크리스천 카운셀링,* 피현희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21.

대해서 설교자와 청중의 역할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접근한 결과 설교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설교자에 대한 이해, 청중에게 주어진 과제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의 능력이 생겼다.

밀리오레 다니엘(Migliore, Daniel L.)은 그의 저서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272]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신앙생활에 있어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임무는 매우 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설교라는 영역이 평신도, 즉 교인들에게는 신학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설교 경청법 세미나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다 신학적으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신학이 있는 신앙은 구체적인 사역의 변화를 가져온다. 뉴욕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교육, 봉사, 나눔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

4. 연구반원 평가(Site Team Evaluation)

1) 연구반원의 형성과 과정

본 연구자의 연구반원은 뉴욕 롱아일랜드 헌팅턴에 소재한 뉴욕좋은이웃교회(The Good Neighbor Community Church(PCUSA)) 교인으로 구성했다.

	이름	나이	직업	교회직분	신앙경륜	비고
연구반	김기석	45세	목회자	담임목사	모태신앙	

[272]Daniel L. Migliore,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1~6. 참조.

	김호진	30세	목회자	전도사	모태신앙	
	김하나	45세	뮤지션	집사	모태신앙	
	김은미	48세	(전)교수	권사	모태신앙	

<표 28> 연구반원 명단

김기석 목사는 좋은이웃교회를 2005년에 비전에 따라 창립하여 지금까지 담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한국 장로회신학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유학길에 올라 뉴저지에 있는 뉴브런스윅 신학교(New Brunsw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교역학석사(M. Div)를 졸업하였다. 한국에서 한 때, 유명한 찬양사역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그는 찬양과 더불어 좋은 설교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민 사회 안에서 좋은이웃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의 비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다.

김호진 전도사는 좋은이웃교회에서 아동부를 담당하고 있다. 한인 1.5세대인 그는 유창한 영어 실력과 함께 성실함과 열정, 부드러움으로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잘 돌보고 있다. 뉴욕에 있는 알리앙스 신학교(Alliance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는 향후 기대되는 이민 사회의 차세대 예비 목회자이다.

김하나 집사는 현재 좋은이웃교회에서 음악 감독으로 섬기고 있다. 서울 예원고등학교, 서울대 음대를 거쳐 맨하탄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 스토니브룩 음악대학(Stony Brook State University School of Music)을 거친 재원이다.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인 그는 한국과 해외 각종 주요 콩쿨에서 우승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몬클레어 주립대학과 줄리어드 프리 칼리지에서 클라리넷을 가르치고 있으며 전문 연주활동과 더불어 좋은이웃교회에서 음악적 파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분이다.

김은미 권사는 현재 자녀들의 유학으로 인해 미국에서 머물고 있는 학부모이다.

맨하탄 음대(Manhattan School of Music)를 졸업한 그녀는 한 때, 전공이 피아노인데, 한국에서 음대 교수로 개인 독주로 사역을 하기도 했고, 현재는 좋은이웃 교회에서 반주로, 여러 모습으로 귀하게 섬기고 있다. 남편은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봉직하고 있고, 두 자녀 중 딸은 현재 예일대 음대 대학원생으로 아들은 뉴욕의 한 대학교의 학생으로 열심히 교회 뿐 아니라 학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2) 연구반원 활동

본 연구의 연구반의 운영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본 연구의 주제가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첫째, 비전축제와 ING 말씀집회에 스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피드백을 조사하여 평가를 제공해 주었다. 둘째, 김기석 담임목사의 주일설교(2010년 12월~11년 6월까지)에 대한 분석과 비평에 참여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김기석 담임목사는 제외되었고, 나머지 세 분이 나누어서 참여하였다. 셋째, 본인이 제시한 다양한 설교의 형태를 평가하였다. 전통적 설교와 새로운 설교의 형태를 살펴봄으로서 연구반원의 입장과 평가를 반영했다. 넷째, 설교경청법 세미나에 대한 피드백과 여론 조사에 대해서 김하나 집사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분이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설교에 대한 교인들의 설문조사를 주도적으로 맡아 데이터를 만들었다.

3) 연구반원의 평가와 한계

본 논문의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론적 부분은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실천적 부분인 임상 실험 부분은 쉽지 않는 과제였다. 그

이유가 먼저, 본 연구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NYTS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 중 귀국을 했기 때문에 임상 목회의 교회로는 계속 유지를 했어야 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학교 측에 특별히 상황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고, 학교 측에서도 환경적 상황을 배려해 주었다. 특별히 김기석 담임목사의 도움으로 학교 측에 임상 실험 교회로 허락해 주셨고, 비록 함께 할 수 없었지만, 본 연구자의 이론적 부분을 근거로 좋은이웃교회에서 실천적 부분을 실행해 주셨다. 아쉬움은 매주 주일에 만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었다면 본 논문의 연구는 쉽게 정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득불 E-mail과 국제전화를 통해서 상황적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다.

또 한 가지 한계점은 본 연구자가 설교에 대한 부분은 직접 설교의 형식을 가지고 설교에 대한 비평을 해야 하는데, 본 연구자의 부교역자 위치상 그렇게 시도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관계로 '자칫하면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김기석 담임목사님이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본 논문의 실험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

본 논문에 참여한 연구반원은 담임목사를 비롯한 모두 좋은이웃교회 교인이고,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이다. 하지만, 설교의 영역은 또 다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인도해 주었고, 이 시대, 특별히 이민 목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젝트의 실행 부분은 모두 이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루어진 귀한 작업이다.

Ⅷ. 결론(Conclusion)

1. 요약

본 연구자의 관심은 설교에 있었다. 특별히 역사에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은 너무나도 컸음을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즉 설교는 기독교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인 설교에 의해서 형성되고, 풍성함을 누린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생명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며,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있게 인도했던 '설교 영광의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설교 암흑의 시대'가 있었다. 설교 영광의 시대에는 설교와 함께 교회는 말씀의 풍요를 누렸다. 그 시대의 말씀은 힘이 있었으며, 교회는 영적 활기로 충만해 있었다. 현대의 설교는 본문(Text)과 상황(Context)을 연결하는 시도가 있어가 한다. 즉 현실과 성경 사이라는 두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설교가 매우 중요한 시대적 요청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설교는 그 시대의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며, 거기에는 그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언어적인 상황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게 들려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이시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였다. 설교는 기독교 복음에 있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설교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는 오늘날 거대한 도전 앞에 높여있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도 소통(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자는 먼저, 1장 서론 부분에서 임상 실험 교회인 좋은이웃교회에 대한 지역적, 역사적, 상황적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장에서는 설교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시도했다. 설교에 대한 바른 신학적 정립이 없이는 설교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각 시대와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설교자와 신학자들은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정의했으며, 설교의 신학과 목적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런 후, 설교 형태의 변천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서 예수님 시대부터 20세기까지 어떤 설교의 변화가 있었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설교에 있어서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의 기술, 즉 전달력의 문제였다. 설교의 내용이 60%라면, 전달은 4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잘 정리되고 준비된 설교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생각보다 전달력의 문제로 청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언어적 전달과 표현적 전달(비언어적 전달)에 대한 연구는 필요했다.

3장에서는 설교자에 대한 이해에 집중했다. 소통의 주체 가운데 하나인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성경적, 시대적 요청은 너무나도 많았다. 설교자에게는 신학과 인격과 영성이 겸비되어야 하고, 특별히 영성을 위해서는 바쁜 목회 일상 속에서도 연구생활과 기도생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설교자의 삶은 통전적이어야 하고, 섬김의 리더십과 설교 사역과 목회 사역에 있어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삶이다.

4장에서는 청중에 대한 이해를 시도했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을 경험하고 있다. 21세기 현대의 사회를 크게 포스트모던 사회, 다원화 사회, 정보화 사회, 오락화 및 감각화 사회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청중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중의 상황 심리의 이해도 필요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10대 청소년부터 60대 이후까지의 청중들의 상황 심리를 조사하였다. 그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느끼고 부딪히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청중과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와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한 연구이다.

특별히 3장에서 주목한 부분은 멀티미디어 부분이다. 그 이유는 멀티미디어 시대의 청중들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청중들에게 아날로그적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의 접근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소프트웨어인 우리들의 삶의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하드웨어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5장에서는 연구 조사 질문을 시도하였다. 크게 성서적, 신학적, 심리적, 문화사회적 접근을 조사하였는데, 결국 들려지지 않는 설교, 변화되지 않는 청중, 고독한 청중, 설교자와 청중간의 소통의 단절 문제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해답으로 본 연구자는 성경적, 복음적 설교의 시도와 균형잡힌 설교의 시도, 신학적 성찰, 치유적인 설교의 시도와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설교의 시도(전통적, 새로운 설교 형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6장에서는 앞에서의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의 실행이었다. 본 연구자는 여기서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서 임상 실험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좋은 이웃 비전축제와 ING 말씀집회와 같은 훌륭한 외부 강사들을 모시고 듣는 설교의 시도이다. 교인들이 실제적 경청을 통해 그들에게 끼치는 신앙적, 신학적 도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 강사는 장신대 예배설교학 교수인 신학자 김운용 교수와 한국에서 섬김의 목회로 유명한 목회자 최일도 목사였다. 이 두 분의 설교가 끼친 영향력은 매우 컸다. 좋은이웃교회 교인들의 매우 긍정적인 평가들로 볼 때, 일 년에 한 두 번의 외부강사 초청은 교인들의 삶의 변화와 또한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모로 소통을 위한 좋은 훈련의 장이 된다.

두 번째는 김기석 담임목사의 설교에 대한 평가이다. 주일설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개월간의 설교를 연구반원이 피드백을 연구 조사한다. 그러면

서 담임목사의 설교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좋은 설교의 제공을 위해 실제적 평가가 이루어진다.

셋째는 본인이 준비한 다양한 설교의 형태의 시도이다. 제목, 본문, 강해 설교와 같은 전통적인 설교를 넘어 귀납적, 이야기, 현상학적 전개식, 축전, 4페이지 설교와 같은 설교의 제시를 통해 연구반원의 평가를 수렴하였다.

넷째는 설교경청법 세미나이다. 2011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12주) 과정으로 실제 교인들이 참여해서 설교에 대한 이해, 설교자와 청중에 대한 이해, 커뮤니케이션과 설교의 신학, 설교의 실제적 참여 등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는 시간들이었다. 설교경청법 세미나는 설교에 있어 쌍방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얻은 긍정적인 교인들의 반응은 설교자에 대한 깊은 이해 즉 설교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며, 준비하는 목회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설교에 있어 들려지지 않는 설교가 단순히 설교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청중의 마음 밭과 자세도 중요함을 아울러 깨닫게 된다.

이 세미나에서는 교인들이 설교의 실제에 참여하게 된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도하게 되는데, 목회자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교인을 대상으로 설교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총 25개의 질문으로 설교와 관련된 교인들의 생각과 관점들을 조사하였다. 총 100명의 교인들이 참여했는데, 30세 이하가 20%, 30대가 13%, 50대가 24%, 60대가 10%, 70세 이상이 13%이다.

7장에서는 프로젝트 실행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설교 설문지인 설교의 인식도 조사를 분석하는 작업이 있었고, 말씀에 대한 의식변화, 목회 구조적 변화 가운데 특별히 예배와 심리적, 사역적 삶의 변화를 조사 정리하였는데, 임상 실험을 통해 실제로 변화된 부분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논문의 이론적 부분을 통한 실천적, 실제적 임상 실험 시도가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을 위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고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교자는 분명한 성경적, 복음적인 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중의 상황과 문화적 환경을 세대별로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보다 청중의 삶에 신앙에 소통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중요하다.

넷째는 들려지기 위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들에게도 올바른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준비된 마음과 세상일에 너무 자신의 열정과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청중의 마음 밭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모든 예배에 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는 설교자가 청중과 소통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 설교를 뛰어 넘어 다양한 현대적 설교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청중의 문화와 상황적 콘텐츠는 벌써 디지털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날로그적 접근은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설교가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위대한 사역이라고 인식한다면, 설교를 어려워 하거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운반자로 생각하며 설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설교와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2. 제언

본 연구자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Project)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설교가 되기 위한 시도였다. 그 시도의 중심에는 설교자와 청중이 있었다. 설교자와 청중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물론 설교에 있어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문화적, 신학적, 성서적 배경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설교자는 특별히 이러한 환경적 상황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뉴욕좋은이웃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별히 설교는 설교자나 청중에게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좋은 임상 실험의 배경이 되었다.

단지 아쉬웠던 것은 본 연구자가 섬겼던 뉴욕좋은이웃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감당했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연구를 할 수 있었을텐데,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유로 인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설교에 대한 연구가 사실 부교역자의 위치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주제였다. 임상 실험에 있어서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NYTS측에서 특별히 위치적 상황을 배려해 주셔서 본 연구자의 이론적 연구를 가지고 좋은이웃교회에서 임상 실험을 시도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다.

실천신학자 정인교 교수는 미래를 위한 설교의 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첫째, 깊이 있는 성경적 설교의 정착이다. 둘째, 회중의 변화를 수용한 설교의 신축성이다. 이를 위해 귀납적 방식, 다양한 설교 패턴의 수용 등이 필요하다. 셋째, 설교자 훈련의 강화이다. 설교의 연설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교자들의

보다 구체적인 훈련이 요청된다. 넷째, 설교 환경의 개선이다. 무엇보다 설교의 과도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273]

설교자들을 위해서 제안한 내용이지만, 설교의 신학적, 현실적 부분으로 볼 때는 이민 목회 환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은 첫째, 설교자는 분명한 성경적, 복음적인 신학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청중의 상황과 문화적 환경을 세대별로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보다 청중의 삶에 신앙에 소통을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설교자의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중요하다. 넷째는 들려지기 위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청중들에게도 올바른 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준비된 마음과 세상일에 너무 자신의 열정과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면, 아무리 훌륭한 설교도 청중의 마음 밭에 쉽게 뿌리를 내릴 수 없다. 늘 자신의 신앙과 인격을 다듬어가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로 모든 예배에 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다섯째는 설교자가 청중과 소통을 위해서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전통적 설교를 뛰어 넘어 다양한 현대적 설교의 패턴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도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청중의 문화와 상황적 콘텐츠는 벌써 디지털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날로그적 접근은 소통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설교가 설교자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한 위대한 사역이라고 인식한다면, 설교를 어려워 하거나 부담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인식 속에서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운반자로 생각하며 설교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결국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설교와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는 그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

[273]정인교, *한국 교회 설교 분석: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설교 리모델링,*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140.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설교자와 청중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Ⅸ. 참고문헌(Bibliography)

A. 국내 서적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김동건. *현대 신학의 흐름: 계시와 응답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김운용.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4.

______. *새롭게 설교하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설교.*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5.

김의종, *릭 웨렌의 설교 분석 리포트.*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9.

김진년. *크리스찬, 인터넷, 멀티미디어.*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6.

노영상. *영성과 윤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6.

류장현. *포스트모던 사회와 교회.* 서울: 프리칭 아카데미, 2006.

맹명관. *메시지 전달 혁명.* 서울: 규장, 1999.

명성훈. *창조적 리더십.* 서울: 서울서적, 1991.

목회와 신학 편집부. *한국교회 설교 분석.*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문성모. *곽선희 목사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두란노, 2008.

박형용. *성경해석의 원리.*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9.

서봉연. *발달의 이론.*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6.

성종현. *신약성서의 중심주제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0.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우리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조망.* 서울: IVP, 2000.

양낙흥. *목사의 시대적 사명과 한국 신학교의 개혁.*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장동환 외. *심리학입문.* 서울: 박영사, 1987.

정인교. *정보화 시대 목회자를 위한 설교 살리기.*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2.

______, *한국 교회 설교 분석: 설교의 위기를 극복하는 설교 리모델링.* 목회와 신학 편집부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09.

정인석. *신청년심리학.* 서울: 대광사, 1998.

______. *현대청년심리학.* 서울: 재동문화사, 1983.

정장복. *설교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______. *설교 전달의 클리닉.*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______.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조말수. *21세기 지도자.*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9.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6.

최창섭. *교회와 커뮤니케이션 총론.* 서울: 성바오로 출판사, 1978.

______.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 크리스천 커뮤니케이션과 신학교육.* 서울: 전국신학대학협의회, 1991.

하용조. *프로포즈.* 서울: 두란노서원, 2008.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리포트.* 서울: 두란노, 2005.

한세완. *평신도가 갈망하는 설교.* 서울: 아가페출판사, 1999.

한진환. *설교의 영광.*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한 홍. *칼과 칼집.* 서울: 두란노, 2002.

______. *거인들의 발자국.* 서울: 두란노, 2003.

홍사중. *리더와 보스.* 서울: 사계절, 1997.

홍영기. *설교의 기술.*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7.

______. *한국 초대형 교회와 카리스마 리더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1.

황금봉. *신학실천과 목회자.* 청도: 도서출판 빈들, 2009.

B. 번역 서적

Allen, Ronald J. *Patterns of Preaching, 34가지 방법으로 설교에 도전하라.* 허정갑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Allmen, J. J. Von. *구원의 축제.* 박근원 역. 서울: 도서출판 진흥, 1993.

Barth, Karl. *칼바르트의 설교학.* 정인교 역. 서울: 한들, 1999.

Baxter, Richard. *The Reformed Pastor, 참목사상.* 박형용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1.

Bonhoeffer, Dietrich. *나를 따르라.* 허 혁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____________________. *신도의 공동생활.* 문익환 역. 서울 : 대한기독교서회, 2009.

Brooks, Phillips. *On Preaching, 설교론 특강.* 서문강 역. 경기: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1.

Buttrick, David. *A Captive Voice: The Liveration of Preaching, 시대를 앞서가는 설교.* 김운용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2.

Clinebell, Howard J. *Pastor and Parish: The Pastoral Counselor in Social Action, 목회와 지역사회.* 오성춘 역. U.S.A: Fortress Press, 1981.

Clyde Reid. *The Empty Pulpit,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Collins, Gary R. *Christian Counseling, 크리스천 카운슬링.* 피현희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7.

Cox, Harvey. *세속 도시.* 구덕관 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_____________. *Fire from Heaven, 영성 · 음악 · 여성.* 유지황 역. 서울: 도서출판 동연, 1998.

Craddock, Fred B. *As one Without Authority, 권위 없는 자처럼.*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Dodd, C. H. *설교의 원형과 그 발전.* 채 위 역.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원, 1991.

Dunn, James. 신약성서의 통일성과 다양성. 김득중 외 역. 서울: 솔로몬, 2000.
Ezell, Rick. *설교, 변하는 청중을 사로잡으라.* 민병남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Flankle, Victor E.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소민 역. 서울: 제일출판사, 1996.
Foster, Richard J. *Prayer, 기도.* 송중인 역. 서울: 두란노, 1998.
Harris, Maria.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Küng, Hans. *교회.* 정지련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Lloyd-Jones, D. Martin. *The Pastor and preaching, 목사와 설교.* 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Lowry, Eugene L. *The Homiletical Plot: The Sermon as Narrative Art Form, 이야기식 설교구성.* 이연길 역. 서울: 한국장로교 출판사, 1996.
Mullino Moore, Mary E. *Teaching from the Heart: Theology and Educational Method, 심장으로 하는 신학과 교육,* 장대현 역.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8.
Niebuhr, Richard H.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Nouwen, Henri J. M.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두란도 출판부 역. 서울: 두란노, 1998.
Reid, Clyde. *The Empty Pulpit, 설교의 위기.* 정장복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Ritschl, Dietrich. *설교의 신학,* 손규태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Tournier, Paul. *Escape from Loneliness, 고독.* 윤경남 역. 서울: IVP, 1998.
______________. *The seasons of Life, 인생의 계절들.* 크티시스 역. 서울: 도서출판 쉼북, 2005.
Robinson, John A. T. *신에게 솔직히.* 현영학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1.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윤수인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Seamands, David A.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상한 감정의 치유.*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2010.
Thielicke, Helmut. *현대교회의 고민과 설교.* 심일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Tillich, Paul. *Theology of Culture, 문화의 신학.* 남정우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회 외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White, James F. *Sacraments as God's Self Giving,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Wiersbe, Warren W. *Preaching & Teaching with Imagination,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3.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네 페이지 설교.* 주승중 역.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6.

C. 외국 서적

Achtemeier, Elizabeth. *The Artful Dialogue.* Interpretation, 35 Jan 1981.
Allen, Diogenes. *Christian Belief in a Postmodern Worl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9.
Allen, Ronald J. *Preaching the Topical Serm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2.
_______________. *The Teaching Sermon.* Nashville: Abingdon, 1955.
Barth, Karl. *Church Dogmatics,* Vol. 1/Ⅰ, trans. G. W. Bromley. Edinburgh: T & T Clark, 1975.
___________. *Evange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63.

Blackwood, Andrew W. *Pastoral Leadership.* Nashville: Parthenon Press, 1980.

Bonhoeffer, Dietrich. Ethik, Ethics. trans. Neville Horton Smith. U.S.A: Touchstone, 1995.

________________. *Gemeinsames Leben, Life Together.* trans. John W.

Brown, Harold O. J. *The Sensate Culture.* Nashville: Word Publishing, 1996.

Brueggemann, Walter. *Finally Comes the Poet.* Philadelphia: Fortress, 1989.

________________. *The Prophetic Imagination.* Philadelphia: Fortress, 1978.

Buttrick, David G. *Homiletic.*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7.

Buttrick, David. *Homiletic: Move and Structures.* Philadephia: Fortress Press, 1987.

Craddock, Fred B.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85.

Craddock, Fred B. *Overhearing the Gospel: preaching and teaching the Faith to Persons who Have Heard It All Before.* Nashville: Abingdon Press, 1978.

Dargan, Edwin C. *A History of Preaching: From the Apostolic Fathers to the Great Reformers.* AD 70-1572, vol. 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8.

Davis, H. Grady. *Design for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58.

Finney, Charles G. *Principles of Victory.* Compiled & Edited by L. G. Parkharst. Jr. (Bethany House Publishers)

Fosdick, Harry Emerson. *What is the Matter with Preaching?.* Harper's Magazine, July 1928.

____________________. *The Living of These Days.* N.Y: Harper & Row, 1956.

Harris, James. *Preaching Liberation.*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Jensen, Richard. *Thinking in Story.* Lima, Ohio: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3.

Jung, Carl G. *The Undiscovered Self,* trans. R. F. Hull.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1958.

Kaiser, Jr. Walter C. *The Crisis in Expository Preaching.* Preaching, 11 September–October, 1995.

______________________. *Toward and Exegetical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1.

Keck, Leader R. *The Bible in the Pulpit.* Nashville: Abingdon, 1981.

Killinger, John. *Foundamentals of Preaching.* Philadelphia: Fortress, 1996.

Knox, John. *The Integrity of Preaching.* New York: Abingdon Press, 1957.

Kohak, Erazim. *Idea and Experi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8.

Larsen, *The Anatomy of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9.

Lloyd–Jones, D. M. *The Puritans: Their Origins and Successors.*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___________________. *Preaching and Preachers.* Grand Rapids: Zondervan, 1971.

Macquarrie, John. *Principles of Christian Theology.* U.S.A: Charles Scribner’ s Sons, 1966.

Migliore, Daniel L. *Faith Seeking Understanding: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Mitchell, Henry. *Celebration and the Experien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1990.

Newbigin, Lesslie. *The Gospel in a Pluralist Cul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9.

Niebuhr, Richard H. *Christ and Culture.* U.S.A: Harper & Row Publishers, 1951.

Ott, Heinrich. *Theology and Preaching.* Philadelphia: Westminster, 1965.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80.

Rogness, Michael. *Preaching to a TV Generatin.* Lima, Ohio: The CSS Publishing Company, 1994.

Rollo May. *Values, Myths, and Symbol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2 No. 7. 1975.

Schaller, Lyle E. *21 Bridges to the 21st Century.* Nashville: Abingdon, 1994.

Schillebeckx, Edward. *Mensen als verhaal van God, Church: The Human Story of God.* trans. John Bowden. U.S.A: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1990.

Sorokin, Pitirim A. *The Crisis of Our Age.* 1941; reprint, Garden City: Doubleday, 1956; 2nd ed., Oxford: Oneworld, 1992.

Stewart, James S. *Preaching.* London: The English Uni, 1955.

Stott, John R. W. *Between Two Worlds: The Challenge of Preaching Today.*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Tillich, Paul. *Communicating the Gospel,* Union Seminary Quarterly, 7 June 1952.

Whitsell, Farris D. *Power in Expository Preaching.* Old Tappan, N. J.: Rebell, 1963.

Wilder, Amos N. *Early Christian Rhetoric: The Language of the Gosp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4.
Wilson, Paul Scott. *The Four Pages of the Sermon: A Guide to Biblical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9.
__________________. *The Practice of Preaching.* Nashville: Abingdon Press, 1995.

D. 논문 및 학술지

김운용. *청중이 듣도록 돕는 설교 형태.* 서울: 기독교사상, 2002. 7월호.
______. *이야기를 통한 설교 방법.* 서울: 기독교사상, 2002. 4월호.
임정석. *교육목회 방안에 대한 연구.*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학위논문, 1999.
주승중. *새로운 설교형태의 연구-네 페이지 설교.* 서울: 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2002. 장신논단 18집.

E. 성경 및 사전

김금용.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김운용. *설교학 사전.*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4.
대한성서공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서울: 성서원, 2009.
한국어대사전. 서울: 한국어대사전편찬회, 1976.
NIV Version. *Korean-English Explanation Bible.* 서울: 아가페출판사, 2003.

F. 인터넷 자료

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cg&id=186523.

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code=cg&id=19283.

http://ny.christianitydaily.com/view.htm?id=190351&code=cg

http://www.dail.org/dail

http://www.usaamen.net/news/board.php?board=adad&command=body&no=679.

http://usaamen.net/news/board.php?board=adad&command=body&no=991.

http://www.usaamen.net/March 1. 2011.

http://www.usaamen.net/May 7. 2011.

http://www.gnccny.org/xe/about_vision.

http://www.cubitplanning.com/county/2723-suffolk-county-census-2010-population.

http://blog.daum.net/esjk8030/7379356/09.23.2010.

http://blog.daum.net/changsunkim/3809974

http://krdic.daum.net/dickr/contents.do?offset=A022293000&query1=A022293000#A022293000.

http://en.wikipedia.org/wiki/Smithtown,_New_York#Geography

http://www.citymelt.com/city/New-York/Huntington+Cdp-NY.html

http://www.cubitplanning.com/city/24905-huntington-station-cdp-census-2010-population.

http://www.lifeinus.com/Travel/NY.

http://www.cubitplanning.com/state/41-new-york-census-2010-population.

X. Appendix

1. 설교 설문지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

(A Study of preaching for communication between preacher and audience)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귀하와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영등포교회 정용권 목사입니다.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NYTS) 목회학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에 대하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역이 바쁘고 힘드실 줄 아오나 여기에 잠시 시간을 내어 주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 발전을 위해 본 논문이 조그마한 보탬이 되고자 소망하며 이 설문은 NYTS 목회학 박사과정 연구논문인 “설교자와 청중사이의 소통을 위한 설교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성심껏 마음을 다해 답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1일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 목사 정용권 (문의: 010-4233-0305)

주소(150-0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37길 1 (7/6) 영등포교회 목양관 301호

작성하시는 분의 인적사항

성별: 남, 여

학력: 국졸( ), 중졸( ), 고졸( ), 대졸( ), 대학원졸( ), 대학원졸업이상( )

신앙경력: 세례 받은 후( )년

직분:

※ 아래의 물음에 맞는 것을 (0)표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연령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1) 30세 이하( ) 2) 30대( ) 3) 40대( ) 4) 50대( ) 5) 60대( )

6) 70세 이상( )

2. 교회의 성장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1) 설교( ) 2) 기도( ) 3) 심방( ) 4) 행정( ) 5) 전도( )

6) 성경공부 및 제자훈련( )

7) 기타의 내용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목회자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4. 목회자로부터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언제 가장 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을 때(　)

2)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때(　)

3) 기도를 많이 하고 들을 때(　)

4) 내 영혼의 양식이라고 믿을 때(　)

5)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

6) 목사님의 삶이 진실하게 느껴질 때(　)

※ 기타(　　　　　　　　　　　　　　　　　)

5. 목사님이 바쁠 때 남의 설교를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6.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1) 30분 이하(　) 2) 30분~1시간(　) 3) 1~2시간(　) 4) 2~3시간(　)

5) 3시간 이상(　)

7.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1) 1장(　) 2) 3~5장(　) 3) 5~10장(　) 4) 10장 이상(　)

5) 읽지 않는다(　)

8. 심방은 설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9.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0.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 실제 일어난 사실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1. 내세가 있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2.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3. 질병이나 불행한 사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4. 복음적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듣고 마음이 편한 설교(　)

2) 축복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는 설교(　)

3) 죄에 대한 지적이 없는 설교(　)

4) 예수 그리스도의 삶 탄생과 고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있는 설교(　)

5) 울거나 웃게 만드는 감동을 받은 설교(　)

15. 율법적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계명을 강요하는 설교(　)

2) 행위를 강조하는 설교(　)

3) 지식적이며 비판적인 설교(　)

4) 죄를 지적하는 설교(　)

5) 기타이 내용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6. 교회는 복음적 설교를 해야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7. 설교를 잘해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18. 잘하는 설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감동을 주는 설교(　) 2) 진실한 설교(　) 3) 재미있는 설교(　)

4) 말씀 그대로 하는 설교(　) 5) 말씀을 듣는 내가 공감하는 설교(　)
6) 교리적으로 잘못이 없는 설교(　) 7) 복음적 설교(　)

19. 설교가 나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하고 생활에서 실천이 됩니까?

1) 절대 그렇다(　) 2) 그렇다(　) 3) 잘 모르겠다(　) 4) 그렇지 않다(　)
5) 전혀 그렇지 않다(　)

20.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될 때는 언제입니까?

1) 모든 것이 잘 될 때(　) 2) 일이 잘 안 될 때(　)
3) 기도와 찬송을 많이 했을 때(　) 4)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
5) 죄의식으로 고민할 때(　) 6) 언제든지(　)

21. 설교가 교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설교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설교자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교인들이 회개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다(　)
5) 설교자와 교인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
6) 잘 모르겠다(　)

22. 누구에게 듣는 설교가 은혜가 됩니까?

1) 유명한 목사님이면 괜찮다(　)
2) 본 교회 담임목회자 및 부교역자(　)
3) 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설교는 모두 다(　)
4) 기타(　)

23. 교회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예배드리려고(　) 2) 설교들으려고(　) 3) 기도드리려고(　)

4)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 5) 사업상으로(　)

6) 친교상 이유로(　) 7) 기타(　)

24. 교회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교인 수가 많아서(　) 2) 건물이 크니까(　) 3) 목사님이 좋아서(　)

4) 설교내용이 좋아서(　) 5) 집하고 가까워서(　) 6) 성도들이 사랑이 많아서(　)

7) 어릴 때부터 다녀서(　) 8) 기타(　)

25. 교회가 부흥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사랑이 많아야 한다(　) 2)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

3)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 4) 설교말씀이 좋으면 된다(　)

5) 심방을 열심히 하면 된다(　) 6) 교회의 위치가 좋아야 한다(　)

2.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Ⅰ)

2.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Ⅰ)

※ 내용적 부분

A. 서론

(1) 주의를 모으는가?

(2)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어떤 필요를 보여주는가?

(3) 당신을 주제에로 이끌어 주는가? 아니면 중심 관념으로 인도하는가? 또는 대지에로 인도하는가?

(4) 길이는 적당한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가?

B. 구조

(1) 발전은 분명히 되었는가? 전체적인 구조는 분명한가?

(2) 설교는“중심관념(Central Idea)”이 있는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가?

(3) 전이는 분명한가? 그것을 다시 살펴보고 있는가?

(4) 대지 간에는 논리적인 또는 심리적인 연관이 있는가?

(5) 주요 요점들은 중심관념과 관련되어 있는가?

(6) 소지들은 대지들과 분명하게 관련되고 있는가?

C. 결론

(1) 설교는 절정에까지 이르렀는가?

(2) 관념들을 적당하게 요약하였는가?

(3) 효과적인 마지막 호소나 제안이 있었는가?

D. 내용

(1) 이 주제는 의미 깊은 것인가? 그것은 적절한가?

(2) 이 설교는 “확고한 주석”위에 기초하고 있는가?

(3) 설교자는 자신의 본문의 어느 부분에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가?

(4) 주제의 분석은 철저한가? 논리적인가?

(5) 설교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가?

(6) 내용은 창의성이 있는가?

E. 보조 자료

(1) 보조 자료는 “논리적으로” 요점과 관련되고 있는가? 그것은 흥미로운가? 변화가 있는가? 특수성이 있는가? 충분한가?

※ 전달적 부분

A. 어체

(1) 설교자는 정확한 문법을 사용하는가?

(2) 그의 어휘는 구체적이고 생생한가? 변화가 있는가?

(3) 단어들은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4) 설교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B. 지적 직접성

(1) 설교자는 그 설교가 들려지기를 원하는가? 그는 기민(機敏)한가?

(2) 당신은 그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3) 그는 친절한가?

(4) 그 설교는 살아 있는 대화처럼 들리는가?

(5) 단어들을 정확하게 발음하는가?

C. 입을 통한 전달

(1) 목소리는 듣기에 쉬운가? 발음은 분명한가?

(2) 음성의 변화는 있는가? 음성의 고저의 변화가 있는가?

(3) 전하는 힘의 변화는 있는가? 속도의 변화는 충분한가?

(4) 설교자는 휴지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5) 설교자의 열정은 살아있는가?

D. 몸을 통한 전달

(1) 그의 온 몸이 설교하는 데 연루되는가?

(2) 그는 제스처를 쓰고 있는가?

(3) 제스처는 즉흥성이 있는가? 폭은 넓은가? 분명한가?

(4) 싫증을 주는 버릇은 없는가?

(5) 자세는 양호한가? 설교자는 기민(機敏)해 보이는가?

(6) 훌륭한 얼굴 표정은 있는가?

E. 청중의 수용성

(1) 설교는 흥미를 끌었는가? 당신의 태도에 적용되는 것이었는가?

(2) 그 설교는 당신의 지식과 관련되고 있는가?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가?

(3) 설교자는 당신과 눈을 마주쳤는가?

(4) 당신은 그가 청중의 반응을 알고 있다고 느끼는가?

3.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Ⅱ)

설교 분석 평가 질문서[274]

설 교 자:

성경구절:

설교제목:

날 짜:

설교 분석 평가자:

----

1. 성경봉독

1) 감정을 넣어서 읽는가?

1 2 3 4 5

2) 분명하게 봉독하는가?

1 2 3 4 5

2. 설교의 서론

[274]김의종, *릭 웨렌의 설교 분석 리포트*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1999), 34~41. 참조.

1)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가?

1 2 3 4 5

2) 설교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가?

1 2 3 4 5

3) 설교의 주제와 목표가 분명한가?

1 2 3 4 5

4) 듣고 싶은 마음을 유발하는가?

1 2 3 4 5

5)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가?

1 2 3 4 5

3. 설교의 본론

1) 설교 개요가 분명한가?

1 2 3 4 5

2) 설교 개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가?

1 2 3 4 5

3) 설교 개요가 본문에서 나왔는가?

1 2 3 4 5

4) 성경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는가?

1 2 3 4 5

5) 예화는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1 2 3 4 5

6) 적용은 구체적인가?

1 2 3 4 5

7) 다음 개요와 연결할 때 자연스러운가?

1 2 3 4 5

8) 설교에서 새로운 사실을 배웠는가?

1　2　3　4　5

9) 알고 있는 사실을 신선하게 설명하는가?

1　2　3　4　5

10)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인가?

1　2　3　4　5

4. 설교의 결론

1) 설교의 목적이 분명하게 성취되었는가?

1　2　3　4　5

2) 설교의 전체 내용을 잘 요약했는가?

1　2　3　4　5

3) 청중의 분명한 행동 변화를 유발했는가?

1　2　3　4　5

4) 설교자의 확신이 흐르고 있는가?

1　2　3　4　5

5. 설교의 전달과 스타일

1)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1　2　3　4　5

2) 다양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언어로 말하는가?

1　2　3　4　5

3) 목소리의 크기, 선명도는 어떠한가?

1　2　3　4　5

4) 제스처와 역동적인 표현은 있는가?

1　2　3　4　5

5) 설교자가 청중과 시선을 마주치고 있는가?

1 2 3 4 5

6) 청중들이 계속 강단을 바라보고 있는가?

1 2 3 4 5

7) 설교의 길이는 적당한가?

1 2 3 4 5

8) 일관성이 있다는 느낌이 오는가?

1 2 3 4 5

9) 강한 힘이 내재해 있다는 느낌이 있는가?

1 2 3 4 5

6. 설교의 효과

1) 설교자가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1 2 3 4 5

2) 청중이 설교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1 2 3 4 5

3) 성경이 청중의 필요를 채워 주었는가?

1 2 3 4 5

4) 주제에 맞게 제목을 정했는가?

1 2 3 4 5

5) 설교 제목이 시선을 끌며 연관성을 느낄 수 있는가?

1 2 3 4 5

6) 청중의 영혼에 불을 지핀 설교인가?

1 2 3 4 5

4. 설교 전달의 분석과 평가(Ⅰ),(Ⅱ)[275]

※ 설교 전달의 분석과 평가 (Ⅰ)

1. 파토스(pathos): 열정과 감정의 표현 문제

1-1 Pathos는 먼저 설교자의 열정을 의미한다. 이 열정은 단순한 설교자의 뜨거운 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회중을 사랑하는 열정이다.

1-2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느긋함과 안이함을 버리고 열정과 긴장감을 가지고 단에 서야 한다. 주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결단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설교자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1-3 설교할 때 너무 기교적으로 전달해 달변가나 웅변가로 보이는 설교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우둔한 언변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설교자로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다.

1-4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경솔하게 행동을 한다거나 너무 흥분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대로 너무나 차분한 나머지 분위기가 가라앉아 성도들을 지루하게 만드는 설교자 역시 역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열정이 필요하다.

1-5 설교자는 뜨거운 열정과 절박한 호소력으로 선포하여 거기에 힘과 감동이 나타나야 한다. 설교자 자신도 감동받지 못하면서 성도들이 감동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위선

[275]정장복, *설교 전달의 클리닉*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3), 261~285. 참조.

자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메시지가 설교자의 머리에서만 나오고 있다면 그 설교를 통하여 어떠한 결단이나 감동도 성도들에게 줄 수 없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1-6 설교자는 한 편의 설교를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를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말씀을 분석하는 인상이 가득할 때 회중은 그것이 목회자의 뜨거운 가슴을 거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느낀다. 그럴 때 메시지는 진지하지 못하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감화조차 줄 수가 없게 된다. 설교자가 메시지에 깊숙이 몰입해 감화된 땀과 눈물을 보일 때 그 설교는 확신이 가득하게 된다.

1-7 설교자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 설교자는 적절한 음성의 강약, 고저의 사용을 통하여 그 효과를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이 수반되지 않은 열정은 허무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설교자가 말씀의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열정적으로 전하여여 한다. 설교자가 사건이나 설교의 내용에 깊숙이 몰입되어 확신에 찬 설교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의 가슴은 쉽게 움직이게 된다.

1-8 설교자로서 열심과 성실함, 선포 의지가 잘 드러날 때 성도들은 결단으로 마음을 향하게 된다. 설교자의 열의가 곧 회중의 가슴을 적시게 된다.

1-9 설교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포력이다. 선포의 감각이 없이 설교자가 계속 본문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거나 설명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선포력이란 하나님 말슴의 종으로 메시지를 뿜어내는 열정의 한 장면이어야 한다.

1-10 파토스가 부족하면 심한 경우 제스처의 활용이 전혀 없는 설교를 하게 된다. 하

지만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강조의 의미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반면 적절한 제스처의 활용은 성도들이 설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자신의 최저음과 최고음을 활용할 중 아는 설교자는 자신의 감정 표현과 호소력을 이어가는 데 절대적인 도움을 받게 된다.

2. 감정 조절과 표현의 문제

2-1 배우들은 한 컷의 장면을 연출할 때 반드시 '준비'와 '감정 정리'의 단계를 거친다. 그리고 허구(Fiction)를 사실인 것처럼 만드는 임무를 수행한다. 시청자는 모두가 배우의 연출대로 믿고 웃거나 눈물을 흘린다. 반면 설교자는 사실(nonfiction)을 말하는 데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감동받지 않는다. 설교자의 감정이 그 메시지 속에 충분히 농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2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실어 보내는 데에 실패한 설교자는 기계적인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다. 이러한 전달은 성도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줄 수 없을뿐더러 매우 건조한 전달 방식이 된다.

2-3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는 설교의 또 다른 형태는 그대로 읽고 있는 형태(Reading style)의 설교이다. 설교를 읽는다는 것은 화육된 메시지(Incanational preaching)가 준비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중한다.

2-4 설교자는 언제나 자신의 설교에 감정 이입이 되고 본문에 깊이 몰입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설교자의 감정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준다거나 책을 읽어 주고 있는 듯한 느낌, 원고를 아직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원고를 너무 자주 바라봄으로써 원고를 대상으로 설교하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2-5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 감격적인 은혜의 운반이 있어야 하며 감격을 몰고 오는 설교자로서의 자세와 모습과 감정이 발동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거의 문장마다 감동을 일으키려는 시도는 무리이다. 또한 감동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인위적인 음성을 이용하는 것도 금물이다. 설교자들은 성도들을 감화시키는 표현을 너무 남용하지 말고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2-6 설교자에게는 가슴 속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호소가 있어야 한다. 감동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은 단순히 성대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감정을 잘 나타내기 위해 좀 더 높고 긴 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설교를 통하여 감동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설교는 공허한 외침이 될 우려가 크다.

3. 강의자인가? 설교자인가?

3-1 설교는 강의가 아니다. 그러나 때때로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닌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특별히 힘들여 설교하기를 싫어하는 최근의 젊은 설교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하다.

3-2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이 강의와 같고 설교자로서 열정이나 감정이입이 없으며 음정의 높낮이도 없는 경우를 종종 본다. 강의란 주제나 내용을 풀어 주기 위한 단순한 설명이다.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며 적용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형성하는 값진 순간이다.

3-3 설교의 현장에서 회중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은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경 공부 시간에 강사가 강의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이다. 그리고 원고

에서 눈도 떼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고를 읽고 있는 모습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기 보다는 책을 읽는 느낌을 준다.

3-4 미국의 신학교 설교 실습실에서 신학생들이 설교의 열정을 뿜어내지 못하고 거의 강의를 연출하는 모습으로 계속 했을 때, 어떤 설교학 교수는 "Shout!!"(소리를 지르라!)를 연발하면서 설교자들이 강의 스타일로부터 탈피할 것을 특별히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한국교회가 서서히 이러한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음을 오늘의 신학교 설교 실습실에서 볼 수 있다.

4. 명령형(Imperative Mood)의 설교 모습

4-1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너무나 강압적이거나 명령형의 모습(Imperative mood)을 지속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무엇을 명령하고 가르치는 인상과 태도로 설교하려는 모습들이 보인다. 설교자가 많은 단어에 힘을 주면서 명령적인 감각과 강압적인 표현을 너무 자주 한다면 이로 인해 매우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설교자라는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이것은 설교자로서 커다란 약점이다.

4-2 설교할 때 내내 웅변적인 감각으로 명령하는 설교는 성도들을 피곤하게 하고 선포의 효과가 반감되어 장기전이 될 수 없다. 명령적이고 고압적인 설교에 익숙해진 설교자는 아주 부드럽고 은혜로운 메시지의 선포나 목양적인 부드러운 설교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몸 가짐의 문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언어 외적인 표현(Nonverbal posture)이 갖는 효과를 결코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설교자는 음성언어를 통한 전달 이전에 벌써 외적 행동으로 회중에게 인상을 심어 주기 때문이다.

1) 외모

5-1-1 선명하고 단정한 인상은 메시지의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소리 없는 첫 번째 언어이다. 맑고 깨끗한 설교자의 인상을 강단에서 대하는 성도들의 기쁨은 매우 크다. 티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신에 차서 선포한다면 좋은 설교자이다.

5-1-2 차분한 모습이 아닌 놀라거나 뭔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인상으로 강단에 선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불안감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5-1-3 앞머리를 단정히 하여 이마가 시원스럽게 보이도록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도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미간을 찡그리거나 인상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언제나 밝고 편안한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교자가 눈을 지그시 감는다거나 또는 크게 드는 것은 인위적인 인상을 풍긴다. 이러한 경우 진실을 의심받게 된다. 게다가 의미없는 웃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냄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

5-1-4 그리고 특이하고 원색적인 옷차림이나 단정하지 못한 넥타이 등은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의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 때는 역시 가운이나 성직자 셔츠를 입는 것이 좋다.

2) 자세

5-2-1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설교자가 강단에 등단

할 때부터 마치고 내려오는 그 시간까지 정중하고 진지한 몸가짐과 단정한 자세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5-2-2 설교단에 설 때에는 설교단과 몸이 연결되어 안정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또한 자세가 단정하고 당당해야 한다. 두 어깨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평을 이루며 고개는 바로 하여야 한다. 설교단과 몸이 연결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불안한 인상을 주어 말씀 선포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5-2-3 설교자가 강단 쪽으로 기대고 선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설교한다면 다른 한쪽의 성도들은 외면당한 느낌을 받는다. 더욱이 어느 특정인에게 시선을 맞추고 설교하는 일은 설교자로서의 자질이 없는 경우이다.

5-2-4 몸의 중심이 흔들리고 양손이 별 뜻 없이 너무 자주 움직이며 시선이 불안정한 것을 바르게 교정해야 한다. 또는 몸의 움직임이 너무 없어서 생기 있는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 경직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5-2-5 설교자가 설교할 때 팔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원고를 만지작거린다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양손으로 강단을 붙잡고 있는 자세는 교정해야 한다.

5-2-6 강단 뒤편에 앉아 설교 순서를 기다릴 때도 늘 바른 자세로 무릎을 모으고 앉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무릎을 벌리거나 발을 꼬고 앉아 있는 자세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한다.

6. 발음과 구개음의 문제

6-1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단어에 힘을 주는 습관보다는 문장을 저음에서 중간 음, 높은 음으로 이끌어 가는 발성 연습을 반드시 해야 한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과 호흡이 너무 일정해서 회중으로 하여금 지루함을 주어서도 안 되며 단어와 단어 사이에 틈이 전혀 없어 회중이 피곤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된다.

6-2 말을 너무 빨리 해서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말을 빨리 하는 경우에는 발음이 뚜렷하지 않아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예가 많다. 이러한 경우 단어에 실수가 많아 말을 더듬고 발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단어를 천천히 말하는 연습, 선포할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음성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6-3 설교자들이 선포에 있어서 많이 주의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설교 메시지가 약화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진행이 원만하지 못하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때 “어~ 음~ 에~”라는 음을 종종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말끝을 흐리는 습관 때문에 “~니다.”와 같은 문장 끝부분이 들리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부분들은 설교자가 늘 생각하고 고쳐가야 한다.

6-4 설교자는 발음, 음색, 음폭, 음정의 활용과 자율성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6-5 혀 짧은 소리나 불필요하게 긴 소리를 비롯해 부자연스러운 혀의 위치에서 나오는 발음들이 종종 들린다. 이러한 경우 혀를 이용해 자음을 발음할 대 심각한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속히 교정을 받고 고칠 수 있도록 많은 연습을 하여야 한다.

7. 설교 음정의 높낮이 문제

7-1 설교 음정의 높낮이는 설교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강조점이 너무 많아 진정한 강조점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결단의 촉구는 절박한 촉구를 수반해야 효과적이다. 설교가 진행되는 일반적인 대목이나 메시지가 강조되어야 할 부분 모두 별 다른 구분 없이 똑같은 음정과 속도로 진행한다면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7-2 결단의 순간에 찬송을 부르는 등의 파격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설교가 초반에 들어서는 무렵부터 높은 음정으로 강조하기 시작할 때도 많은 이럴 경우 정작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는 아무리 강조한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7-3 설교자가 너무 일정한 음정과 리듬을 사용해서 회중이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너무 일찍 고음에 진입했다가 전혀 내려오지 못한 채 계속되어 음정 조절에 완전히 실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함정에 빠져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7-4 적절한 고음과 저음의 사용은 설교 메시지를 명확하게 해주며 설교의 강조점을 회중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설교의 정점이 되는 곳이 3회 또는 4회 정도 되어야 하며, 그 정점은 철저히 저음에서 시작하여 중음, 그리고 고음으로 가는 단계를 거쳐 산 또는 파도와 같은 곡선을 그려야 한다. 이때 사용하는 높은 음정은 횡격막을 통해 심장에서 나오는 목소리여야 한다. 만일 음성이 목에서만 나오면 거부감을 줄 뿐만 아니라 성대가 곧 쉬게 되는 부작용이 따른다.

7-5 설교자의 음성은 확신에 차야 하고 호소력이 있어야 한다. 설교자의 음성이나 자세가 단순히 강의의 모습이나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 좋은 음성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들이 그것을 바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행한 일도 없다. 좋은 음성을 가지고 강력한 호소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는 참으로 소중한 말씀의 도구이다.

8. 성경 봉독의 형태와 자세

8-1 성경 봉독을 할 때는 두 손을 이용해 정중하게 받들어 읽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손만 사용해 성경 봉독을 하거나, 바닥에 성경을 내려놓고 읽어 나가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이때 몸을 흔드는 것은 절대로 삼가고 가장 엄숙한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8-2 성경을 읽기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00복음 0장 0절부터 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30초 정도의 시간을 준다.) 이제 봉독합니다. 경청하십시오." 봉독 후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끝을 맺도록 한다.

8-3 성경 봉독은 정확한 발음과 적당한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 성경 봉독의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독특한 리듬을 사용한다면 성도들이 따라올 수 없고 말씀에 대한 영적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8-4 성경을 봉독할 때는 안경을 올리거나 다른 손짓을 하여서는 안 되며 성경 봉독 후에는 성경을 덮지 말고 그대로 펼쳐 놓아야 한다.

9. 시간 조절의 성패

9-1 설교자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물론 시간이 꼭 몇 분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에게 주어진 시간만을 활용하는 훈련은 꼭 필요하다.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는 설교가 원고화되지 못하고 즉흥적인 말들이 돌출되는 데 있다. 또 하나는 설교자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 상태를 이어갈 때 발생하게 된다.

9-2 준비가 부족하고 원고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 시간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단계마다 적절한 시간 분배를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충분한 시간 안에 전달할 수 있는 훈련과 노력을 기울일 때 훌륭한 설교자가 될 수 있다. 시간 안배를 잘 못하여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빨라져서 마지막 절정과 결말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완전히 실패이다.

※ 설교 전달의 분석과 평가 (Ⅱ)

1. 설교자의 시선의 문제

1-1 설교자의 시선은 말씀 선포를 위한 언어 외(言語 外)의 도구로서 매우 중요하다. 회중과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선 교환이 이루어질 때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어느 한 쪽만을 바라보거나 원고만 바라봄으로써 회중과의 의사소통을 이루지 못한다면 선포의 효과는 반감된다.

1-2 회중의 눈길을 피하거나, 회중을 바라보는 시선은 있으나 눈을 지그시 감고 바라본다거나, 회중을 바라보지 않고 허공을 바라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좌우의 모든 회중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쳐 있다거나, 회중을 바라보는 속도가 너무 빨라 설교자가 회중에게 공격적인 인상을 준다거나 하면 회중에게 진지함이나 성실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비치게 된다.

1-3 회중을 향한 자유로운 시선 교환과 시선 분배는 회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자신감과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시선이 불안하고 산만하거나 천장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 준다면 회중과는 무관한 설교가 되기 쉽다.

1-4 시선의 접촉을 위하여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고개와 함께 눈이 가야 하는데 눈동자만이 좌우로 움직이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인상을 찡그리고 눈을 가늘게 뜬다거나 너무 크게 눈을 떠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도 피해야 한다. 눈은 자연스럽고 평안한 모습으로 회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안경의 위치와 반사의 정도

2-1 안경을 착용한 설교자는 안경을 처음부터 바르게 쓰도록 잘 조절해야 한다. 안경이 너무 내려와 코 끝에 걸려 있다거나 설교자의 인상을 답답하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안경이 빛에 반사되어 회중과의 시선 교환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빛이 반사되지 않는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2-2 설교 도중에 안경테를 만지는 설교자의 손길에 회중의 시선이 언제나 집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 도중 안경테의 위치를 바로잡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3. 어감(대화체, 웅변체)의 문제

3-1 설교자는 말씀을 선포할 때 낭독체에서 벗어나야 하며 회중과 대화의 마당으로 나와야 한다. 낭독체 설교는 회중과 설교자가 유리된 상태로 먼 곳에 있는 존재처럼 느끼게 한다.

3-2 설교의 서론을 시작할 때는 대화체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교 시작이 낭독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변함없이 읽기만 한다면 전달의 기능과 회중과의 의사소통은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 있다. 문장을 지속적으로 읽기보다는 대화체이면서 때로는 호소력 있는 형태의 어감을 개발해야 한다.

3-3 설교자는 부드러운 은혜 중심의 표현과 어감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분명하고 확실한 전달력, 안정된 음성과 표정의 간절함을 소유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3-4 설교에는 순수한 대화체적인 전개들이 종종 있어야 하는데 많은 설교자들이 딱딱하고 공식적인 언어, 연설, 웅변의 어감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감과 리듬이 너무 일정하여 신선한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 표현이 거의 없는 경우가 나타난다.

4. 어색한 습관들

4-1 설교자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습관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습관들이 말씀 선포에 걸림돌이 된다면 빠른 시간에 이를 해결해야 한다.

4-2 설교자들 중에 가끔 혓바닥을 내밀거나, 입술에 침을 적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고쳐야 할 좋지 못한 습관이다. 고개를 깊이 파묻고 내용을 말하거나 고개를 너무 빨리 움직여 회중과 시선 교환에 무리를 주는 행위,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 눈동자만을 움직이는 습관들을 버려야 한다. 긴장에 의한 기침, 끝말 다음에 입을 다무는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입을 벌리고 있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단어마다 고개를 끄덕이는 습관, 단어마다 힘을 주는 습관은 삼류 부흥사의 형태이다.

4-3 말의 끝을 올린다거나 볼펜을 손가락에 끼고 성경 봉독을 하는 자세, 손을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자세, 어깨를 들썩거리는 행위, 설교할 때 눈썹과 눈썹 사이를 계속 찡그리는 행위, 의미 없는 손가락을 사용하거나 손을 들어 흔드는 행위, 아래를 쳐다보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4-4 원고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개를 이리저리 흔든다거나, 습관적으로 계속 원고를 바라보는 행위는 설교자가 고쳐야 할 습관들이다. 그리고 필요 없이 너무 열을 낸다거나, 단어를 강조한다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 의미 없이 순간순간마다 미소 짓는

경우들 또한 어색한 습관이다. 메시지의 내용과 인상이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언어의 속도(Rhythm) 문제

5-1 언어의 속도는 설교의 전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말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가볍게 진행되며 내용이 빨리 전개될 때 설교자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모습 속에서 회중도 불안을 느낀다. 빠르고 가볍게 선포가 이루어지면 설교자는 회중에게 경황없는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며 발음이 빗나가고 교정과 반복을 거듭함으로써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

5-2 설교의 속도나 고저의 리듬이 전혀 없는 것도 고쳐야 할 문제이다. 이처럼 언어의 리듬이나 속도의 변화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언어가 너무 기계적이 되어서 회중을 피곤하게 하거나 외면하게 만든다. 그리고 언어의 단절이 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길게 늘이는 언어 연습을 해야 하며 쉬는 곳도 적절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6. 여성 설교자의 상냥한 인상과 어감

6-1 여성 설교자는 부드러운 인상과 상냥한 어감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성으로서의 호소력과 상냥하고 온화한 인상과 어감은 여성 특유의 좋은 설교 도구가 될 수 있다. 여성 설교자는 비판보다는 부드러운 어감과 함께 회중의 심장을 파고드는 따뜻한 은혜를 추구하는 설교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6-2 너무나 차분한 전개는 회중의 감정에 아무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여성의 고유한 부드러움과 절박한 호소가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 몸가짐이나 어감을

너무 기계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중의 심장을 파고드는 여성 설교자의 고유한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7. 원고 소화의 정도 문제

7-1 설교의 원고를 완전하게 소화한 설교자는 자유함이 있다. 원고로부터의 자유, 회중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설교 원고를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 속에 자신의 감정이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며 선포하는 데 어색함이 있다. 이러한 설교자는 회중과의 시선 교환을 완전하게 할 수 없으며 원고를 향해 설교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 때로는 설교자의 어감마저도 독서를 연상시키셔 회중이 살아 있는 설교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

7-2 원고를 읽고 있는 설교자는 설교자의 감정 전달, 제스처, 회중을 집중시키는 초점 등을 활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회중의 반응 등을 점검하는 데 실패하게 된다. 원고를 완전히 소화하여 그 메시지가 성육화 된 설교자에게서만 진정한 감정이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중의 심령 속에 결단을 촉구할 수 있다. 그리고 전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선 교환을 통하여 자유로운 선포를 할 수 있으며 회중도 소외된 생각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된다.

8. 음폭과 음색

8-1 좋은 음폭과 음색은 회중이 결단을 추구하는 데 좋은 도구가 된다. 음성이 전달이 분명하고 깨끗하여야 하며 음성 전달이 역동적이어서 선명한 전달을 위한 힘을 실어준다는 것은 설교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이다. 음폭과 음색이 좋고 선포의 자세도 정성스러운데 전달이 효과적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원고만을 주

시하며 형식적으로 보이는 제스처가 남발하게 된다. 이러한 설교 분위기 속에서는 성도들이 말씀에 동참하기가 어렵다.

8-2 선천적으로 음폭이 좁은 사람이나 성대만을 사용하여 거부감을 일으키는 음색을 소유한 설교자는 후천적인 발성 연습이 절대로 필요하다. 특별히 횡경막을 사용한 발성 연습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

9. 리듬이 있는 음정의 사용

9-1 음정을 저음부터 고음까지 잘 조절하여 설교를 할 줄 아는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고음은 회중에게 경기를 일으키게 할 뿐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한다. 등산을 하듯 음정이 지속적으로 오르내리게 하는 연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는 음정뿐만 아니라 음량의 리듬도 조절해야 한다.

9-2 고음을 사용할 때는 의미 없이 악을 쓰는 형태가 아니라 간곡한 호소로 음정과 음량이 바뀌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음정이 고음으로 고정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어질 때는 호소력을 잃게 되며 어떠한 효과도 줄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정의 조절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즉흥적으로 발산할 때에는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음을 명심하고 고음과 저음의 사용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훈련을 해야 한다.

10. 인상의 문제

10-1 설교자는 강단에서 성도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친화력을 기르고 딱딱한 표정을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한다. 기쁨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자의 인상이 굳어 있다거나 근심에 찬 표정이라면 이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기쁨을 누릴 사람

들은 거의 없다. 설교자는 따뜻하고 온화한 언어의 사용, 설교의 내용과 동일한 인상을 가져야 한다. 간혹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설교자의 인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스스로 발견하고 정정해야 한다.

10-2 인상이 너무 굳어 있거나 너무 차가운 인상을 가지고 있어서 회중에게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설교자는 자신의 인상을 부드럽게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인상과 열정 모든 면에서 회중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설교자의 얼굴에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자리 잡아야 하고 험한 인상은 멀리 사라져야 한다.

11. 자율성의 문제

11-1 설교의 내용이나 원고가 잘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슴에서부터 나오는 설교를 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채 자꾸 원고를 바라보게 되면 설교는 강의 형태로 전달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회중과의 시선 교환을 통한 의사소통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며 회중의 가슴에 파고들어 결단에 이르게 하는 설교를 할 수 없다.

11-2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전달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잘 준비된 원고의 내용을 여유 있게 소화하고 원고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유롭고 확신에 차서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회중과의 자유로운 시선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어감이나 속도, 음성의 문제, 제스처의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모든 부분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를 할 수 있다.

11-3 이러한 설교자에게서 회중은 신뢰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선포를 통하여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결단의 기회를 갖게 해 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원고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라도 불필요하게 몸을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손을 너무 자주 움직인다거나 하여서 회중으로 하여금 설교자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회중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12. 전치와 무질서한 앞 머리카락들

12-1 설교자는 회중에게 깔끔하고 단정하며 편안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설교자가 강단에 오르는데 회중에게 산만하게 보인다거나 답답한 인상을 준다면 말씀 선포 이전에 질서정연한 인간적인 교류에 실패하게 된다. 설교자의 앞머리가 길고 한 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는 모습이나 단정하게 빗어 넘기지 못하고 흐트러져 있는 머리 모양은 회중에게 산만하게 보이며 답답함을 줄 뿐 아니라 설교자의 인상을 흐트러뜨려 회중의 시선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12-2 설교란 설교자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기에 자연적으로 회중은 설교자의 입을 쳐다보게 된다. 이때 전치(前齒)의 간격이 떨어져 있거나 충치로 검정색을 갖고 있다면 이것은 회중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이 되다. 또한 고르지 못한 치아들로 인하여 발음이 부정확한 설교자도 있다. 이러한 설교자들도 치과를 방문하여 의사와 상담해 볼 필요가 있다.

13. 제스처의 문제

13-1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설교자는 그저 가만히 서서 회중만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지 않는다. 자신의 음정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조화롭게 활용해 단조

로움을 피하고 적절한 제스처를 통하여 회중의 심령을 움직이는 선포를 할 수 있다. 적절하게 사용되는 제스처는 회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매우 효과적이며 설교자의 동작을 통한 회중과의 적절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13-2 제스처는 선포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말씀의 선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제스처는 매우 어색할 뿐만 아니라 회중에게도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면, 제스처가 먼저 나오고 언어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신 없는 표현이며 선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어색하다. 강조해야 할 순간에 자신의 선포에 힘을 주고 강력한 결단의 선포를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는 제스처는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제스처는 회중에게 산만함을 줄 뿐 선포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거의 제스처를 사용하지 않고 선포하는 설교자에게는 열정도, 선포에 대한 의욕도 없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또한 갑작스럽게 등장한 제스처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면 어색하기만 할 뿐이다.

14. 화신적인 설교의 정도 문제

14-1 설교자는 성육화 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과 설교자가 하나가 되어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설교의 내용과 설교자가 분리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내용과 자신의 음성이나 표현을 일치시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자신이 선포하는 설교의 내용에 깊숙이 몰입되어야 함은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설교자가 그날의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차가운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성실한 설교자는 언제나 설교를 통하여 자신의 이론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속에 화신(Incarnation)이 되어 확신에 찬 선포를 해야 한다.